

발 간 번 호

2020 연구보고서

#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척도개발 기초연구



#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척도개발 기초연구

2020년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11.

연구수행기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연구책임자	김범중(중앙대학교)
공동연구원	원영희(한국성서대학교) 한정란(한서대학교)
연구보조원	이정원(송실대학교 박사과정) 고성현(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최명진(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원기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요 약 문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산업사회 발달 과정에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주변화 됨. 이에 부정적 연령주의가 성장함.
- Butler(1969)에 의해 소개된 연령주의는 ‘연령에 기반하여 파생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 인지, 행동적인 편견, 고정관념,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됨.
- 일상생활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령주의는 노인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경제적 빈곤, 노인 소외, 노인 자살 등 노인인권의 비존중과 침해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아셈 회원국 대부분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연령주의로 인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이 큼. 따라서 아셈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여 연령주의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음. 본 연구는 연령주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아셈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조사하며, 전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 개발을 실시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II. 주요 연구 결과

- 연령주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연령주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분의 모호성, 교육영역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자기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연령주의 발생 원인의 다양성, 연령주의 내 성별차이 인식의 중요성, 세대별 연령주의 내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 연령주의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인 9개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음.

- 척도 개발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연령주의 척도 조사대상의 확대, 척도개발 시 다양한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의 고려 필요, 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 될 요소, 본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인 4가지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음.
- 아셈 회원국 특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유럽의 사회문화적 특성, 유럽과 아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유럽의 연령주의 현황,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특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 인식 차이라는 6개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음.
- 문헌 분석과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음. 예비문항은 총 30문항으로 연령주의 영역과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개발하였음. 구체적으로 신체 이미지, 가족, 교육, 노동시장, 의료, 복지, 매스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령주의를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정서, 인지, 행동적 요소와 긍정적, 부정적 연령주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도록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음.

### Ⅲ. 결론

- 본 연구를 통한 제언 다음과 같음. 첫째, 연령주의 발생영역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 발생영역을 7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연령주의가 일상생활 및 사회전반에 걸쳐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발생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 개발시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아셈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요구됨. 본 연구는 아셈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령주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시간, 예산,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10여개국을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각 지역별,

국가별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이 상이하고 또한 연령주의도 각기 다를 수 있는 만큼 51개 회원국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구 목적 및 수행 과정상 국제 기구의 협력을 통한 조사가 필요함. 향후 아셈 회원국 대상 조사를 할 때 아셈회의 및 유관 국제 기구의 협조를 통해 회원국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아셈에 참여하는 회원국 대표가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contact point를 마련하여 활용함이 연구 수월성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임.
- 넷째, 해외전문가의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함. 해외전문가 조사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섭외 자체도 어려웠고 의사소통도 원활치 못했음.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셈, 세계노년학회 등의 국제기구 및 학술단체의 협조 하에 해외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구해야 함.
- 다섯째, 본척도 개발이 필요함.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야 함. 지속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 끝으로, 척도개발의 한계점 극복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함. 회원국 간 문화적 상이함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문항을 개발하여 각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주의 차이를 분석하고 문화, 국가별 실정에 맞는 연령주의 극복 방안을 제시함이 필요함.

## 목 차

요 약 문 .....	I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b>제2장 이론적 배경</b> .....	7
제1절 연령주의 개념 .....	7
제2절 연령주의 관련 이론 .....	12
제3절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
제4절 세대별 연령주의 연구 .....	28
제5절 연령주의의 영역 .....	36
제6절 연령주의 유형과 세부 구성요소 .....	46
<b>제3장 연령주의 척도</b> .....	52
제1절 척도개발 사전 조사 .....	52
제2절 기존 척도의 한계 .....	67
<b>제4장 아셈 회원국의 특성과 연령주의</b> .....	68
제1절 유럽 회원국의 연령주의 .....	68
제2절 아시아 회원국의 연령주의 .....	77
<b>제5장 전문가 조사</b> .....	86
제1절 연령주의에 관한 전문가 조사 .....	88
제2절 아셈 회원국의 특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	101



제3절 척도개발 전문가 조사 .....	108
<b>제6장 연령주의 척도개발 .....</b>	<b>113</b>
제1절 연령주의 예비문항 개발과정 .....	113
제2절 연령주의 예비문항 .....	114
<b>제7장 결론 .....</b>	<b>118</b>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18
제2절 연구의 의의 .....	121
제3절 제언 .....	122
<b>참고문헌 .....</b>	<b>125</b>

## 표 목 차

<표 2-1> 연령주의 관련 이론 .....	22
<표 3-1> 연령주의 및 관련 주요 척도 .....	52
<표 3-2>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Tuckman, Lorge, 1953) .....	54
<표 3-3>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Kogan, 1961) .....	55
<표 3-4> 노화사실인지척도(Palmore, 1977) .....	56
<표 3-5> 의미분화척도(Sanders et al., 1984) .....	58
<표 3-6> 연령주의 척도(Fraboni et al., 1990) .....	59
<표 3-7> 연령주의 척도(Palmore, 2001) .....	60
<표 3-8> 노인에 대한 평가 척도(Cherry, Palmore, 2008) .....	61
<표 3-9> 연령주의 척도(European Social Survey, 2008) .....	63
<표 3-10> 연령차별 척도(Furunes, Mykletun, 2010) .....	64
<표 3-11> 연령주의 척도(김주현, 2012) .....	65
<표 3-12> 연령주의 척도(North, Fiske, 2013) .....	66
<표 5-1> 전문가 조사 진행 일정 .....	86
<표 5-2> 질문서 내용 .....	88
<표 6-1> 연령주의 예비문항 .....	117

## 그 림 목 차

<그림 6-1> 연령주의 예비문항 개발 절차 .....	114
--------------------------------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필요성

오늘날 전(全)지구적으로 인구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다. 이는 저출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함인데, 과거에 유례없는 노인층 증가로 인해 명실공히 장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셈 회원국 대부분이 이전 시기와 현격히 차이 나는 노인인구의 증대를 목도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사회 이후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는 현 상황에 이르기 까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Riesman(1950)은 미국이 전통지향형 사회(tradition-directed)에서 내부지향형 사회(inner-directed)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전통지향형 사회에서는 노인 집단이 가족이나 사회에서 웃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젊은 세대에 경험 및 지식을 전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내부지향형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엄격한 과거의 전통이 새로운 가치와 규범에 대체됨에 따라 노인 세대의 가르침은 주변화(marginalization) 되었다. 또한 과학의 발전이 종교와 전통지식을 대체했으며, 개인적 성취와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부정적 연령주의의 성장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었다.

Riesman(1950)의 사회변화에 따른 연령주의 출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이후, Butler(1969)는 "연령주의"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이는 연령주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연령주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970년부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각국의 보수정당 및 보수적인 대중매체는 노인들을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일반화 하였다. 노인들은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사용한다고 묘사하며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연령주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듯 초기의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나 의료제도와

같은 사회보장비 과다 지출을 비판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다(김주현, 2015).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과 마찬가지로 연령주의 역시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현실적 관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점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즉,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생성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적 및 구조적 차별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과의 접촉 기피,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대중매체에서의 부정적 노인 이미지 고착화 등으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빈곤, 노인 소외, 노인 자살 등 궁극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세대 통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연령주의의 주요 피해대상자인 노인도 연령에 의한 차별구조를 당연시 여겨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김주현, 2009).

이렇듯 사회적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제도적 변화에도 반영되어 노인을 수동적이며 시혜적인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으로 인식되어 세대 간 유대감을 낮추고 세대갈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정순돌, 2015).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와 가족구조 변화 및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에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감소하고 노인들이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노인의 지지기반이 약화되었으며, 노인은 학대와 자기방임, 편견, 차별 등에 노출되고 있다(박연주, 2020). 또한 노인층은 경제적 어려움, 취약한 건강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돌봄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거나 재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판단 능력이나 의사표현이 부족한 경우 이들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의 세대차이 내지 세대갈등의 심화로 인해 노인차별 내지 노인혐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원영희 외, 2017).

그러나 노인인권의 심각성과 연령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미약하다. 특히 아셈 회원국은 대부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령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아셈 회원국들이 연령주의 문제에 공동으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국가들의 연령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셈 회원국들 간에 연령주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셈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척도를 통해 각국의 연령주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령주의 척도를 아셈 회원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 개발된 척도와 연구 대상 지역도 특정 국가로 한정된 경우가 많아서 보편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셈 회원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령주의 척도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척도개발에 앞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 살피는 기초연구 수행은 노인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과 인식 등을 가시화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연령주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념, 발생영역, 유형 및 구성 요소 등 이론적 배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기존 연령주의 척도를 분석하여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 개발에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

둘째, 아셈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조사하여 아셈 회원국의 지역 간·국가 간 유사점, 차이점을 고찰하고 더불어 아셈 회원국의 연령주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다.

셋째, 전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연령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아셈 회원국의 연령주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주의 이론적 배경, 전문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통하여 아셈 회원국의 연령주의를 차후에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연령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아셈 회원국 차원에서 연령주의를 다루는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아셈 회원국의 연령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제2장 연령주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령주의 개념, 연령주의 관련 이론,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별 연령주의 연구, 연령주의의 영역, 연령주의 유형과 세부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 척도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제3장은 기존 연령주의 척도를 다루는 장으로 기존 척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척도의 유형과 내용을 조사하였고, 기존 척도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은 아셈 회원국의 특성과 연령주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선 유럽 회원국의 연령주의를 권역 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유럽과 아시아 각각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령주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두 지역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전문가조사는 3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연령주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시각으로 본 연령주의 실태,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연령주의 관점을 자세히 소개하여 이론적 배경을 보완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둘째, 아셈 회원국 특성에 대해 문헌조사와 별도로 전문가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아셈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연령주의 현황을 보았다. 셋째, 척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척도개발에 필요한 내용, 절차,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였다.

제6장은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다루는 장으로 선행연구 검토와 아셈 회원국 현황, 전문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는 과정과 최종 예비문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각 장의 분석 결과와 함의를 짚어 보고 이를 종합하여,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예비문항 척도개발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활용하여 연령주의 예비문항 척도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헌조사

국내외 연구자료(척도, 보고서, 논문, 통계 등)를 수집하여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분석자료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부터 수집하고 스크리닝 작업을 거쳐 최종문헌을 선정하였다. 문헌조사 시 이용한 국내 및 국외 연구자료는 대표적으로 한국노년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보고서,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Group on Attitudes to Age,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등으로부터 추출하였다.

### 2) 전문가 조사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선정하기 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령주의 전반적 내용, 아셈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연령주의, 연령주의 척도개발 시 유의사항과 척도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등을 묻고자 하였으며, 전문가 조사 대상 구성은 노년학,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척도개발, 노인 인권, 지역학, 비교문화연구 등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로 하였다. 이들은 연구 경력이 풍부하며 현재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와 더불어 해외 전문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국내외적 폭넓은 시각으로 연령주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대면 면접, 전화 면접, 비대면 화상 면접, 이메일 조사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의 자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는 전문가 자문 진행 전에 전문가들에게 미리 연구자문 질문서를 전달하였다. 연구자문 질문서에는 연구자문

과제명,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한 아셈 회원국들의 연령주의 구성요인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취합한 자료, 구체적인 주요 질문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령주의의 개념, 관련 이론,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별 연령주의 연구, 발생영역, 유형과 세부 구성요소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연령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1절 연령주의 개념

연령주의(ageism)는 연령에 기반하여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사회적 이해, 부정적 태도,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견지하는 것으로 정서, 인식, 그리고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Kite & Wagner, 2004; North & Fiske, 2012). 연령주의 개념은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의 Butler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다. Butler(1969)는 “특정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대해 갖는 편견”이라고 정의하였으며 6년 후 Butler(1975)는 “노인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를 체계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연령주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자기 실현적 예언을 초래함으로써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Butler, 1980; Palmore, 1999). 또한 연령주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향할 수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다른 차별에 비해 널리 나타나는 개념이다(Levy & Banaji, 2002).

이러한 연령주의는 성차별, 인종차별과 더불어 3대 차별에 속한다(Palmore, 2001). 연령주의는 성차별 및 인종차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이나 행동양식인 연령규범에 기인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표명된다. 특히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신체적 차이에 기반하여 배제 행동이 나타나지만, 연령주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이를 토대로 차별이 이루어진다(Pope, 2017). 한편 연령에 따른 부당한 태도와 고정관념은 주로 노인

에게 집중되어 있어 연령주의 개념은 주로 노인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김문영, 2000; 김옥, 2002).

## 1. 연령주의의 정의

그동안 연령주의 연구가 진척됨에 불구하고 연령주의 정의에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연령주의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었지만 대부분 Butler의 고전적인 정의를 따르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연령주의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McGowan(1996)은 Butler의 고전적인 연령주의 정의에 따른 연령주의의 원인, 결과, 대응에 관한 연구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연령주의의 정의와 개념적 측면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연령주의 연구들이 개념의 복잡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일종의 개념 환원(conceptual reduction)에 직면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Johnson과 Bytheway(1993)는 Butler의 정의 자체가 연령주의 자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령주의는 “연령대 간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차이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고전적 연령주의 정의는 노인의 부정적인 차별에만 주목하여 긍정적인 차별에 관한 연구는 다루지 않았으며, ‘노인(the elderly)’이라는 집단을 ‘우리과 그들(us and them)’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가정하였다고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았다(Bytheway, 2005). 특히 Butler가 정의한 ‘노인’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연령을 제시하지 않았고 추상적으로 ‘우리과 그들’과는 다르다고 보아 연령주의의 정의 자체가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Iversen, Larsen, & Solem, 2009).

Iversen 등(2009)은 Butler의 고전적 연령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령주의와 관련된 27개의 선행연구를 리뷰하여 대안적 연령주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Iversen 등은 “연령주의는 노인을 생물학적 연령이나 노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편견, 고정관념,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수준에서 표현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령주의의 대안적 정의는 연령주의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부정적/긍정적 측면, 명시적/암묵적 측면,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까지의 수준별 측면을 다루어 연령주의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완성된 정의라고 평가된다(Ayalon & Tesch-Römer, 2018; De São José & Amado, 2017). 이러한 Butler와 Iversen 등의 정의는 연령주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연령주의를 ‘연령에 기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 인지, 행동적인 편견, 고정관념,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정서에 해당하는 편견은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며, 인지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은 잘못되거나 편향된 이미지이며, 행동에 해당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회피, 배제, 혐오 등의 조작적 의미를 가진다.

과거 연령주의는 연령차별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정의 측면에서 혼재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구분하는 논의도 제기되었다(김주현, 2015; Stypińska & Nikander, 2018). McMullin과 Marshall(2001)은 연령주의는 이념과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연령차별은 연령주의의 행동적 차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연령주의의 이념은 부정적인 고정관념, 인식, 태도 등으로 존재하며 행동적 차원으로서의 연령주의, 즉 연령차별은 연령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연령을 기준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령차별은 주로 고용 상에서의 노인의 불평등한 처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의 법적 금지를 언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반면 연령주의는 행동적이며 외적인 측면으로만 나타나는 연령차별과는 달리 인지적이며 감정적인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에 비해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동시장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령주의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연령차별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은 분석하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Furunes & Mykletun, 2010; Stypińska & Nikander, 2018).

## 2. 연령주의 개념의 역사적 흐름

연령주의는 Butler(1969)가 개념적으로 정립하기 이전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해온 개념이다. 연령주의는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닌 집단 의식적 차원이나 언어적인 역사적 흐름에 발맞추어 형성되었다(Pope, 2017). 특히 죽음에 대한 시대적 관점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였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보았으며 편안한 과정이라고 보았지만,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 묘지가 마을의 외부로 옮겨지면서 죽음은 등한시되고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했다(Mystakidou, Parpa, Tsilika, Katsouda, & Vlahos, 2005). 이후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을 향한 태도와 연령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Martens, Greenberg, Schimel, & Landau, 2004). 또한 연령주의는 단어 자체로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채 발전해왔다. Palmore(2000)는 ‘연령(age), 노인(elderly), 나이 듦(old)’이란 단어 자체가 대체로 정상적인 기능과 능력의 손실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노인, 나이 듦이라는 단어도 노화와 죽음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노령공포 내지 노인혐오(gerontophobia)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령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Osgood, 2000).

연령주의의 유래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노년학적 관점은 주요한 역사적 변화인 인쇄기의 출현과 산업혁명이 연령주의를 유발했다고 보았다(Nelson, 2005; Pope, 2017). 고대 선사시대와 농경시대의 노인은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로 권위있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1440년 구텐베르크(Gutenberg)에 의해 발전된 인쇄술의 출현은 전통, 문화, 역사, 지식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보존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가능케 하였다. 때문에 이를 담당했던 노인의 역할이 대체 되었다(Nelson, 2005). 또한 기술의 혁신과 노동의 변화를 일으킨 산업혁명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이동성이 제한적인 노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였다. 결국 경제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근대사회에서 노인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졌으며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에 비해 높은 권력을 가져 기존 계층의 구조가 바뀐 것이다(Haber & Gratton, 1992).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진

퇴직 연령의 제도화는 생산직에 참여하지 않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Macnicol, 2006).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에게 도움을 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을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자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양산하였다(Binstock, 2005). 이후 197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출현은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감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기존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던 노인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노인 세대를 향한 불만의 증대는 연령주의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Binstock, 2010).

연령주의와 관련한 역사적 흐름은 동서양 국가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Cuddy, Norton, & Fiske, 2005; Kite & Wagner, 2004; Levy & Banaji, 2002).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연령주의 역사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연령주의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Vauclair et al., 2016). 대표적으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파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장유유서(長幼有序)와 효를 강조하고 연장자를 연소자에 비해 권위와 위계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노인에게 호의적인 노인을 위한 연령주의(ageism for the aged)가 나타났다(김주현, 2009). 이는 연장자와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사회계층은 연소자로의 권력 이동을 제한하여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과 노인은 부양이 필요한 약자라는 근대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여 두 가지 인식이 혼재하여 나타났다(지은정, 김진, 손동기, 2016). 이후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노인에 대한 전통적 이념이 붕괴되고 노인 집단의 문제와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게 되었다(오혜인, 주경희, 김세원, 2015).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노인에게 불리한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노인을 비롯한 연장자들은 과거에 비해 권위와 권력을 상실하였다(김주현, 2009).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연령주의는 생산성과 능력 위주의 가치와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김주현, 2015).

## 제2절 연령주의 관련 이론

연령주의는 다양한 원인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학제적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Ayalon과 Tesch-Römer(2018)는 기존에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크게 연령주의가 어느 수준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미시적 수준, 중시적 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구분한 바 있다. 미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개인의 심리와 행동적 측면에서 연령주의가 나타난다고 보았고, 중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양한 조직 및 집단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령주의를 설명하였으며, 거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사회, 제도, 문화, 정치 등의 거시적 요소에 의해 연령주의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미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은 공포 관리 이론, 고정관념 형성 이론, 고정관념 내용 모델이 해당된다. 중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은 연령분리 이론, 세대간 갈등 이론, 집단간 위협 이론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은 근대화 이론이 대표적이다. Ayalon과 Tesch-Römer(2018)가 설명한 연령주의 이론 외에도 관계 연령주의와 기능적 접근이 추가적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은 연령주의가 나타나는 수준에 따라 다양하지만 각각의 이론은 서로 중첩되고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연령주의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Ayalon & Tesch-Römer, 2018).

### 1. 미시적(Micro-Level) 이론

#### 1)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공포 관리 이론은 죽음에 대한 실존적 공포에 근거하여 연령주의를 설명한다. 공포 관리 이론에서 연령주의란 노인과 거리를 둠으로써 죽음에 대한 상기를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Martens, Goldenberg, & Greenberg, 2005).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할 때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상기시키는 존재를 거부하게 되고 자신과 동일하거나

젊은 세대에 더 깊은 정체감을 형성한다(Greenberg et al., 2002). 즉 연령주의는 죽음 필연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발생하며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노인을 향한 방어적 반응이다(Chonody & Teater, 2016). Martens 등(2005)은 노인이 죽음을 상기시키는 죽음의 위협, 육체의 퇴화를 의미하는 동물성의 위협,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뜻하는 무의미의 위협을 가지고 있어 연령주의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포 관리 이론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관리하고자 문화적 세계관과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죽음과 관련하여 문화적 세계관과 자존감은 능동적인 사고의 억제와 인지적인 왜곡과 같은 의식적인 방어와는 달리 무의식적이며 지속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한다(Pyszczynski, Solomon, & Greenberg, 2015). 문화적 세계관은 불멸의 추구처럼 죽음을 초월하기 위한 문화적 가치를 의미하며 자존감은 문화적 세계관 내의 개인의 가치를 뜻한다. 하지만 연령주의는 죽음을 초월하려는 문화적 세계관과 충돌하고 낮은 자존감을 야기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Martens et al., 2005).

공포 관리 이론은 연령주의의 정서적 요소의 근원을 찾기에 유용하고 주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Ayalon & Tesch-Römer, 2018; Bodner,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는 노화 대신 젊음을 추구하며 자신이 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Rubin & Berntsen, 2006). 이들은 나이가 많은 노인을 통해 생명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노인을 부정적인 감정과 연합하는 연령주의를 보인다(추병완, 2012; Chonody & Teater, 2016).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공포 관리 이론을 적용했을 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y, Pyszczynski, Solomon, & Greenberg, 2000).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게 있어 죽음과 노쇠함은 충분히 익숙한 환경이며 오히려 죽음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포 관리 이론은 주로 젊은 세대나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McCoy et al., 2000).

한편 공포 관리 이론은 죽음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음을 고통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정의했으며 중세시대에는 죽음에 대해 친숙하고 가깝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Pope, 2017).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으므로 단순히 노인을 공포와 죽음의 대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동양에서는 서양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인식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Yen & Cheng, 2010).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과 죽음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공포 관리 이론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Pyszczyński et al., 2015).

## 2) 고정관념 형성 이론(Stereotype embodiment theory)

고정관념 형성 이론은 노인이 노인 집단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연령주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다른 세대와 달리 노인 세대는 노인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에 장기간 노출된 경험을 가진다.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연령주의에 대한 메시지는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내면화되고 축적된다. Levy(2009)는 젊은 시절에 노인 세대를 향한 연령주의가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인의 자기 연령주의는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다고 보고했다.

고정관념 형성 이론은 노인이 연령주의를 나타내는 과정을 심리학적, 행동적,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한다(Swift, Abrams, Lamont, & Drury, 2017). 첫째, 심리학적으로 연령주의는 노인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바탕으로 실제 노인을 향한 연령주의적 태도와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연령주의가 서로 일치할 때 발생한다. 연령주의의 자기 충족적 태도는 노인의 자기 일치성과 합리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Levy, 2009). 둘째, 행동적으로 연령주의는 노인의 행동적인 선택과 생활방식에 의해 발생한다. 가령 일부 노인은 신체적 노화와 나약함을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생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의 함양을 포기하고 지내는데 이는 결국 자기 연령주의를 강화하는 행동적인 방식이다(Levy & Myers, 2004). 셋째, 연령주의는 노인의 신경생리학적 반응을 동반하여 나타난다. Levy, Hausdorff, Hencke와 Wei(2000)는 62세~82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자극과 부정적 자극을 주고, 혈압, 심장박동, 피부 전도율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부정적 자극에 할당된 참가자는 심박수를 제외한 모든 생리학적 반응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자극이 노인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고정관념 형성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노인 세대를 향한 명시적인 태도에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보였지만(Cherry & Palmore, 2008),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태도에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vy & Schlesinger, 2005). Levy와 Schlesinger(2005)는 젊은 참가자보다 오히려 노인 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기금 증액에 반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고정관념 형성 이론은 연령주의가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내재화 되었다고 보기에 특정 상황에서 연령주의를 위협으로 보는 집단간 위협 이론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이고 일관적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평가된다(Levy, 2009).

### 3) 고정관념 내용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

고정관념 내용 모델은 집단 구성원은 고정관념의 2개의 차원인 따뜻함(warmth)과 유능함(competence)의 정도에 근거해 판단되고 분류된다고 보았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각각의 차원은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집단유형과 감정적 편견을 제시한다. 따뜻함과 유능함이 모두 높은 경우는 내집단(ingroup)이나 친밀한 모임의 집단이 해당되며 존경심과 자부심을 비롯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한다. 반면 따뜻함과 유능함이 모두 낮은 경우는 빈곤층이나 노숙인이 해당되며 경멸, 혐오, 분노를 유발한다. 또한 따뜻함은 낮지만 유능함이 높은 경우는 유태인이나 동양인 집단이 해당되며 질투가 유발된다. 반대로 따뜻함은 높지만 유능함이 낮은 경우는 노인이나 장애인 집단이 해당되며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한다(Cuddy et al., 2005).

고정관념 내용 모델은 노인에 대한 높은 따뜻함과 낮은 유능함은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유발하는데 이는 곧 연령주의와 관계가 있다. 노인을 향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은 노인을 의존적이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노인을 따뜻하지만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

했으며(Cuddy & Fiske, 2002), 28개의 유럽 국가에서는 노인을 따뜻하다고 지각한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83점을 보고했지만 노인을 유능하다고 지각한 점수는 평균 2.44점으로 낮게 나타나 고정관념 내용 모델을 지지하였다(Abrams, Vauclair & Swift, 2011).

한편 고정관념 내용 모델은 노인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 중에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으로 나뉠 수 있고, 연령에 따라서도 초기 노인이나 후기 노인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유능함을 계속 보이는 노인도 있는가 하면 만성화된 건강상태로 냉소적인 노인도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노인의 상태와 정체성을 단순화 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North & Fiske, 2013).

## 2. 중시적(Mezzo-Level) 이론

### 1) 연령분리 이론(Age segregation theory)

연령분리 이론은 거시적 수준에 해당하는 사회의 구조적이며 주도적인 연령의 분리가 중시적 수준인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쳐 연령주의가 발생한다고 보았다(Hagestad & Uhlenberg, 2005). 사회는 연령을 기준으로 교육, 가족의 형성과 직업, 은퇴의 시점과 같이 개인의 계획된 생활 주기를 잠정적으로 설정하여 예상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된 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는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학교, 정부 기관, 기업과 같은 조직에 구성원을 할당하였다. Hagestad와 Uhlenberg(2005)는 인생의 생활 주기에서 연령의 분리는 구체적으로 제도적, 공간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제도적 연령분리는 학교의 입학이나 직장의 퇴직 시점과 같이 사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연령의 구분을 의미한다. 공간적 연령분리는 연령대에 따라 요양원이나 노인생활시설과 같은 주거시설에도 분리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문화적 연령분리는 연령대별 사용하는 언어, 용어, 유머가 다르듯 문화에서도 연령분리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연령분리 이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간적, 문화적 연령분리가 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유지에는 선기능적 역할을 수행할지라도 중시적 수준인 세대 간의 자유로운 만남, 교류, 이동가능성의 기회를 차단되며 결국 연령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Drury, Hutchison, & Abrams, 2016). 따라서 연령분리 이론은 중시적 수준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Bratt 등(2018)은 29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연령분리에 따른 연령주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국가별로 연령분리와 연령주의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연령분리만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보다 많은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2) 세대간 갈등 이론(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ory)

세대간 갈등 이론 혹은 세대간 긴장(intergenerational tension)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과 긴장으로 연령주의가 발생한다고 본다(North & Fiske, 2013).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세대간 갈등과 연령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첫째, 세대간 갈등 이론에서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무너질 때 연령주의가 발생한다고 본다. 노인을 향한 젊은 세대의 기대감은 노인으로부터 자원 계승에 대한 기대, 노인은 공유된 자원을 최소한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기대, 노인은 나이에 맞게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는 노인이 자원을 독점하면서 젊은 세대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인식하면 노인에 대해 긴장감과 갈등을 경험하는 동시에 연령주의를 보였다(North & Fiske, 2013). 둘째, 1930년대 노인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동정의 대상에서, 197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기회와 예산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인식이 변화되어 연령주의가 나타났다(Binstock, 2010). 이러한 배경에는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노인에게 집중된 복지정책, 노인의 축적된 재정과 경제력, 노인 유권자의 정책적 지위 상승 등이 영향을 주었다. 셋째, 노인을 이질적 대상이 아닌 취약한 동질적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는 초기에 노인만의 전염병으로 묘사되어(Zhou et al., 2020) 젊은 세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부 노인을 향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세대간 갈등 이론에 따른 연령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Ayalon, 2020).

### 3) 집단간 위협 이론(Intergroup threat theory)

집단간 위협 이론은 연령주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존재하는 연령주의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Ayalon & Tesch-Römer, 2018). 집단간 위협 이론은 특정집단이 자신 혹은 내부집단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때 개인은 특정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갖거나 차별적 행동을 한다고 본다(Stephan & Stephan, 2000). 집단은 문화적 차원, 문화간 관계, 성격 특성, 태도와 인식, 문화간 접촉,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위협 여부가 결정된다. 집단간 위협 이론은 위협을 크게 현실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위협이 집단간 적대감과 갈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현실적 위협은 집단의 권력, 경제력, 자원, 복지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며, 상징적 위협은 세계관, 종교, 신념체계, 가치관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현실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은 집단 구성원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단이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 집단 구성원은 정서적으로 두려움, 분노, 혐오 등의 감정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이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표현된다. 집단간 위협에 따른 인지적 변화로는 집단 구성원이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생성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사고하게 되는 실행기능의 저하와 인지적 비약이 발생한다. 집단간 위협에 따른 행동적 변화로는 주로 정서적이며 인지적 변화와 함께 동반하여 폭언, 폭행, 무시, 차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Stephan & Stephan, 2017).

집단간 위협 이론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 대해 현실적 위협이나 상징적 위협을 느끼게 되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부정적 변화를 동반하여 연령주의가 발생한다고 본다. 젊은 세대는 사회에서 노인의 보수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거나(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노인이 경제적인 기여에 비하여 많은 혜택과 보상을 받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범을 당한다고 생각해 젊은 세대에게 현실적 위협이 된다. 또한 평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예절과 권위적 가치를 주장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노인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여는 상징적인 위협에

해당될 수 있다. 조수현과 정순돌(2019)은 청년과 중장년 세대에서 사회위험수준의 인식이 이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와 노인 낙인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고하여 집단간 위협 이론으로 연령주의가 발생했음을 설명하였다.

### 3. 거시적(Macro-Level) 이론

#### 1)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근대화 이론은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현대의 자본주의가 노인을 비생산적이며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여 연령주의를 생산한다고 보았다(Macnicol, 2006). Cowgill과 Holmes(1972)는 커뮤니티 내의 노인의 지위가 사회의 근대화 정도와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하여 근대화 이론으로 연령주의를 처음으로 설명하였다(Vauclair et al., 2015). 특히 근대화의 주요 특성들 가운데 건강 관련 기술의 발전, 경제의 발전, 도시화와 교육의 증가는 노인의 지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연령주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owgill & Holmes, 1972; Vauclair et al., 2015). 더불어 근대화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생업을 담당했던 농업의 비중을 감소시켰으며, 다른 세대와의 접촉을 줄여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종교적 의식주의의 감소와 문해력의 증가도 지식과 지혜의 기반으로 여겨지던 노인의 지위에 도전하였으며, 은퇴 제도의 도입은 노인에게 평생직장이 아닌 한정된 직업을 제공하여 사람들은 노인을 비생산적이고 쓸모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였다(De Tavernier, Naegele, & Hess, 2019).

한편 거시적인 수준에서 연령주의를 설명한 근대화 이론은 몇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근대화 이론은 사회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화 정도와 노인의 지위 간에는 항상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Street & Parham, 2002). Palmore와 Manton(1974)은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근대화와 노인의 객관적 지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근대화 초기에는 노인의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반비례 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복지국가의 확립과 같이 사회가 발전될수록 노인의 객관적 지위도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여 J자형 곡선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Vauclair 등(2015)은 Palmore와 Manton (1974)의 연구를 확장하여

25개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근대화 정도와 노인의 주관적 지위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어느 정도 사회가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다면 노인의 주관적 지위도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여 긍정적인 선형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둘째, Cowgill과 Holmes(1972)는 근대화 이론으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연령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부재하였다(De Tavernier et al., 2019). 노인의 사회적 지위의 상실이 무조건적으로 연령주의와 연결되지 못하듯 노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는 연령주의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노인에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내포할 수도 있으므로 노인의 지위만으로 연령주의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Durante et al., 2013). 셋째,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연령주의는 근대화라는 사회적 특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Dannefer & Feldman, 2017). 특히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은 변화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거시적 수준에서 연령주의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4. 기타 이론들

##### 1) 관계 연령주의(Relational ageism)

관계 연령주의는 대중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연령주의 메시지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서 내면화되고 유지되며 순환되는지를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Gendron, Inker, & Welleford, 2018). 관계 연령주의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메시지인 문화 서사(cultural narrative)가 연령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보았다. 연령주의적 문화 서사는 지속적이며 무의식적인 형태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관계 연령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대인관계와 집단간 접촉 경험을 통해 형성되므로 상호관계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령주의적 문화 서사에 의해 내면화된 연령주의는 일상적인 연령차별적 표현이나 언어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연령주의는 타인이나 집단의 긍정적인 피드백(동의, 유머, 인정)을 통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보인다(Gendron, Inker, Andricosky, & Zanjani, 2020).

관계 연령주의는 연령주의의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으로 대인관계와 집단에서 연령주의가 규범화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관계 연령주의는 대인관계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연령차별적 언어를 중심으로 연령주의가 규범화된다고 보았다. Gendron 등(2018)은 6차 백악관 고령화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에서 발표된 15개 비디오의 연령차별적 언어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공공기관에서도 연령차별적 언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령차별적 언어는 미시적 수준(예, 나이가 어려 보여 부럽다)과 거시적 수준(예, 고령화현상은 사회적 위기와 재앙이다)으로의 연령주의를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연령차별적 언어는 대인관계와 집단에서 무의식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서로 순환되므로 교정이 쉽지 않다. 특히 젊음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연령차별적 언어가 긍정적으로도 강화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관계 연령주의는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령주의에 대해 대인관계와 집단을 중심으로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이다(Gendron et al., 2018).

## 2)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

Snyder와 Miene(1994)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고정관념의 근원과 과정이 어떠한 기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밝혔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개인의 인지적 기능, 자아보호 기능, 사회적 기능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고 보았다. 첫째, 인지적 기능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확립이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자아보호 기능은 젊은 세대가 노인을 노화와 죽음으로 연결하여 위협으로 인식하고 노인과는 다르다는 고정관념을 생성하여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기능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확립으로 젊은 세대 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서로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기능을 일컫는다. 한편 Snyder와 Miene(1994)의 기능적 접근에 입각한 연령주의에 대한 설명은 연령주의 전반을 설명한 것이 아닌 젊은 세대에 초점을 두고 고정관념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North & Fiske, 2013).

**<표 2-1> 연령주의 관련 이론**

접근 방법	연령주의 관련 이론	연구진(연도)
미시적 수준	공포 관리 이론	- Martens, Goldenberg, & Greenberg (2005)
	고정관념 형성 이론	- Levy (2009)
	고정관념 내용 모델	- Fiske et al. (2002).
중시적 수준	연령분리 이론	- Hagestad & Uhlenberg (2005)
	세대간 갈등 이론	- North & Fiske (2013)
	집단간 위협 이론	- Stephan & Stephan (2000)
거시적 수준	근대화 이론	- Cowgill & Holmes (1972)
기타	관계 연령주의	- Gendron, Inker & Welleford (2018)
	기능적 접근	- Snyder & Miene (1994)

### 제3절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나뉠 수 있다. 연령주의의 영향요인은 연령주의를 경험한 노인 당사자의 요인과 노인에 대해 연령주의를 행하는 외부자의 특성에 관한 요인(김미혜, 김수진, 류주연, 2017),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정책과 관련한 요인(정순돌, 정주희, 2014),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Bronfenbrenner(1979)의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요인이나 McLeroy, Bibeau, Steckler와 Glanz(1988)의 개인적, 대인관계적,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오혜인 등, 2015; Marques et al., 2020). 특히 연령주의 영향요인의 생태학적 접근은 기존의 다양한 이론에서 연구된 분절적인 연령주의 영향요인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개인의 삶에 해당하는 미시적 수준에서부터, 사회구조적 이념과 정책과 같은 거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제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연령주의는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령주의 영향요인을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오혜인 등, 2015).

연령주의 영향요인 가운데 미시적 요인은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및 성격적 요인과 연령, 성별, 교육정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해당한다.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시적 요인으로는 세대나 집단간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세대간 접촉, 세대간 노인에 대한 묘사, 세대간 결속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으로는 사회구조적으로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가치, 노인 인구 비율, 경제적 자원 등이 해당된다.

## 1. 미시적 영향요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주의의 미시적 영향요인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건강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연령주의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나이가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는 어릴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지만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Marques et al., 2020; Officer, Thiyagarajan, Schneiders, Nash, Fuente-Núñez, 2020).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나누어 연령주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이 노인에 비해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났으며(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200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났다는(이지은, 장윤정, 2016) 연구결과가 있었고, 중장년 세대가 노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연령주의를 보고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Bodner, Bergman, & Cohen-Fridel, 2012).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했다(전혜성, 권금주, 2009; Luchesi et al., 2016).

둘째, 성별이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는 대체로 남성일수록 높은 연령주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rques et al., 2020; Officer et al., 2020). 대학생 및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났는데(Bodner

et al., 2012; Smith et al., 2017),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돌봄 욕구를 갖고 있어 여성이 보다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Lambrinou, Sourtzi, Kalokerinou, & Lemonidou, 2009).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전혜성, 권금주, 2009; Vauclair et al., 2015).

셋째, 교육수준이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는 연령주의를 행하는 대상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났지만 (Luchesi et al., 2016), 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연령주의 현상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정순돌, 송아영, 전혜상, 2015).

넷째, 인종이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는 흑인, 라틴계, 아시아인, 백인에게서 연령주의에 대해 서로 차이가 없거나(Springer & Harwood, 2015), 흑인에 비해 백인에게서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혼합된 연구결과를 보였다(Smith et al., 2017).

다섯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는 노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나거나(유혜경, 이민선, 2019; Wurm, Wolff, & Schüz, 2014),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연령주의는 서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였다(Stokes & Moorman, 2016).

여섯째, 지역이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는 노인 부양자와 대학생의 경우에 농촌에 거주할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이재모, 2009; Luchesi et al., 2016), 연령주의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혼합된 연구결과를 보였다(Demir, Bicer, Bulucu-Böyüksoy, & Özen, 2016).

일곱째, 배우자 유무가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는 노인의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배우자가 없을 때에 부정적 연령주의가 나타나거나(김일호, 천희란, 2015), 배우자 유무와 연령주의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Ayalon, 2018).

마지막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유일하게 일관된 방향으로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쳤다(Marques et al., 2020). 특히 노인이 우울을 경험할수록(오혜인 등, 2015; Ayalon, 2018),

만성질환이 많을수록(Stokes & Moorman, 2016), 질병이 많을수록(Wurm et al., 2014), 정신건강이 부정적일수록(구혜영, 2017)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및 성격적 특성은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영향 요인에 해당된다. 특히 노화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은 연령주의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Marques et al., 2020). 첫째, 노화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다(Allan, Johnson, & Emerson, 2014; Bodner et al., 2015; Depaola, Griffin, Young, & Neimeyer, 2003). 연령주의는 노화에 대한 불안을 조정하기 위한 개인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노화에 대한 불안은 연령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Allan et al., 2014). 둘째,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다(Bodner et al., 2015; Depaola et al., 2003). 죽음에 대한 공포와 노화에 대한 불안은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을 뿐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Yan, Silverstein, & Wilber, 2011). 죽음에 대한 공포는 공포 관리 이론을 지지하는 핵심 변인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사람들은 노인과의 거리를 두려는 방어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Chonody & Teater, 2016). 셋째, 성실성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난다(Allan et al., 2014; Kornadt & Kandler, 2017).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내심과 책임감이 크며 충동적인 결정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성격은 연령주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Galton, 2019). 넷째, 우호성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난다(Allan et al., 2014; Gluth, Ebner, & Schmiedek, 2010; Kornadt & Kandler, 2017). 우호성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노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외향성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난다(Gluth et al., 2010; Kornadt & Kandler, 2017).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세대의 구별없이 노인과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가치보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가질수록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노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집단주의 성향은 동서양과 같은 문화적 차이보다

연령주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Zhang et al, 2016).

## 2. 중시적 영향요인

연령주의의 중시적 영향요인은 세대간 접촉의 질, 세대간 노인에 대한 묘사, 세대간 결속도 등과 같이 세대와 집단을 중심으로 미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해당된다. 특히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의 정도는 세대라는 조직과 집단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시적 수준으로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된다(Marques et al., 2020). 첫째, 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세대에서 노인과 경험하는 접촉의 질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다(한경혜, 석민애, 2017; Obhi & Woodhead, 2016; Tan, Zhang, & Fan, 2004).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에서 조부모나 친척과 같이 노인과 직접적 관계를 맺거나 일반적 노인과 같이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는 상관없이, 노인과의 높은 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세대간 접촉의 질은 노인을 회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게 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Obhi & Woodhead, 2016). 한편 세대간 접촉의 빈도는 연령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Marques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세대간 접촉의 절대적인 양이 아닌 접촉하는 방식과 질이 연령주의에 더욱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의미한다. 둘째, 세대간 이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낮은 연령주의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높은 연령주의로 연결되었다(Chen, Joyce, Harwood, & Xiang, 2017; Karpinska, Henkens, & Schippers, 2011). 특히 세대간 의사소통은 중시적 수준에서의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연령분리 이론의 핵심 변인으로, 세대간 의사소통시에 발견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묘사나 부정적 묘사는 노인과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Chen et al., 2017).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도 고용주 집단의 노인에 대한 묘사는 고령 노동자 집단의 모집과 채용단계에서 연령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Karpinska et al., 2011). 마지막으로 세대간 결속도 중 노인 세대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결속도가 강할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다. 세대간 결속도는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결속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조적

결속도, 접촉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정순돌, 정주희, 2014). 특히 노인이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방문과 같은 부양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범적 결속도가 강할수록 높은 자기연령주의가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부터 부양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감이 클수록 높은 자기연령주의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오혜인 등, 2015; 정순돌, 정주희, 2014).

### 3. 거시적 영향요인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가치, 노인 인구 비율, 경제적 자원 등이 있다. 연령주의의 거시적 영향요인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도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연령주의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평등, 형평성, 이타주의적 가치를 내포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개인의 가치관 보다 거시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의 변인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의미하는 복지태도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의미하는 시민권리의식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미혜 등, 2017; 정순돌 등, 2015). 복지태도와 연령주의의 세대별 연구결과, 청년과 중장년 세대에서 복지태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노인 세대에서는 연령주의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정순돌 등, 2015). 또한 시민권리의식은 연령과 상관없이 시민권리의식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다(김미혜 등, 2017). 이처럼 복지태도와 시민권리의식을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는 연령주의와 반대되는 평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연령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개인적 가치에 인지부조화를 야기하여 연령주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혜 등, 2017).

둘째,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 연령주의가 나타났다(Löckenhoff et al., 2009; Ng, Allore, Trentalange, Monin, & Levy, 2015; Officer et al., 2020). Löckenhoff 등(2009)은 26개 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연령주의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았던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200년 동안 사용된 4억개의 노인과 관련한 단어를 분석한 결과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하였음을 밝혀 노인 인구 비율과 연령주의의 관계를 밝혔다(Ng et al., 2015). 이처럼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영향요인으로 연령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은 인구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사회가 기존의 인구 이동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연령주의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Officer et al., 2020).

셋째, 국가의 경제적 자원의 가용성이 적을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North와 Fiske(2016)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때의 4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수록 고령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 내 25개국에서도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auclair et al., 2015).

## 제4절 세대별 연령주의 연구

연령주의는 아동 및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세대란 생애주기단계를 기준으로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여,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 등에서 유사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동일 연령대 집단을 의미한다(주경희, 2016). 세대는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및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세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공유한다. 세대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연령주의만을 파악한 대다수의 기존 척도들은 연령주의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맥락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였다(Bratt et al.,

2018). 세대별로 발생하는 연령주의의 정도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연령주의가 세대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주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Chasteen, Horhota, & Crumley-Branyon, 2020). 한편 세대별 연령주의 연구는 노인을 향한 연령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본 연구 역시 각 세대에서 노인을 향해 나타나는 연령주의 연구에 주목하였다(김문영, 2000; 김옥, 2002).

## 1.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주의 연구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주의는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을 가져 성인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미래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경혜, 석민애, 2017).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청년과 중장년을 중심으로 연령주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연령주의 연구는 발달 초기에 연령주의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의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노인을 향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나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노인을 향한 부정적 연령주의가 나타난다는 대부분의 연구는 연령주의가 선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아동은 대략 3~5세부터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되며 이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인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Chamberlain, Fetterman, & Maher, 1997; Middlecamp & Gross, North & Fiske, 2012). 반면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노인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가 나타나거나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었다(Davidovic, Djordjevic, Erceg, Despotovic, & Milosevic, 2007; Robinson, Zurcher, & Callahan, 2014). 이와 같은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방법론적인 차이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한경혜, 석민애, 2017; Davidovic et al., 2007). 한경혜와 석민애(2017)는 한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명시적으로 측정되었을 때에는 사용된 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암묵적으로 측정되었을 때에는 노인에 대한 뚜렷한 부정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일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한경혜와 석민애(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주의 연구가 방법론적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abcock, MaloneBeach, Hannighofer, & Woodworth-Hou, 2016). 또한 Hoe와 Davidson(2002)은 아동 및 청소년에서 보이는 연령주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친인척에 해당하는 조부모에게 아동 및 청소년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노인들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노인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따라 동일한 노인이라도 상반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Mendonça, Marques와 Abrams(2018)는 아동이 노인의 명시적인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노인의 인지적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아 아동이 노인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이 바라보는 연령주의는 다차원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연령주의 연구가 필요하다(Lichtenstein et al., 2005).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주의 연구는 연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추병완(2012)은 연령주의를 감소하기 위해 노화 과정 및 노인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제공, 역고정관념과 상위 범주의 활성화, 다양한 대리 경험의 활용, 상상된 접촉 기회의 제공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도덕교육의 학습 내용 및 교수 원리를 소개하였다. 또한 Marques와 Vauclair(2015)는 유럽연합의 SIforAGE (Social Innovation for Active and Health Ageing)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르투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인 The imAGES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The imAGES 프로그램은 노인 집단과의 긍정적 접촉, 타인의 관점 배우기, 역고정관념에 대한 정보의 노출, 실행 의도 총 4단계의 교육 법으로 구성된다. The imAGES 프로그램은 통제집단의 비교와 두 번의 사후검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2. 청년의 연령주의 연구

청년은 노인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대에 비해 노인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대표적으로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난 및 일자리 부족 문제와 노인이 추구하는 정년 연장과 은퇴 이후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은 서로 상충되어 나타난다. 또한 청년은 노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과거에 비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노인을 세금 감면, 주거 혜택 등 복지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이선희, 김미리, 정순돌, 2019; 주경희, 2016).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청년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령주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연령주의는 청년과 노인 간의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주경희, 김주현, 정순돌, 임병우, 2017).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조어로 사용되는 ‘틀딱’이라는 노인 비하 표현과 청년이 노인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혐로(嫌老)현상은 사회적 현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19세~29세)의 79.2%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노인인권의 비존중과 침해가 나타난다고 보았고 41.5%만이 사회가 노인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전반적으로 연령주의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영희, 최혜지, 김주현, 김성호, 김지혜, 2017). 이선희 등(2019)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청년의 연령주의 태도를 유형화하였는데 조사된 청년의 65%가 연령주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의 10.4%는 노화인식 양가감정·적극적 노인차별형으로 노인에 대한 강한 연령주의를 표출하고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과 기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56.4%는 노화불안 중수준·소극적 노인차별형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기저에 있으나 적극적인 차별로 나타나지 않는 유형으로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35.0%는 노화불안 저수준·탈 노인차별형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나타나지 않으며 본인의 노화에 대한 불안도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은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이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 (Rupp, Vodanovich, & Credé, 2005).

Bodner(2009)는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의 해소를 위해 청년이 인식하고 있는 죽음과 노인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죽음을 공포와 불안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인식은 학교에서의 죽음 관련 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다. 특히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이나 동양의 불교 철학은 삶에 대한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죽음을 인생의 종말로 여기는 것이 아닌 삶의 일부분이라는 가치관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Martens et al., 2005). 둘째, 청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아동 및 청소년에서부터 이어져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노화의 과정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노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은 노인과 노화에 대해 올바르게 건전한 인식을 가져 연령주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3. 중장년의 연령주의 연구

중장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세대이다(김윤정 등, 2004). 또한 중장년은 생애주기상 노년기의 직전 단계이며, 중장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이루어지는 소통과 사회 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김화선, 최은정, 양정남, 2009).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령주의 연구는 주로 세대간 연령주의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윤정 등, 2004;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선행연구 결과 중장년의 연령주의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중장년이 청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연령주의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는 중장년이 스스로 노인과 분리된 세대로 인식하여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본다(Bodner et al., 2012). 반면 중장년의 연령주의는 청년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Cherry &

Palmore, 2008), 오히려 청년이 중장년에 비해 높은 연령주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했다(Rupp et al., 2005). 국내연구의 경우 정순돌 등(2016)은 중장년의 노인에 대한 편견은 다른 세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차별 행동은 청년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노인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을 보여 연령주의의 세부 요소에 따라 세대간 차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중장년만을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파악한 배문조(2009)는 중장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노인의 신체적 특성, 지적능력, 적응능력, 성격특성과 같은 하위 변인에서는 중장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중장년의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양스트레스(김윤정 등, 2004), 권위주의적 성향(신학진, 2013), 노인 및 노화에 대한 불안(신학진, 2012), 노인과의 동거 경험과 접촉 경험(배문조, 2009; 조명희, 2006), 연령 등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중장년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의무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중한 부담을 경험하여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김윤정 등, 2004). 또한 중장년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학진, 2013). 또한 중장년의 노인 및 노화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높은 연령주의가 나타났다(신학진, 2012). 중장년은 청년에 비해 만성질환과 신체적 질환의 유병율이 높고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노화에 대한 불안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화불안은 중장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순림, 최희정, 2013). 또한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나 접촉 경험도 중장년의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과 동거하거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배문조, 2009), 여성 주부의 경우 친정 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시부모와 동거한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2006). 이는 단순히 노인과 동거하거나 접촉하는 빈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과 접촉하면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질이나 양상에 따라서도 연령주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은 노인과 연령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구별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Bodner 등(2012)은 중장년 세대가 청년에 비해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밝혀, 중장년 세대가 노인 집단과 구별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4. 노인의 연령주의 연구

노인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내면화 하여 자신을 포함한 노인 집단에 대한 연령주의를 의미하는 자기 연령주의는 다른 연령주의에 비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연령주의의 파악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Levy, 2009). 고정관념 형성 이론에 따르면 노인의 자기 연령주의는 기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유년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며 암묵적인 형태로 노인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노인 스스로 무능하며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노인의 자기 연령주의는 노인이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질병과 차별에 대응하기 보다는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한다. 노인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더라도 노년기 질환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거나 권장되는 치료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한다(Levy & Myers, 2004). 이처럼 노인의 자기 연령주의는 노인을 정당화하여 노인의 일치성과 합리성을 높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결국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주현, 오혜인, 주경희, 2020).

Chang 등(2020)은 422개의 연령주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95.5%에서 연령주의가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주의는 노인의 수명, 삶의 질, 사회적 관계, 건강 관련 행동,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연령주의는 노인의 사망률을 높여 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주의가 노인의 사망 위험률을 높여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중국(Zhao, Dupre, Qiu, & Gu, 2017), 독일(Kotter-Gröhn, Kleinspehn-Ammerlahn, Gerstorf, & Smith, 2009), 호주

(Sargent-Cox, Anstey, & Luszcz, 2014) 등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주의는 노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터키 여성 노인의 경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Top, Eriş, & Kabalcioğlu, 2012), 한국 여성 노인의 경우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외모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 연령주의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유혜경, 이민선, 2019). 셋째, 연령주의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을 양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 노인의 경우 노인차별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쳤으며(권중돈, 손의성, 2010), 이스라엘 노인의 경우 연령주의는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Vitman, Iecovich, & Alfasi, 2014). 넷째, 연령주의는 노인의 식습관, 약물 사용,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관련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노인의 경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이들의 음주와 흡연 행동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Villiers-Tuthill, Copley, McGee, & Morgan, 2016). 마지막으로, 연령주의는 만성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과 우울, 인지기능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심각한 장애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31% 가량 적게 나타났으며(Levy, Slade, Murphy, & Gill, 2012), 호주와 이스라엘 노인의 경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건강의 기능적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Sargent-Cox, Anstey, & Luszcz, 2012; Tovel, Carmel, & Raveis, 2019). 이외에도 연령주의는 노인의 낮은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심장질환, 관절염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Jackson, Hackett, & Steptoe, 2019). 또한 연령주의는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표적으로 자살사고(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영, 김남희, 2018), 우울(전상남 & 신학진, 2011; Bai, Lai, & Guo, 2016; Jackson et al., 2019),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Levy, Zonderman, Slade, & Ferrucci, 2012; Sutin, Stephan, Carretta, & Terracciano, A, 2015). 특히 연령주의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Lee, K & Lee, H, 2019), 중국(Gu, Brown, & Qiu, 2016), 독일(Seidler & Wolff, 2017), 아일랜드(Robertson, King-Kallimanis, & Kenny,

2016)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제5절 연령주의의 영역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노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연령주의를 마주하게 된다. 연령주의는 일반 사람 개개인이 스스로 내재하는 이미지에 의해, 그리고 가족 구성원, 친인척과 같이 노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 내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연령주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 가족, 교육, 노동시장, 의료, 복지, 매스미디어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 신체 이미지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형성된다(Rocha & Terra, 2013). 신체 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가지는 느낌, 태도, 평가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 내지 문화적 가치에 의한 신체상 비교와 평가라 할 수 있다(이현주, 2008). 신체 이미지는 외모에 의한 판단 기준으로 부정적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 외모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외모차별은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사회적 풍토를 일컫는 외모지상주의(Lookism)와 관련되는데, 외모지상주의가 심할수록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 노년기는 이전 연령층과 달리 신체적 노화로 인해 흰 머리카락, 주름살 등 변화가 나타나 외모 변화가 현저한 시기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젊은층 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경우 노년기 신체변화는 주류와 다름을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어 연령주의의 주요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노인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Clarke & Korotchenko, 2011; Rocha & Terra, 2013). 하지만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약 60%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노인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Mangweth-Matzek et al., 2006). 노인의 신체 이미지는 타인의 연령주의적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인과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외모가 고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나이든 외모의 지원자 일수록 신체적, 인지적으로 고용에 덜 적합하다고 인식되어 젊은 외모의 지원자들에 비해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Kaufmann, Krings, Zebrowitz, & Sczesny, 2017). 또한 노인의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고 무능력하며 쓸모 없는 존재라고 인식되는 자기 연령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Rocha & Terra, 2013).

신체 이미지는 관습적으로 여성은 외모와 신체 이미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Peat, Peyerl, & Muehlenkamp, 2008).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주름, 흰머리, 체지방의 증가와 같은 노화의 과정이 자신의 성적 매력이나 사회적 지위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Clarke & Korotchenko, 2011). 또한 여성 노인은 사회적 관계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나이든 외모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Sabik, 2015). 이러한 이유로 노인 스스로 젊은 외모를 추구하고자 노화방지 기능의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도 노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되기에 연령주의에 해당된다(Chonody & Teater, 2016).

## 2. 가족

가족은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은 은퇴로 인해 2차 집단과의 유대관계가 감소한 노인에게 생활환경의 기본 단위로서 관계의 중심축이 된다(권중돈, 2019). 가족은 노인을 부양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노인의 부정적인 자기 관념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완충하는 기능을 한다(Nelson, 2016).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의 순기능에 주목하지만 가족 내의 연령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가족의 특성상 연령주의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다(Gordon, 2020).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노인과 가족원들간 관계 및 역할은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내 연령주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표현된다. Courts, Barba와 Tesh(2001)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 제공자들 대부분이 노인에게 대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노인이란 존재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일부 항목에서는 짐 또는 부담감의 존재와 같이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족 내 긍정적 연령주의는 노인을 귀엽고 부드럽다고 여기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잡는 형태와 같이 동정심을 바탕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연령주의 역시 노인을 아이처럼 힘이 없고 돌봐야 하는 존재로 전제하는 인식에 기반을 두어 발생한다(Palmore, 1999). 반면 가족 내 부정적 연령주의는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 경제적인 착취, 노인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가족 내에서는 노인에게 미묘하게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이나 비언어적 행동이 나타나기 쉽다. 가족 내 미묘한 차별은 노인에게 대한 걱정과 잔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우며 일상적으로 나타나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ordon, 2020). 이처럼 가족 내 연령차별은 사적인 관계에서 노인의 일상적 행동에 지속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노인 폭력과 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 3. 교육

교육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동기에서 청년기 사이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이자 노인이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정엽, 이재모, 2010).

노인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대다수의 노인 세대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의무 교육 기간에 해당되고 고등교육과 대학교육도 매우 보편화 되어 있지만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은 이에 비해 제한적인 실정이다(이윤경,



염주희, 황남희, 양찬미, 2013). 또한 60대에서 80대로 갈수록 노인교육의 참여 정도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한정란, 원영희, 박성희, 최일선, 2009). 노인이 교육에서 참여의 제약을 보이는 이유는 건강의 저하, 낮은 경제력,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노인 스스로 학습과 배움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인 연령주의도 노인교육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노인은 ‘배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혹은 ‘지금 배워도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와 같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교육에 참여하기 꺼려한다(이윤경 등, 2013). 또한 노인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젊은 세대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제도적 연령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은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노인교실,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종교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더욱이 노인교육은 주로 여가활동이나 복지정책 일환으로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육에 대한 낮은 전문성이 지적되고 있다(한정란, 박성희, 원영희, 최일선, 2011). 또한 노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상황에 맞춰 교육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이윤경 등, 2013). 이처럼 교육에서는 노인 스스로 교육에 대해 갖는 심리적인 부담이나 노인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의 어려움이 연령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 4.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연령주의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은정, 2017).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연령주의는 생물학적 연령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허락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정의된다(Carmichael, Hulme, Porcellato, Ingham, & Prashar, 2011).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 고정된 연령으로 은퇴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차별이 연령주의에 해당된다(Palmore, 1999).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보이는 연령주의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연령은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하는 노동의 종류나 노동이 이뤄지는 문화 및 지역의 조직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가령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IT 기업, 온라인 마케터,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은 중년의 나이를 평균 27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는 실리콘 밸리 연령주의 (silicon valley ageism)라는 신조어도 나타났다(Stypińska & Nikander, 2018).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는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자 국가별 분석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typińska & Nikander, 2018). 유럽에서는 2000년부터 유럽연합법에 의거하여 노년층 근로자의 보호를 법제화했으며 미국에서는 1967년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여 연령주의에 대응하였다. 국내에서도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일부 개정되면서 2008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실효성이 낮고 상당수의 기업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은정 등, 2016).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는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유형이 다르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겪게 되는 차별을 의미하며 인사 차별, 직무배치 차별, 임금 및 복지혜택의 차별, 능력개발에 따른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유경준, 황수경, 2005). 이처럼 노동시장의 연령주의는 채용, 임금, 승진, 교육, 직장생활,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서 나타난다(김동선, 모선희, 2012). 또한 지은정(2017)은 노동시장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입단계(구직 및 채용), 유지단계(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역량 평가 및 개발), 그리고 종결단계(퇴사 및 해고)로 연령주의를 조사한 바 있다. 연구결과 약 70%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의 진입단계에서 차별을 경험했고 약 60% 이상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직무역량 평가에서의 차별경험, 퇴사에 대한 걱정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는 형태에 따라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구분되거나 고용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노동시장의 직접적 차별은 연령에 기초하여 제도화된 법의 위반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차별, 부당 해고에 이에 해당한다(Furunes & Mykletun, 2010). 반면 노동시장의 간접적 차별은 표면적으로는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을 두지만 실제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우국희, 주경희, 이연순, 2012).

한편 Jin과 Baumgarther(2019)는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를 다룬 12개의 논문을 고찰하여 연령주의를 고용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고용적 측면으로의 노동시장 연령주의는 법적인 측면이 해당되며 근로자의 고용, 급여, 승진 및 훈련에 따른 차별이 해당된다. 반면 사회적 측면으로의 노동시장 연령주의는 고령 근로자의 직무성과, 직장 내 언어사용,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와 같이 직장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이 해당된다. 특히 노동시장 내의 사회적 측면으로의 연령주의는 대인관계 영역과 직장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Stypińska & Nikander, 2018). 구체적으로 나이와 관련한 농담이나 발언을 듣는 것, 고용주, 동료 또는 고객에 의해 무례하게 대우받는 것, 업무 결과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받는 것, 나이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으로의 노동시장 연령주의는 암묵적인 고정관념과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고령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국희 등, 2012).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는 고용주와 직장동료로부터 발생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시장의 진입이 시작되는 과정인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고령의 근로자 대신 젊은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 이후에도 이들을 직업훈련과 직무배치와 같은 능력개발의 기회에서 배제하거나, 승진과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며, 권고사직과 강제퇴직을 요구하기도 한다(Malinen & Johnston, 2013). 이처럼 고용주의 연령차별은 고령 근로자가 조직의 변화와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낮은 동기부여를 가질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내면에는 고령 근로자가 목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덜 유연한 방법을 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Ilişanu & Andrei, 2018). 그리고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에 비해 업무 외 가족 문제와 같은 외부 상황의 고려가 잦거나 체력의 저하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Posthuma & Campion, 2009). 게다가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직에서 남은 시간이 한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슨하고 수동적이며 낮은 동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Nelson, 2016).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오히려 젊은 근로자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Ilişanu & Andrei, 2018). 실증적으로 Furunes와 Mykletun(2010)은 고령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승진에서 제외되며, 직무교육 프로그램에도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Mercat-Bruns(2015)는 고령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역량과 능력에 상관없이 연령을 이유로 조기은퇴를 권고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의 30조항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지만, 프랑스,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유럽 내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고령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Mercat-Bruns, 2015).

또한 동료에 의해서도 연령주의는 발생한다. 노동시장 내 젊은 근로자는 고령 근로자와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근무함에도 부여되는 보상에 차이가 없거나 적을 때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일부 고령 근로자가 나이 정체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젊은 세대와 동일한 대우만을 요구할 때에 젊은 근로자가 고령 근로자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연령주의가 발생한다(Macdonald & Levy, 2016). 또한 직장 내 동료들은 일부의 고령 근로자가 업무 이외에 인생에 관한 이야기와 같이 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편하여 연령주의를 보이는 경향도 나타났다(Greenberg, Schimel, & Martens, 2002). 구체적으로 고령 근로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동료들로부터 차별적 표현과 비속어나 반말과 같은 부적절한 언어를 듣거나, 무관심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배제당한 경험을 보고한 바 있다(지은정 등, 2016).

## 5. 의료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때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된다. 최근 발현된 코로나-19는 노인의 생존 가능성이 젊은 세대에 비해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에서는 인공호흡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의 연령주의가 발생했다(Colenda et al., 2020). 또한 노인은 다른 세대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의료전문가로부터 차별을 당한다(오혜인, 주경희, 김주현, 2018). 이와 같이 의료에서의 연령주의는 제도적 수준인 의료서비스에서의 차별이나 개인적 수준인 의료전문가 및 노인 스스로에게서 표명된다(Wyman, Shiovitz-Ezra, & Bengel, 2018).

의료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연령주의는 사회구조적으로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노인은 의료 정보, 이동성, 비용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는 뇌졸중을 치료중인 65세 이상인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하도록 마련한 정책이 있으며(Theofanidis, 2015), 핀란드에서는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에게는 의료 재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AGE Platform Europe, 2016). 또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노인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동종업계의 의사와 간호사에 비해 낮은 편이며 노인을 위한 의료전문가 양성이 제도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Kane, 2002). 이러한 제한적인 의료서비스와 의료전문가의 부재는 노인에게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료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연령주의의 주요 원인이 된다(Gordon, 2020).

의료영역에서 연령주의는 의료전문가 및 노인 스스로에 의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상 의료전문가들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연령주의를 보였으며(Aronson, 2015), 간호사와 수련생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였다(Liu, While, Norman, & Ye, 2012). 한국의 경우 노인 의료전문가(오혜인 등, 2018), 종합병원 간호사(김주아, 하지연, 2019), 약사(변진옥, 조병희, 2014)에게서도 연령주의적 태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문가는 노인에 대해 과다진료 혹은 과소진료를 하거나, 환자인 노인을 소외하고 보호자와 소통을 하거나, 부자노인과 빈곤노인에게 양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혜인 등, 2018). 또한 노인은 스스로 노인성 질병의 치료가 고비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주의를 보이기도 한다. 노인은 자신을 죽음과 연결하여 생각하거나 만성화된 질환으로 인해 치료비용이 많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다른 세대와 별다른 차

이가 없다(Butler,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하는 것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 태도와 인식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연령주의에 해당한다.

## 6. 복지

복지에서의 연령주의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복지의 특성상 빈곤, 장애, 질병 등을 가진 노인을 대면하고 이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노인에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박재숙, 성희자, 2010). 이외에도 복지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개인적 특성, 기관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연령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나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경우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ang과 Chonody(2013)는 사회복지사의 연령주의 양상을 연구한 20개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보다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노인에게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보고하였다(Allan & Johnson, 2009; Tan, Hawkins, & Ryan, 2001).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지만(박재숙, 성희자, 2010; 이해원, 1999),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김미혜, 2002), 한국의 사회복지사가 일본에 비해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결과도 있다(이해원, 20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사하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긍정적 연령주의를 내포하는 경향을 보였다(Natan, Ataneli, Admenko, & Noy, 2013). 한편 Taverna 등(2014)의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전문가들이 노인에게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긍정적 연령주의를 보였지만 노인은 구강위생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인의 구강위생이 악화되어, 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

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박경옥, 2016; 정지훈, 2016) 일부 하위요인인 ‘건강하다, 불만이 없다, 명랑하다, 너그럽다.’에서는 노인에 대해 중립적인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정지훈, 2016).

## 7.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는 노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은 텔레비전, 뉴스, 영화,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해 연령주의 프레임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 받게 된다(Butler, 2006).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노인 이미지는 노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며, 노화에 대한 태도를 견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현되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광고에서 노인은 건강하지 못한 존재, 수동적, 부양과 의존이 필요한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었고(김미혜, 원영희, 1999; 양정혜, 2011; Carrigan, & Szmigin, 2000), 뉴스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오현정, 신경아, 2019; Bailey, 2010). 매스미디어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연령주의를 유발하고 고착화 한다. 또한 매스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연령주의 메시지는 암묵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Pasupathi, & Löckenhoff, 2002).

한편 일부 매스미디어에서는 노인을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연령주의를 보이기도 한다. 한경혜와 윤성은(2007)은 신노년(new elderly)의 주제를 담은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노인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자원봉사, 유급노동, 학습 등으로 활동성과 자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Loos와 Ivan(2018)은 1950년 이후의 텔레비전, 신문, 광고를 분석하여 초기 노인이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자립성이 있는 것으로 묘사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긍정적 연령주의는 결국 노인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선도적 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오현정, 신경아, 2019). 또한 매스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성공적인 노화는 노인의 성공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므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초고령 노인과 같이 그렇지 못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을 실패자로 낙인하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Katz & Calasanti, 2015). 이처럼 매스미디어에서는 부정적 연령주의와 긍정적 연령주의가 모두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제6절 연령주의 유형과 세부 구성요소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연령주의를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령주의의 유형은 크게 4가지 유형인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연령주의, 명시적/암묵적 연령주의, 긍정적/부정적 연령주의, 자기 지향적/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령주의의 유형은 큰 틀에서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연령주의로 구분되었지만 최근 연령주의의 정의가 다양해짐에 따라 연령주의의 유형도 확대되었다(Iversen,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는 단일차원으로 정의된 연구부터 많게는 11개의 구성요소로 정의된 연구까지 다양하게 보고된다(De São José & Amado, 2017). Butler(1969)의 고전적 연령주의는 세 번의 정의 수정을 거쳐 연령주의가 정서적, 행동적, 조직적 요소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1969년 Butler는 처음으로 연령주의를 편견이라는 정서적 요소의 단일차원으로 설명하였지만, 1975년에는 연령주의가 고정관념과 차별이라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보아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았다. 1980년에는 다시 연령주의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여 행동적, 조직적 요소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앞서 주장한 인지적 요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Butler의 고전적 연령주의는 구성요소를 비일관적으로 정의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De São José와 Amado(2017)는 노인의 건강 및 장기요양과 관련한 연령주의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가 인지적, 행동적, 외부 지향적, 명시적, 부정적 연령주의를 다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암묵적, 자기 지향적, 긍정적 연령주의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연령주의의 모든 유형을 동시



에 다른 연구는 부재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수준별 연령주의의 유형은 명확히 분리되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으로 연령주의의 유형을 파악하여야 한다(Ayalon & Tesch-Römer, 2018).

## 1.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연령주의

연령주의의 첫 번째 유형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연령주의로 각각의 연령주의는 편견, 고정관념, 차별의 구성요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태도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로 구분된다는 Rosenberg와 Hovland(1960)의 태도에 관한 삼원 이론(tripartite model)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연령주의를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연령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연령주의 관련 이론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Iversen, 2009). Ayalon과 그의 동료들(2019)은 연령주의와 관련한 106개의 논문들을 고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연령주의가 편견, 고정관념, 차별의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보고했다.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령주의의 정서적 요소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연령주의의 정서적 요소는 편견으로 예를 들어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거나 혐오감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가 정서적 요소에 해당된다. 둘째, 연령주의의 인지적 요소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대상과 관련한 태도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연령주의의 인지적 요소는 고정관념으로 예를 들어 노인을 현실보다 연약하고 의존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인지적 요소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연령주의의 행동적 요소는 특정 대상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나 충동을 포함한 실제 행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연령주의의 행동적 요소는 차별로 나타나는 데,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연령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행동적 요소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연령주의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구성요소는 각각 독립적이지만 상호연관성을 가진다(Solem, 2020). 가령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나타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

우가 많아 주로 노인에게 대한 신체기능, 인지기능, 성격 및 자아, 생활환경, 죽음 등의 영역에서 나타난다(지은정 등, 2016). 또한 연령주의의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행동적 요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차별과 같은 행동적 요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Solem, 2020).

## 2. 명시적/암묵적 연령주의

연령주의의 두 번째 유형은 명시적, 암묵적 연령주의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명시적 연령주의는 노인에게 대해 의도적이며 의식적인 형태로 연령주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조직, 제도, 법률, 노동시장 등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반면 암묵적 연령주의는 자동적이며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비해 노골적인 반감과 혐오로도 표현되지 않고, 연령차별 이후 경험하는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인 불편감의 정도도 낮기 때문에 명시적 연령주의에 비해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Levy & Banaji,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연령주의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암묵적 연령주의 연구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이현지, 방희정, 2012; 한경혜, 석민애, 2017; Levy & Banaji, 2002).

명시적 연령주의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여 현황의 파악, 측정, 개입이 쉬운 반면, 암묵적 연령주의는 개인과 사회에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암묵적 연령주의는 주로 내재적 연관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로 측정된다. 내재적 연관 검사는 연구의 목적이 되는 대상에게 좋음과 나쁨을 연관시켜 어떤 쪽에 자연스럽게 빠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검사로 응답 반응 시간이 빠를수록 암묵적인 태도가 내재되었음을 의미한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대한 암묵적 연령주의가 명시적 연령주의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었다. Nosek, Banaji와 Greenwald(2002)는 68,144건의 내재적 연관 검사를 시행하여 암묵적 연령주의와 명시적 연령주의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노인과 나쁨을 명시적으로 연관한 상황에서는(명시적 연령주의)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노인을 부정적으로 여겼지만, 암묵적으로 연관한 상황에서는(암묵적 연령주의) 모든 연령층에서 명시적 상황보다 더 부정적으

로 노인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명시적 연령주의가 암묵적 연령주의에 비해 연령주의를 과소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시적 연령주의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 연령주의적 태도를 의식적으로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한경혜, 석민애, 2017).

명시적 연령주의와 암묵적 연령주의는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이현지, 방희정,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명시적 연령주의와 암묵적 연령주의는 서로 상관이 낮게 나타나며 검사도구, 연령, 성별 등의 변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명시적 연령주의와 암묵적 연령주의의 상관은  $r=0.24$ (Hofmann, Gawronski, Gschwendner, Le, & Schmitt, 2005),  $r=0.23$ (Nosek et al., 2002),  $r=0.21$ (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r=0.01$ (이현지, 방희정, 2012) 등 낮은 상관을 보고했다. 또한 연령별로 노인에 대한 암묵적 연령주의와 명시적 연령주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아동(한경혜, 석민애, 2017), 대학생과 노인(이현지, 방희정, 2012), 8~71세 간(Nosek et al., 2002) 연령에 따라 명시적 연령주의와 암묵적 연령주의 간 차이가 있었다.

### 3. 긍정적/부정적 연령주의

연령주의의 세 번째 유형은 긍정적, 부정적 연령주의로 각각의 연령주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연령주의는 연령주의의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Palmore(1999)가 연령주의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구분함으로써 긍정적 연령주의도 연령주의 구성요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Palmore(1999)는 긍정적 연령주의와 부정적 연령주의를 연령주의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구성요소와 함께 설명하면서 긍정적 연령주의와 부정적 연령주의는 정서적 측면인 편견, 인지적 측면인 8개의 고정관념, 행동적 측면인 5개의 차별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긍정적 연령주의의 정서적 측면은 '노년기는 황금기이다.'처럼 노인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편견을 의미한다. 긍정적 연령주의의 인지적 측면은 노인을 친절, 지혜, 믿을 수 있음, 부유, 정치적 권력, 자유, 불로, 행복한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해당된다. 긍정적 연령주의의 행동

적 측면은 노인이 세금감면과 같은 경제적 영역,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 가족의 가구주로서의 권한, 주거와 의료보호 영역에서 긍정적인 차별적 혜택을 받는다고 보았다. 반면 부정적 연령주의의 정서적 측면인 편견은 ‘노년기는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이다.’처럼 노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편견을 의미한다. 부정적 연령주의의 인지적 측면은 노인을 질병, 무력, 추함, 정신적 능력감퇴, 정신질환, 쓸모 없음, 고독, 빈곤, 암울의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해당된다. 부정적 연령주의의 행동적 측면은 채용, 승진, 퇴직 등 고용의 영역에서의 차별, 정부기관 서비스 이용의 제한, 가족 내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희생, 다른 세대와 분리된 거주, 의료보호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차별 등이 해당된다.

긍정적 연령주의는 노인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연령주의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 장수, 건강 관련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evy & Myers, 2004; Levy, Slade, Kunkel, & Kasl, 2002). 또한 노인의 기억력 향상과 인지적 과업의 수행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다(Hess, Hinson, Statham, 2004; Swift, Abrams, & Marques, 2013). 한편 긍정적 연령주의가 전적으로 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도 하였다. 특히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내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인 연령주의에 기반을 두어 나타날 수 있다(Chonody, 2016). 대표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어(elderspeak)는 긍정적 연령주의가 실제 노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노인을 대상으로 아기에게 말하듯 느린 속도, 과장된 억양과 표현, 쉬운 어휘의 사용을 의미하는 노인어는 노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긍정적 연령주의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이 젊은 세대로부터 노인어를 듣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emper, Vandeputte, Rice, Cheung, & Gubarchuk, 1995). 또한 제도적 측면과 결합된 긍정적 연령주의는 청년 세대에게 노인이 특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오히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주현, 2015).

#### 4. 자기 지향적/외부 지향적 연령주의

연령주의의 네 번째 유형은 자기 지향적,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로 각각의 연령주의는 자기 지향적 요소와 외부 지향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연령주의는 발현되는 방향에 따라 자기 지향적 연령주의(자기 연령주의)와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로 구분된다. 자기 연령주의는 자신 혹은 동일한 세대에 대한 연령주의를 뜻하며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는 타인 혹은 다른 세대를 향한 연령주의를 의미한다(Bodner, Shrira, Bergman, Cohen-Fridel, & Grossman, 2015). 자기 연령주의는 주로 노인에게 나타나는 반면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는 젊은 세대에서 노인을 향해 발생한다(Levy, 2009). 또한 자기 연령주의와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는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기 연령주의는 중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과는 뚜렷한 연관이 없어 주로 미시적 수준인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는 미시적 수준에서는 노화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중시적 수준에서는 다른 세대와의 접촉 정도가 적을수록, 거시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가용성이 적으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Marques et al.,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 연구가 자기 연령주의 연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Marques 등(2020)이 199개의 연령주의 연구를 조사한 결과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를 연구한 문헌은 179개로 약 90%를 차지하였고, 자기 연령주의를 연구한 문헌은 11개였으며, 두 가지 모두 연구한 문헌은 9개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령주의는 노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연구되어야 한다(De São José & Amado, 2017). 자기 연령주의는 고정관념 형성 이론에 따라 장기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내재화되면서 나타나거나(Levy, 2009), 노인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연령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수 없게 될 때 발생할 수 있고(Bodner et al., 2015), 노인의 심혈관 질환을 높이거나(Levy, 2009), 사망률을 높여(Wolff, Schüz, Ziegelmann, Warner, & Wurm, 2017) 노인의 심리적인 안녕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제3장 연령주의 척도

본 연구는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주의 척도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연령주의 및 연령주의 관련 주요 척도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이미 1950년대부터 연령주의, 그리고 연령주의에 관련된 개념 등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연령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고, 기존 연령주의 척도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 관련된 척도를 폭넓게 검토하여 기존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제1절 척도개발 사전 조사

Butler(1969)는 연령주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노인 에 대한 태도, 편견, 이미지, 그리고 노화에 대한 인식 등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Tuckman, Lorge, 1953; Calnan, Hanron, 1970; Miller, Dodder, 1980; 한정란, 2000; 김옥, 2003). 그러나 연령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기존 연령주의 척도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어왔다.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Fraboni Scale of Ageism(Fraboni et al., 1990)이나 Ageism Survey(Palmore, 2001) 외에는 많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와 관련된 척도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연령주의 및 연령주의 관련 주요 척도는 다음과 같다.

<표 3-1> 연령주의 및 관련 주요 척도

개발자	척도
1. Tuckman & Lorge(1953)	- Attitude Toward Old People Questionnaire
2. Kogan(1961)	-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
3. Palmore(1977)	- Facts on Aging Quiz

개발자	척도
4. Sanders et al.(1984)	- Semantic Differential Attitude Scale
5. Fraboni et al.(1990)	- Fraboni Scale of Ageism
6. Palmore(2001)	- Ageism Survey
7. Cherry & Palmore(2008)	-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8. European Survey(2008)	- Ageism Module
9. Furnes & Mykletun(2010)	-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
10. 김주현(2012)	- 연령주의 척도
11. North & Fiske(2013)	- Prescriptive Intergenerational-Tension Ageism Scale

### 1. Attitude Toward Old People Questionnaire (Tuckman, Lorge, 1953)

Tuckman과 Lorge(1953)은 노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 등을 측정하고자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보수적 태도, 활동 및 관심사, 재정, 신체적 능력, 가족, 성격, 미래에 대한 태도, 삶의 전성기, 불안정성, 정신적 기능저하, 성생활, 참견, 청결의 13개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137개이다. 문항은 ‘예’, ‘아니오’의 응답 범위로 구성된 이분형 문항이다. 본 척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사실을 지적한 문항도 있어 사실상 태도를 측정한 척도라기 보다는 의견조사 성격이다(윤진, 1988).

보수적 태도에 대한 문항은 ‘노인은 보수적이다, 노인은 변화나 간섭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동 및 관심사에 관한 문항은 ‘노인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노인은 쓸모 없는 물건을 모은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에 대한 문항은 ‘노인은 비생산적이다, 노인은 돈 문제에 인색하다’ 등의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능력에 관한 문항은 신체 조정능력, 향상성, 소화력, 불편함, 죽음, 감각, 목소리, 피로, 질병 및 사고의 9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에 관한 문항은 ‘노인은 자식이 자기를 부양하는 것을 기대한다, 노인은 자녀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기대한

다’ 등의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에 대한 문항은 ‘노인은 이기적이다, 노인은 불평이 많다’ 등의 1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미래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은 ‘노인은 미래를 걱정한다, 노인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전성기에 대한 문항은 ‘노인은 젊어 지고 싶어한다, 노인은 현재 가장 행복한 시기를 겪고 있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정성에 관한 문항은 ‘노인은 사소한 일도 걱정한다, 노인은 무력하다’ 등의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신적 기능저하에 대한 문항은 ‘노인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 등의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생활에 관한 문항은 ‘노인은 결혼해서는 안된다, 노인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견에 대한 문항은 ‘노인은 남의 일에 간섭한다, 노인은 성가시다’ 등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청결에 관한 문항은 ‘노인은 씻지 않는다, 노인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Tuckman, Lorge, 1953)**

범주	내용
1. 보수적 태도	- 보수적이다, 변화를 싫어한다 등
2. 활동 및 관심사	- 운동을 안 한다, 쓸모 없는 물건을 모은다 등
3. 재정	- 비생산적이다, 돈 문제에 인색하다 등
4. 신체적 능력	- 신체조정능력, 항상성, 피로 및 질병 등
5. 가족	- 자신을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기대한다 등
6. 성격	- 이기적이다, 불평이 많다 등
7. 미래에 대한 태도	- 미래를 걱정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등
8. 삶의 전성기	- 젊어 지고 싶어한다, 현재 가장 행복하다 등
9. 불안정성	- 사소한 일도 걱정한다, 무력하다 등
10. 정신적 기능저하	- 같은 말을 반복한다 등
11. 성생활	-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 등
12. 참견	- 남의 일에 간섭한다, 성가시다 등
13. 청결	- 씻지 않는다, 외모에 신경을 안 쓴다 등



## 2.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 (Kogan, 1961)

Kogan(1961)은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기존 인종주의 고정 관념을 측정하는 척도 문항을 수정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노인의 주거환경, 성격, 외모, 세대 간 관계 등에 대하여 17개의 긍정적 및 부정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문항 수는 34개이다. 문항의 응답 범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척도의 구성요소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본 척도는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단일차원으로 취급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척도의 각 문항별 상관계수가 .09에서 .70까지 그 범위가 넓게 퍼져 있다는 결과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윤진, 1988). 척도의 세부 내용 및 문항 구성은 <표 3-3>과 같다.

<표 3-3>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Kogan, 1961)

번호	내용
1	- 노인은 (또래/젊은 세대)와 함께 살면 더 좋을 것이다.
2	- 노인은 우리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다르지 않아서 이해하기 쉽다).
3	- 노인은 (고지식해서 변화할 수 없다/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4	- 노인은 (일을 그만두려 한다/가능한 한 일을 계속하려 한다).
5	- 노인은 집을 (지저분하게 방치한다/깨끗하게 유지한다).
6	-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다/지혜로워진다).
7	- 노인은 사업과 정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더 힘을 얻어야 한다).
8	- 노인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함께 지내기에 편하다).
9	- 노인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지루하다/흥미롭다).
10	- 노인은 남의 일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필요할 때만 조언을 한다).
11	- 노인은 (단점을 없애야 한다/다른 사람들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
12	- 좋은 지역사회를 위해 노인들이 (살지 않는 것이 좋다/사는 것이 좋다).
13	-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서로 (비슷비슷하다/다르다).
14	- 노인은 (외모를 좀 더 가꿀 필요가 있다/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
15	- 노인은 (예민하고 불쾌한/활기차고 유머러스한) 존재이다.
16	- 노인은 젊은 세대를 탐탁치 못하게 (여긴다/여기지 않는다).
17	- 노인은 (관심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관심이 많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 3. Facts on Aging Quiz (Palmore, 1977)

Palmore(1977)는 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노화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노화사실인지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노화에 대한 사실적 정보로 이루어진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25개이다. 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적고 차별적인 경향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령주의는 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Cherry, Palmore, 2008).

노화사실인지척도는 노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기존 척도와 차별성이 있으며 비교적 간단하게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노화사실인지척도는 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지,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Kite, Wagner, 2004). 또한 본 척도는 노화나 노인에 대한 지식만을 다루기 때문에 연령주의 일부만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은정, 2019).

**<표 3-4> 노화사실인지척도(Palmore, 1977)**

번호	내용
1	- 대부분의 노인은 노망이 들었다.
2	- 나이가 들수록 모든 오감의 기능이 감퇴한다.
3	- 대부분의 노인은 성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성기능이 부족하다.
4	-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이 줄어든다.
5	- 대부분의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6	-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이 감소한다.
7	- 적어도 10%의 노인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8	- 노인 운전자는 65세 미만의 운전자보다 사고 확률이 낮다.
9	- 대부분의 노인은 젊은 사람들만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
10	- 80% 정도의 노인은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 할만큼 건강하다.
11	- 대부분의 노인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할 수 없다.

번호	내용
12	-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편이다.
13	-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14	- 노인의 반응속도는 젊은 사람들보다 느린 편이다.
15	- 대부분의 노인은 서로 비슷하다.
16	- 대부분의 노인은 거의 지루하지 않다.
17	- 대부분의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다.
18	- 노인 노동자는 젊은 노동자보다 사고 확률이 낮다.
19	- 전체 인구의 15%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20	-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인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21	- 대부분의 노인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다.
22	- 대부분의 노인은 일하고 있다(가사활동과 자원봉사활동 포함).
23	-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심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24	- 대부분의 노인은 드물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
25	- 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2000년에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 4. Semantic Differential Attitude Scale (Sanders et al., 1984)

Sanders et al.(1984)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의미분화척도(Osgood et al., 1957)를 수정 및 보완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척도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역문항을 삽입하였다. 총 문항 수는 20개이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흔히 사람들이 보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구분된다(Fishbein, Ajzen, 1975). 의미분화척도는 긍정적인 기술과 부정적인 기술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 위에서 대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Kite, Wagner, 2004). 그러나 문항 중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은 하나의 관점일

뿐만, 진보주의는 항상 긍정적이고 보수주의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의미분화척도는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3-5> 의미분화척도(Sanders et al., 1984)

긍정적 기술		부정적 기술
현명한	↔	어리석은
친절한	↔	불친절한
*무지한	↔	유식한
신뢰할 수 있는	↔	신뢰할 수 없는
*이기적	↔	이타적
*소극적	↔	활동적
단정한	↔	난잡한
친근한	↔	쌀쌀맞은
*지루한	↔	재미있는
생산적	↔	비생산적
*아픈	↔	건강한
좋은	↔	나쁜
융통성 있는	↔	고지식한
*의존적	↔	독립적
진보적	↔	보수적
매력적인	↔	매력 없는
*편협한	↔	관대한
낙관적	↔	비관적
불평하지 않는	↔	투덜거리는

\* 역문항을 의미함.

## 5. Fraboni Scale of Ageism (Fraboni et al., 1990)

Fraboni et al.(1990)은 기존 척도들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오해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만 측정한다고 비판하면서, 연령주의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인을 향한 차별적인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향된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Allport et al.(1954)이 제시한 편견의 다섯 가지 수준 중 적대적인 말, 차별, 회피의 세 수준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적대적인 말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정보, 미신에 의한 적의 및 반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은 노인 고용이나 지역 사회 시설 이용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을 말한다. 회피는 노인과 사회적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총 문항 수는 29개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적대적인 말에 대한 문항은 ‘노인은 돈에 인색하며 소유물에 집착한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짜증난다, 다른 사람들보다 불평불만이 많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별에 관한 문항은 ‘노인은 운동시설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노인 비율이 높은 회사는 일하기 즐거운 편이다, 노인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피의 대한 문항은 ‘나는 가끔 노인의 시선을 외면한다, 노인이 나와 대화하려 하는 것이 싫다, 노인 모임에 초대받는다면 가지 않을 것 같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표 3-6> 연령주의 척도(Fraboni et al., 1990)**

범주	내용
1. 적대적인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은 돈에 인색하며 소유물에 집착한다.</li> <li>- 노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짜증난다.</li> <li>- 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만이 많다.</li> </ul>
2.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은 그들만을 위한 운동시설을 사용해야 한다.</li> <li>- 노인이 많은 회사는 일하기 즐거운 편이다.</li> <li>- 노인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격려해야 한다.</li> </ul>
3.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가끔 노인의 시선을 외면한다.</li> <li>- 노인이 나와 대화하려 하는 것이 싫다.</li> <li>- 노인 모임에 초대받는다면 가지 않을 것 같다.</li> </ul>

### 6. Ageism Survey (Palmore, 2001)

Palmore(2001)는 연령주의가 고정관념 및 태도,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여 이를 측정하고자 척도를 개발하였다. 원래 연령주의에는 긍정적인 형태와 부정적인 형태가 공존하지만, 본 척도에서는 연령주의를 간단히 파악하기 위해 부정적인 연령주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20개이다. 문항의 응답 범위는 ‘경험한 적이 없다’, ‘한 번 있다’, ‘두 번 이상’ 이다. 연령주의 척도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이 경험한 편견과 차별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Cherry, Palmore, 2008). 그러나 척도의 몇몇 문항은 서구권의 문화적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동구권의 연령주의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표 3-7> 연령주의 척도(Palmore, 2001)

번호	내용
1	- 나를 희화화하는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다.
2	-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긴 생일 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다.
3	- 무시를 당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다.
4	- 모욕적인 명칭으로 불려본 적이 있다.
5	- 나를 알아보거나 깔보는 투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6	- 주택을 임대하려 할 때 거절 당한 적이 있다.
7	-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8	- 리더의 자리를 거부된 적이 있다.
9	- 매력적이지 않다고 거절 당한 적이 있다.
10	- 존중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1	-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에게 무시 당한 적이 있다.
12	-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질병이 노화 때문이라고 한 적이 있다.
13	- 치료 거부 당한 적이 있다.

번호	내용
14	- 취업 거부 당한 적이 있다.
15	- 승진 거부 당한 적이 있다.
16	- 내가 말이 잘 안 들릴 것이라 생각된 적이 있다.
17	- 내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 적이 있다.
18	- “너는 그러기에 너무 늙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9	- 집이 파손된 적이 있다.
20	- 범죄로 인해 피해 받은 적이 있다.

### 7.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Cherry, Palmore, 2008)

Cherry, Palmore(2008)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 연령주의 적 행동 빈도와 유형을 측정하고자 노인에 대한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적인 연령주의 형태만 측정하였던 연령주의 척도(Palmore, 2001) 문항 일부에 긍정적인 연령주의 형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본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더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고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해 연령주의 척도라는 표현 대신 ‘노인에 대한 평가 척도’라고 명명하였다. 노인에 대한 평가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 범위는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이다. 연령주의는 광의적으로 개인 차원의 차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차별, 인지적 차원의 고정관념과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 척도는 개인 차원의 차별만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표 3-8> 노인에 대한 평가 척도(Cherry, Palmore, 2008)

번호	내용
1	- 노인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기다려준 적이 있다.
2	- 노인과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3	-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외모를 칭찬한다.
4	- 노인이기때문에 조언을 물어본 적이 있다.

번호	내용
5	- 노인의 나이를 알았을 때, “늙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
6	- 노인에게 말을 할 때 소리를 크게 하거나 천천히 얘기한다.
7	- 느린 운전자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노인일거야” 라고 생각한다.
8	- 노인이기 때문에 길 건너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
9	- 나이에 대한 농담이 담긴 생일카드를 노인에게 보낸 적이 있다.
10	- 노인에게 나이에 대한 농담을 한다.
11	- 노인은 까다롭기 때문에 그들을 피한 적이 있다.
12	- 노인이 병에 걸렸을 때,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얘기한다.
13	- 노인과 대화할 때 간단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14	- 노인이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이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15	- 노인을 “young lady”, “young man”이라고 부른다.
16	- 노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한 적이 있다.
17	- 노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투표한 적이 있다.
18	- 노인에게 “당신은 그러기에 너무 늙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19	- 노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한 적이 있다.
20	- 노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다.

### 8. Ageism Module (European Social Survey, 2008)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연령차별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유럽 28개국을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연령 범주화 및 정체성, 고정관념과 편견, 인지된 지위 및 위협, 연령주의 경험, 세대 간 교류와 유사성의 5개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52개이다.

기존 연령주의 척도들과 달리 본 척도에서는 인지된 지위 및 위협, 세대 간 교류 및 유사성이 구성요소에 포함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된 지위 및 위협 요소가 포함된 것은 노인이 건강보호체계나 연금, 할인, 수당 등과 같은 혜택을 받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Riek et al., 2006).



또한 사회적 지위가 연령에 의해 결정되며(Garstka et al., 2004), 연령에 따른 지위 및 위협에 대한 인식은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서 편견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Euro Barometer, 2011). 둘째, 세대 간 교류 및 유사성이 구성요소에 포함된 것은 사람들은 같은 집단에 속했다고 인식하거나, 집단이 다르더라도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때 편견이 줄어들기 때문이다(Gaertner, Dovidio, 2000). 따라서 다른 집단과의 긍정적 접촉 경험은 그 집단과 긍정적인 관계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Pettigrew, 1998).

연령 범주화 및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몇 살부터 늙었다고 생각하는가?, 몇 살까지 젊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내용은 ‘70세 이상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된 지위 및 위협에 대한 내용은 ‘70세 이상이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건강서비스의 부담이 되는가?’ 등의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주의 경험에 관한 내용은 ‘연령으로 인해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연령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대 간 교류와 유사성에 대한 내용은 ‘가족 이외에 70세 이상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20대와 70대 이상을 어떻게 보는가?’ 등의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표 3-9> 연령주의 척도(European Social Survey, 2008)**

범주	내용
1. 연령 범주화 및 정체성	- 몇 살부터 늙었다고 생각하는가? - 몇 살까지 젊다고 생각하는가?
2. 고정관념과 편견	- 70세 이상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70세 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인지된 지위 및 위협	- 70세 이상이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 70대 이상은 건강서비스의 부담이 되는가?
4. 연령주의 경험	- 연령으로 인해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가? - 연령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세대 간 교류와 유사성	- 가족 이외에 70세 이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 나는 20대와 70대 이상을 어떻게 보는가?

### 9.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 (Furunes, Mykletun, 2010)

Furunes, Mykletun(2010)은 연령차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노동시장임을 주목하여 직장에서의 차별적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직장생활, 고용유지, 퇴직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Taylor & Walker, 1998; Taylor & Urwin, 2001; Urwin, 2006), 본 척도는 이러한 과정동안 발생하는 연령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승진, 훈련, 발전, 평가, 임금, 변화과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3-10> 연령차별 척도(Furunes, Mykletun, 2010)

번호	내용
1	- 고령근로자는 승진 또는 내부 채용에서 제외된다.
2	- 고령근로자는 직장 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다.
3	- 새로운 근무나 작업방식을 도입할 때 젊은 근로자가 선호된다.
4	- 고령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보다 개발 평가에 덜 참여한다.
5	- 고령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 기회가 적다.
6	- 고령근로자는 변화과정에 적응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 10. 연령주의 척도 (김주현, 2012)

김주현(2012)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고자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존에 개발되었던 연령주의에 관한 측정도구들을 평가한 후, 연령주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외모 변화, 노화 불안, 차별적 행동, 부정적인 고정관념, 기피, 기피의 극한 반응의 7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21개이다. 문항의 응답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내용은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의

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모 변화에 관한 내용은 ‘나는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늙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화 불안에 대한 내용은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걱정이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차별적 행동에 관한 내용은 ‘노인에게 나이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등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은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짜증난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피에 관한 내용은 ‘나는 노인 모임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노인에 대한 기피의 극한 반응에 대한 내용은 ‘노인은 별도로 구분되는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게 좋다, 주거공간이 따로 있는 게 좋다’의 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연령주의 척도(김주현, 2012)**

범주	내용
1.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이가 들었을 때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
2. 외모 변화	- 나는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 나이가 들었을 때 늙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3. 노화 불안	- 나이가 들었을 때 친구들이 세상을 떠날까 봐 두렵다. -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걱정이다.
4. 차별적 행동	- “나이가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고 말한 적이 있다. -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 고 말한 적이 있다.
5. 부정적인 고정관념	-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6. 기피	-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 노인이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7. 기피의 극한 반응	- 노인은 별도로 구분되는 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 노인의 주거공간은 따로 있는 것이 좋다.

## 11. Prescriptive Intergenerational-Tension Ageism Scale (North, Fiske, 2013)

North, Fiske(2013)는 기존 연령주의 척도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만을 묘사한 것을 지적하며, 규범적 믿음에 초점을 맞춘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주의 발생 원인은 노인이 가진 재원을 후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불공평하게 소비하며,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North, Fiske, 2012; 2013). 특히, 자원이 희소할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orth, Fiske, 2016). 따라서 본 척도는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척도는 소비(Consumption), 연속(Succession), 정체성(Identity)의 3개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20개이다.

소비에 대한 내용은 ‘노인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의사는 노인을 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등의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에 관한 내용은 ‘젊은 사람이 노인보다 더 생산적이다, 노인은 젊은 세대를 위해 언제 퇴직해야 될지 모른다’ 등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노인은 페이스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연령주의 척도(North, Fiske, 2013)**

범주	내용
1. 소비	- 노인은 가족들에게 종종 너무 큰 부담이 된다. - 의사는 노인을 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2. 연속	- 젊은 사람이 노인보다 더 생산적이다. - 노인은 젊은 세대를 위해 언제 퇴직해야 할지 모른다.
3. 정체성	- 노인은 페이스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은 젊은 사람이 자주 가는 곳에 가면 안 된다.

## 제2절 기존 척도의 한계

연령주의 및 연령주의 관련 기존의 주요 척도를 검토한 결과, 기존 척도의 한계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척도는 문항의 수가 너무 많거나 문항 내용이 복잡하다. 초기 연령주의 척도는 문항 수가 너무 많고 그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조사 대상자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기존 척도는 연령주의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주로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 문제만을 다루거나 부정적인 연령주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셋째, 척도의 일부 문항들은 서구의 문화적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거의 모든 연령주의 척도가 서구권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척도를 간소화하고, 연령주의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아셈 회원국 전반에 적용가능한 차별화 된 예비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 제4장 아셈 회원국의 특성과 연령주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차별적 관행 등과 같은 연령주의 현상은 전 세계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Butler, 1980). 현대 사회에서는 젊음을 긍정적인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과 동일시하지만,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부족한 상황이다(McConatha et al., 1999). 이렇듯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아셈 회원국 내에 만연해 있지만, 각 회원국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라 연령주의는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령주의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양보다 동양이 노화 및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반면(Löckenhoff et al., 2009), 일부에서는 개인주의와 같은 서구화가 동구권의 전통적인 노인공경 사상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E. B. Palmore et al., 2016). 따라서 비교문화연구는 연령주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ingelis, 2000).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에는 상당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본 장에서는 각 지역 및 국가 별로 고유의 특성과 연령주의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셈 회원국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5개국씩 국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령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거나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접근성의 용이성 측면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기 위해 유럽의 경우 서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동유럽에서 폴란드를, 그리고 남부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동아시아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 제1절 유럽 회원국의 연령주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WHO는 2050년까지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2%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유럽은 34%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World Health Assembly, 2016).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연령주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도 유럽사회조사에 따르면, 유럽 28개국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로 나타나, 성별(24%)과 인종(16%)으로 인한 차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차별은 타인에게 나쁘게 대우받거나, 모욕당하거나, 학대 받는 것과 같은 명백한 형태보다, 존중의 결여, 무시 등과 같은 미묘한 형태로 경험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Abrams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연령주의가 3억 명 이상의 유럽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노동시장 내 연령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나아가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각종 의료적 및 사회적 정책의 연령 상한 기준을 늘리고 있어, 다른 영역에서도 연령주의 현상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다(AGE Platform Europe, 2016). 이에 따라 유럽 주요 회원국의 특성과 연령주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국

영국 인구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0년마다 약 1년씩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다. 영국은 1976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40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영국의 노인인구는 2026년에는 20%, 2046년에는 2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영국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영국 정치권력의 균형도 바뀌고 있다. 2010년 총선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2%가 투표에 무조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55세 이상 인구는 69%가 투표를 무조건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고령 인구가 선거에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NS, 2008). 나아가 건강,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금 제도와 같은 노인복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다수의 인구가 생산 가능했을 때는 영국이 추가적인 사회적 지출을 부담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현재 젊은 세대는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와 같은 자신을 위한 지출 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보험 제도의 확장에 따른 사회적 지출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다.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로 자

신들의 노후를 위해 가정에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늘어난 고령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영국은 현재 사회문화적으로 조정 및 적응해 나가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인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노인은 무능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고정 관념은 쇠퇴되고 있으며,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에 의한 지출은 약 910억 파운드 규모로 추정 되어(ONS, 2008), 노년층은 충분한 수입과 여가시간이 있는 소비시장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럽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와 노동시장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연령주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의료 영역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뇌졸중을 겪는 노인 환자가 응당 제공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환자의 나이가 치료의 질과 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d et al., 2007). 또한, 영국 국민건강서비스에서는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의 대상을 65세 미만 여성들에게만 제공하여 진료 제공에서의 연령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Rudd et al., 2007). 특히, 아직까지도 영국에서는 예견되지 않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망의 기준을 50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65세 이후의 인간의 삶이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서의 삶에 비해 가치가 덜하다는 것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다(AGE Platform Europe, 2016).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져오는데, 영국 총리는 '코로나 19' 사태의 대응방안으로 70세 이상의 노인들만 4개월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연령층은 평상시처럼 생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Sparrow, 2020).

영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직장 내 연령차별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Macnicol, 2006). 1983년 남성 노인의 71.5%가 경제적으로 활동했지만, 1995년에는 경제 참여율이 62.4%로 떨어졌다(Arrowsmith & McGoldrick, 1996). 반면, 여성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38.7%에서 2000년에는 42.6%로 증가했다(Arrowsmith & McGoldrick, 1996). 영국여성 노인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직은 영국 남성과 여성 노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영국 경제의 팽창 및 수축기에 따라 노동 수요 또한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영국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그에



따라 변동하였다(Walker, 1987). 1960년에서 1995년 사이 영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남성의 경우 4년, 여성의 경우 3년 감소하였다(Auer & Fortuny, 2000). 경제 불황기에 고령 근로자는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하게 노동시장 이탈을 경험하였다(Leppel & Clain, 1995). 1980년대 초와 1990년대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고령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따라서 조기 퇴직을 권유하여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 방안이라고 여겨졌다(Taylor & Walker, 1998; Walker, 1987). 이와 같이 영국은 현재 긍정적 및 부정적 연령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료와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연령주의 문제는 영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알 수 있다.

## 2. 프랑스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관한 주요한 사회적 및 정치적 논의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 인구 문제는 현재에도 주요 이슈이다. 200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30만 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252만 명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각각 16.2%와 18.8%를 차지하였다(Blanpain & Buisson, 2016). 프랑스는 오랜 시간동안 노인 및 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온 만큼 문화적 및 인종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잘 반영되어 있으며 연령주의 문제 또한 다른 유럽 회원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나 연령주의에 관한 용어들이 최근에 들어와서야 사용되기 시작했다(Caradec et al., 2009). 미국은 이미 1960년대에 연령이 차별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1990년에 들어서야 이와 같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Macnicol,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주요 5대 일간지에서 연령주의를 다룬 기사는 1998년 4개에서 2006년에는 45개로 점차 증가하였다(Caradec et al., 2009).

프랑스에서 노인 집단은 사회적으로 크게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받는 계층이 아니지만, 연령에 의한 차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연령과 관련된 차별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연령이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 또한 많다(Son, 2018). 프랑

스의 연령주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연령주의의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견 혹은 고정관념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 것이 프랑스 연령주의의 주요 특징이다.

아직까지 프랑스의 연령주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문제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의 50대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41.7%로 유럽 선진국 중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직장에서의 관리자들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고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향이 있다(Gaullier-Bougassas, 2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프랑스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퇴직사유 중 약 60% 이상이 조기퇴직 때문이었다. 또한, Marbot(2005)은 퇴직한 50대 이상 인구의 재취업률이 35세 미만 인구보다 약 6배 낮다고 보고하였다. Guillemard(2003)는 직장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여 프랑스 노동시장은 연령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프랑스에서 연령과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8세 미만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시키고, 16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시간을 제약하는 등 사회제도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나 프랑스 법은 그동안 성별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지만, 연령차별과 관련해서는 2001년 노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Mercat-Bruns, 2002). 노동법에 따르면, 출신, 성별, 품행, 성 정체성, 연령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연령은 2001년에 비로소 새롭게 도입된 차별사유이다(안주엽, 2007). 그러나 노동법에는 연령에 기초한 대우의 차이가 합법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및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직업훈련 및 고용기간에 근거하여 채용에서의 연령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렇듯 연령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도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3. 독일

독일은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1.5%로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8%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Bundestag, 2018). 독일은 19세기 말 보편적 건강보험과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첫 번째 국가로써(Cockerham, 1997), 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노인이 만성질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고령 은퇴자를 위한 보조금 제도가 독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국가적 프로그램들은 생산가능한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지속 가능하지만, 독일의 인구 추세를 감안하면 독일이 노년층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독일은 유럽의 선진국 중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국가 중 하나로(Cockerham, 1997),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수의 노인이 노령혜택을 받고 있으며,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렇듯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가중됨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매스미디어는 노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독일의 매스미디어에서는 노년층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다. 1995년 독일의 인기 주간지인 ‘Die Woche’에서는 “노인과의 전쟁”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으며, 또 다른 주간지인 ‘Focus’에서는 “늙은이가 어떻게 젊은이의 미래를 훔치는가”라는 제목으로 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판한 사례도 있다(Thimm et al., 1998). 이러한 기사들은 단순히 특정 언론만의 의견이 아닌, 한정된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45세 이후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Frerichs & Naegele, 1998). Büsch et al(2009)은 독일의 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독일 고령 구직자의 장기 실업률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나이가 많으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Bogai & Schroeder, 1994). 더욱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호봉제라는 임금 시스템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부담이 되어 고용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나아가 독일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오직 소수의 근로자만이 은퇴 연령인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1984년부터 1994년의 10년동안 60세 이상 남성의 고용률은 약 6% 하락하여 1994년에는 고용률이 33.4%에 그쳤다(Greiner et al., 1995). 이와 같은 경향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1994년 기준 60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12.0%에 불과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 해소는 독일 정부의 시급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 4. 폴란드

폴란드 인구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인구와 비교하여 젊은 편에 속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며 동유럽 국가 중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7년 기준 폴란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이며(OECD, 2017), 폴란드의 노인인구 변화를 예측한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 폴란드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유럽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Wojtyniak et al., 2012). 이렇듯 폴란드는 현재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유럽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연령주의나 연령차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Dalen, 2012; Stypińska, 2014; Turek & Perek-Bialas, 2013).

연령주의에 대한 소극적인 관심과는 달리, 폴란드에서의 연령차별은 다른 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흔한 현상이다(Vidovi, 2005).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의 노동시장은 유럽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크며 중부 및 동유럽에서는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자의 고용률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14년 폴란드 5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은 각각 44%와 60.3%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 평균인 54.3%와 67.1%에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폴란드 평균 퇴직 연령의 경우 여성은 59.5세, 남성은 62.2세로 유럽 평균인 61.8세와 62.9세에 비해서도 낮다(Turek & Henkens, 2020). 폴란드 노동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노년층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이 저평가된다는 점이다(Perek-Białas et al., 2010).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고령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이 부재한 상황으로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실업기간 이후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어려워 장기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Szukalski, 2006). 폴란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 이상이 직원의 연령과 관련하여 특별한 선호도를 갖고 있으며, 고령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다소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Górniak, 2010). 즉, 폴란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고령이라는 점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Perek-Białas et al., 2010).

##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노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 국가이다. 2014년 유럽 28개국의 평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9%였는데, 2015년 이탈리아 인구의 2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OECD, 2017). 즉, 이탈리아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베이비 붐 시대 이후,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80년대 초에는 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2000년에는 1.2명으로 감소하였다. 향후 출산율이 소폭 상승되리라 예상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된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인구 구조는 이탈리아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20년 내에 베이비 붐 세대는 정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인구가 젊은 세대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명시적인 연령 차별에는 고령 근로자를 직업교육에서 제외시키거나 구인 광고에 연령 제한을 포함하는 것 등이 있다.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

는 것과 같은 암시적인 연령차별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탈리아의 5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고용률은 2005년 기준 31.4%로 유럽의 평균보다 약 10% 낮게 나타났다. 이탈리아 노년층 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20.8%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노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ISTAT, 2006).

이탈리아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문제보다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중점을 두고 있다. 2006년 15세 이상 24세 이하 인구의 실업률은 21.6%로 전체 실업률의 3배 이상을 기록했으며,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34.3%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ISTAT, 2006). 반면, 이탈리아 고령 근로자의 낮은 고용률은 주로 실업보다는 고용에서 퇴직으로의 직접적인 전환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고령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조기퇴직 제도를 장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제로 조기퇴직은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에 대해 모순적인 해석들이 보이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구직 과정에서 차별적인 행위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중 연령에 관련된 차별이 28%로 성별이나 인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ISTAT, 2006). 특히, 45세 이상 54세 이하 근로자의 72%와 20세 미만 근로자의 63%가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ISFOL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불가리아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가장 적은 유럽 국가로 보고되었다(ISFOL, 2006). 이 중,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은 연령이 7.5%, 정치적 견해가 5.5%, 성별이 4.9%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차별은 고용이 안정적인 근로자보다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근로자가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Paulli & Tagliabue(2002)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 및 훈련 과정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널리 퍼져 있다. 이렇듯 이탈리아 연령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령주의 현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제2절 아시아 회원국의 연령주의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매우 공경해왔다(Levy & Langer, 1994). 전통적으로 연장자를 존중하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연령주의가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념이었다(Nelson, 2009). 이러한 믿음의 원천을 유교적 사상으로 보았다(Nisbett & Masuda, 2003). 또한, 아시아의 문화가 유럽 혹은 서양 문화권보다 상호 의존적이고 전체론적인 경향임으로, 개인주의적 사상에 초점을 맞춘 서구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Nisbett & Masuda, 2003).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노인 및 노화에 대한 태도 또한 변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조부모들과 유대가 느슨해 졌고, 공교육은 문화 지식 및 지혜의 전달자의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온 노인의 지위를 대신하였다(Cuddy et al., 2005). 현재 아시아 노인들은 많은 형태의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또한 아시아 사회에 퍼지고 있다(Cuddy et al., 2009). 특히, 아시아 문화가 서구권의 문화, 자본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Williams et al., 1997). 그러나 아시아 내 연령주의 현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 회원국의 특성과 연령주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 1. 대한민국

2020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5%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2060년에는 41%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0).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국가 및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한 정책대응의 일환으로 그동안 생산적 노동인력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다는 부정적 인식에 따른 연령차별이 노인의 노동시장활동을 저해하고 있다(OECD, 2014). 즉, 노인의 직업 역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한 것이다(Palmore, 1999). 한국의 경우 단시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였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이 일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이미지화 하며 연령차별을 합리화하였다(지은정, 2017). 따라서 한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노인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약화, 개인주의의 강화 등의 이유가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지위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악화시켰고, 노인학대나 고령화 정책에 대한 분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확대 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김동선 & 모선희, 2011).

대부분의 한국 노인은 자신보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한다고 생각한다(김동선 & 모선희, 2011; 김주현, 2015; 우국희 외., 2012). 우리나라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영역보다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연령으로 인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이 45.1%를 차지한다(임공수, 2017).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약 58%가 연령 제한으로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각종 직업훈련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임공수, 2017). 특히, 60세 이상 인구는 일을 해도 단순한 노동 외에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규정하여 연령차별을 합리화하였다. 사업체 인사담당자의 76%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연령주의의 심각성을 인정하였다(지은정 외, 2015). 또한, 일상화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위협도 한국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1,433개 사업체 실태조사결과,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연령을 고려한 경우가 51.8%이었는데 이 가운데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규 채용 시 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49.9%에 이르고 있다(장지연, 2003).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규모 업체에서도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적지 않은 편이다. 경력직 채용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9.4%가 연령제한을 하는 데 비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28.7%가 연령제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범, 2002).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연령차별 통계를 보면 인권위가 발족한 2001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 108건으로 증가했으며 차별로 판정된 사례가 다른 차별사건에 비해 두 배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이 가시화되고 있다(김동선 & 모선희, 2011).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08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모집, 채용, 배치, 임금, 보수, 교육, 훈련,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가시적 차별이 줄어들고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생산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태도나 인식마저 바꾸기는 어렵다.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는 고용주들은 연령차별 금지법 때문에 고령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차별을 할 우려마저 있다(이현송, 2008). 나아가 한국은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임금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8.1%만 해당하며(통계청, 2016), 60세가 넘으면 법적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기 쉬운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주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2.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일본은 이미 200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26.7%를 차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36%, 206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라기태, 2017). 이렇듯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연령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민권과 성평등의 확대를 이룩하였지만, 노년층의 권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의 날’이 생긴 이후, 노인이 겪는

연령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Komatsu, 2002). 과거 일본 사회는 유교적 전통인 노인공경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여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주류였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는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Komatsu, 2002). 나아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는 전통적인 효의 사상을 더욱 약화시켜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었다(Palley & Usui, 1995).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연령주의를 다룬 연구는 전무할 정도로 연령주의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했다(Sugii, 2007).

일본 노동시장은 1950년대 대기업에서 등장한 ‘평생고용’ 규범을 지켜왔다. 본 규범은 고용 안정과 복리후생에 대한 대가로 직원이 장기근무를 약속하고 회사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Duell et al., 2010).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 이후, 40세 이상의 직원들은 기업들이 채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Sakuraba, 2009). 일본의 노동경제학자들과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연령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Sakuraba, 2009).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채용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대책법을 2001년과 2007년에 개정하였다. 또한 2006년 노인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업이 최소한 공적연금적용 대상자가 될 때까지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07).

유럽 회원국들과는 달리, 그동안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60세에 은퇴를 하는 것이 관행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겪어 오면서 노년층의 노동시장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연금제도를 개정하고 수급자격연령을 상향하였다. 이로 인해 60세 초반 인구는 예전처럼 국민연금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젊은 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들었으며 노년층도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본에서 정년 이후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일본

정부 역시 노년층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에는 90% 이상의 기업이 정년을 60세로 정했지만, 이들의 70% 이상은 근로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04). 따라서 일본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2002년 기준 일본 60-64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1.2%인데 비해 같은 연령대의 독일 남성의 참여율은 32.0%로 나타났다(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2004).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 부정적인 연령주의는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많은 일본 노인들이 채용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여러가지 고용장벽에 직면하고 있다(Japan Trade Union Confederation, 2002;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02). Japan Trade Union Confederation(2002)에 따르면, 50세 이상 실업자의 50% 이상이 구인광고에 연령 제한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고용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탄력 근무제, 육체적 업무량 절감을 위한 직무 재설계와 같은 고령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을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는 노인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일본노인회(Japan Federation of Senior Citizens' Club, JFSCC)이다. 일본노인회는 각 동네에 설립된 약 13만 4천 개의 시니어 클럽으로 구성되어, 노인의 친목도모와 이웃의 건강을 서로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Takao, 2009). 또 다른 대표적인 노인단체인 일본 NGO 고령화협의회(Japan NGO Council on Ageing, JANCA)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사회보장제도 및 노인복지법을 옹호하고 있지만, 연령주의를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게 하고, 노인들은 이를 학대나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령주의 문제가 크게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Tomita, 1999). 따라서 일본은 연령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3. 호주

호주는 1970년대 초부터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가 최근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MacDonald, 2016). 2017년 기준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a, 2017). 호주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노인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연금수급자격을 2023년까지 60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 노동 생활을 확대하며 노년층 고용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4).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 노인의 실업자 및 비정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에는 약 15만 명의 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2015년 기준 약 25만 명의 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Department of Employment, 2015). 단순히 나이가 많은 이유로 호주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우며, 동시에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조기에 직장을 퇴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National Seniors Australia Productive Ageing Centre, 2013). 그러나 호주 노동시장에서 연령주의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지만,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국가적 연구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지 않았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5).

일자리를 찾고 있는 3,000명의 호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33% 이상이 구직과정에서 연령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National Seniors Australia Productive Ageing Centre, 2013). 고용 이후 겪는 연령차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5% 이상이 직장 내에서 어떤 형태의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연령차별을 경험한 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고령 근로자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건망증이 심하다’, ‘젊은 사람들로 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이나 복잡한 일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한다’, ‘장시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기술을 사용하는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5). 호주에서는 이러한 연령차별이 젊은 관리자와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집단적 편향성이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Australian Humanities Commission, 2015). 연령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적 대응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Loretto et al., 2000; Weller, 2007). 호주에서는 이를 위해 긍정적 연령주의 인식을 키우기 위한 캠페인을 개발하여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5).

#### 4. 싱가포르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출생률이 감소하여 국가 내 노동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싱가포르의 평균 수명이 1957년 64세에서 1993년 76세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Ministry of Health, 1993),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4%를 차지하였다(황문자, 최희정, 2017). 노인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Lim, 1988). 1957년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3.8%에서 1990년 9.1%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10%에 도달했다(Shantakumar, 1996).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고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상당한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 예상된다.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향후 25년동안 고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부양자 비율 또한 1990년 48%에서 2050년에는 81%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려, 현재 싱가포르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Cunningham & Debrah, 1995; Debrah, 1994). 싱가포르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 부문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1993년 이전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이 만연했다.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55세 이상 근로자의 조기퇴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1993년까지 정년에 관한 법률이 부재했지만, 55세가 관행적인 정년이 되었다. 둘째, 연령만을 기준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 거부하는 것이다. 고용

주들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임금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꺼리고 있다(Shanthakumar, 1994).

##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사회경제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노년층이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는 1991년과 2010년의 기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고, 204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United Nation, 2015). 이러한 고령화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노인복지 확대를 국가정책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사회, 정신, 환경, 경제의 다섯 가지 영역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 생산적인 노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특히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노년층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Yusoff & Zulkifli, 2014). 구직 시 연령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말레이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로는 2010년 고용규정법, 2012년 정년제도, 2016년 최저임금법 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노인은 지혜롭고 지식의 전달자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퍼져 있다(Black, 2016).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은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정책의 영향력도 감소하게 된다. Yusoff & Zulkifli(2014)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역량과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노년층을 고용할 때 직장의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을 기피한다. 따라서 노인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노년층보다 청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Yip(2010)의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연령차별은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저하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즉, 연령차별로 인해 40대 후반 또는 50대 후반의 사람들이 구직 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Kuala Lumpur Declaration on Ageing in 2015에서 1958년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연령차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Equal Right Trust(2012)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11년 노인국가정책 시행 이후 연령차별 극복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평등 및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책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Ramely et al., 2016).

## 제5장 전문가 조사

본 연구는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크게 연령주의 전반, 아셈 회원국 특성, 척도개발에 대한 전문가 자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관련 영역의 연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7명으로 연령주의 전반에 관한 전문가 7명(국내 5명, 해외 2명), 아셈 회원국 특성에 관한 전문가 5명(국내 3명, 해외 2명), 척도개발에 관한 전문가 5명(국내 5명)이다. 전문가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연구책임자와 연구보조원 2명이 배석하여 녹취와 기록을 담당하되, 해외 전문가 혹은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인 화상면접, 전화, 서면 조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5-1> 전문가 조사 진행 일정**

조사 영역	조사 일정
연령주의 전반	- 2020년 7월 23일(목) 10시 30분(1시간 진행)
	- 2020년 7월 23일(목) 16시 00분(1시간 진행)
	- 2020년 7월 28일(화) 10시 30분(1시간 진행)
	- 2020년 7월 29일(목) 11시 00분(1시간 진행)
	- 2020년 8월 12일(수) 9시 30분(1시간 진행)
	- 2020년 8월 12일(수) 서면 조사
	- 2020년 9월 23일(수) 서면 조사
아셈 회원국 특성	- 2020년 8월 12일(수) 15시 00분(1시간 진행)
	- 2020년 8월 12일(수) 16시 00분(1시간 진행)
	- 2020년 9월 9일(수) 15시 30분(1시간 진행)
	- 2020년 9월 22일(화) 서면 조사



조사 영역	조사 일정
	- 2020년 10월 23일(금) 서면 조사
척도개발	- 2020년 8월 12일(수) 14시 00분(1시간 진행)
	- 2020년 8월 23일(일) 서면 조사
	- 2020년 9월 11일(금) 17시 00분(1시간 진행)
	- 2020년 10월 19일(월) 14시 00분(1시간 진행)
	- 2020년 10월 20일(화) 16시 30분(1시간 진행)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사 전에 전문가들에게 미리 질문서를 전달하였다. 연령주의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는 연령주의 정의, 성별차이, 세대별 연령주의, 문화적 차이, 향후 연령주의에 대한 전망과 타파하기 위한 방법 등을 포함하였다. 아셈 회원국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셈 회원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셈 회원국 내 연령주의로 인한 영역별 차별 실태 등을 포함하였다. 척도개발에 관한 질문으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연령주의 척도와 한계점, 예비문항 개발 시 주의해야할 점 등을 포함하였다. 질문서는 제시된 내용에 대한 연계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반구조화 원칙을 적용하여 질문서를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진들은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질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 조사 결과를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해외 전문가 조사의 경우 질문서와 답변 모두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조사에 대한 결과는 전문가의 자문이 중복되거나 강조된 부분을 바탕으로 연구진의 합의 하에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고,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5-2> 질문서 내용

조사 영역	질문서 내용
연령주의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tler의 연령주의 정의로 오늘날의 연령주의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li> <li>- 연령주의를 경험하는 노인의 성차는 존재하는가?</li> <li>- 연령에 따라(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을 향한 연령주의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li> <li>- 연령주의 연구에서 문화적 차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li> <li>- 연령주의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향후 연령주의 연구의 방향은 무엇인가?</li> <li>- 연령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li> </ul>
아셈 회원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아시아 회원국들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li> <li>-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 짓는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li> <li>- 유럽/아시아 회원국 내 연령주의로 인한 영역별 차별 실태는 어떠한가? (의료, 노동시장, 교육 등)</li> </ul>
척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활용하는 연령주의 및 연령주의 관련 척도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기존 연령주의 척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불충분한 구성요소, 문화적 요소의 배제 등)</li> <li>- 예비 문항 개발 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li> </ul>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연령주의 전반에 관해서는 연령주의 개념, 주목해야 할 영역과 변인 등의 내용을 포괄한 9개의 상위 주제가 도출되었고, 아셈 회원국 특성에 관해서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 6개의 상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척도개발에 관해서는 조사대상의 범위,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의 내용을 포괄한 4가지 상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 제1절 연령주의에 관한 전문가 조사

연령주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utler의 연령주의 정의로 오늘날의 연령주의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연령주의를 경험하는 노인의 성차는 존재하는지, 연령에 따

라 노인을 향한 연령주의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연령주의 연구에서 문화적 차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령주의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향후 연령주의 연구의 방향은 무엇인지, 연령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연령주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분의 모호성, 교육영역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자기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연령주의 발생 원인의 다양성, 연령주의 내 성별차이 인식의 중요성, 세대별 연령주의 내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 연령주의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등 9개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 1. 연령주의 전반

### 1) 연령주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기존에 정의된 연령주의는 연령주의를 개괄적으로 접근하여 연령주의의 세부 구성요소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다양한 노인 집단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연령주의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령주의 개념이 노인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현재의 정의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를 위한 변인 차원으로 조직화 하는데 유용하지 않음. 연령주의가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인지, 태도, 행동, 환경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현재의 정의는 연령주의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축적하고 학술적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델링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H)

*“근데 (Butler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연령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실제로 연령주의가 행위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인식에 대한 건지 아니면 사회구조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담지를 못 한 점이죠.”  
(전문가 F)

“노인 내에서도 오히려 노인복지관 가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그에 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르신 분들은 아니라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노인에서도 노인을 구분하는 경향이 조금 있지 않나 싶고요.”  
(전문가 A)

“연령주의가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연령주의 보다는 노인 코호트 연구처럼 되어 버려서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문가 J)

“Butler의 연령주의 정의는 아직까지 여러 연령주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이지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앞으로의 연령주의 정의는 세대간 긴장, LGBT와 같은 성적 정체성,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 M)

## 2)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분의 모호성

연령주의는 연령차별, 노인차별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포괄하는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연령차별, 노인차별, 노인 낙인 등은 연령주의의 하나의 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령주의를) 연령차별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연령차별을 연령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차원으로 두는 건 좋은데 개인 생각으로는 딱 연령만 한정해서 연령주의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B)

“연령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노인 차별이란 얘기는 너무나 다른데 그거를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회나 이런데 가면 이게 연령주의입니까 노인차별입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쓰는 것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차별화하시면 저는 좋을 거 같아요.”

(전문가 D)

“거기서 또 개념들이 되게 복잡한데 차별하면 뭐 배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혐오라는 말도 나오고요. 낙인이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거의 구분 없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별 속에 어디까지 집어 넣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용어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전문가 D)

“유사 용어와의 개념적 구분이 모호함. 노인 낙인, 노인차별, 노인 태도 등 국내에도 다양한 용어와 척도가 유사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는 연령주의 전반에 대한 경험적 근거의 축적과 통일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전문가 H)

### 3) 교육영역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교육영역은 연령주의를 해소하고 세대 통합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령주의는 제도적 연령주의로 노인 교육이 공식화되어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노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노인 교육이 세대 통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연령주의일 수 있다. 또한 교육의 특성에 따라 연령주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 교육에서 학령기라는 표현이 있죠. 교육법에서도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연령주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노인들이 그런 심화된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교육 부분에서 연령주의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전문가 A)

“그러나 노인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세대 통합을 해야 된다, 연령주의를 타파하는 게 세대 통합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세대가 같이 교류할 수 있게 교육 같은 경우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노인이 가는 복지관, 노인이 가는 노인 대학 이렇게 하면 이미 그거 자체가 연령분절적이지 않느냐. 모두에게 가서 교육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전문가 A)

“또 직업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하는 교육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좀 새로운 IT 교육할 때는 연륜 있으신 분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할 거고 또 그에 반해서 철학적인 것은 연륜 있으신 분을 좋아하실 거고 그런 거에 따라 성향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 A)

#### 4)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는 가장 심각한 영역이다. 특히 노동시장 내 연공급제는 연령주의를 심화 시키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 내 퇴직을 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퇴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퇴직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도 연령주의에 대한 인지가 없어 연령주의를 고착화하고 있다.

“우리가 ageism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게 고용이거든요. 일터에서의 연령주의가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떤 노년학 책을 보더라도 연령주의가 한 챕터로 있다가 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 안에 연령주의가 있거든요.”

(전문가 C)

“근데 이 직급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연령이, 우리가 직급으로 서로 되는게 아니라 연령이 되게 그 안에서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입사를 먼저 했으면 나이가 같거나 엇비슷하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 앉히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연공서열제라고 하죠. 회사를 오래 다니면

아무래도 임금이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나이랑 연동되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제도 설계가 그런 식으로 된 것 같고...”

(전문가 A)

“서울시 관련된 정책목표나 일자리 관련된 평가를 가보면 일단 첫 번째는 퇴직을 했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퇴직 전에는 퇴직을 안 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면 안된다고. 왜냐면 워낙 지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 600만 월급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면 100만원 내외로 받는데 50만원짜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 하면 그거를 하는데 일하고 있는 중간에 50에서 60만원짜리 일자리를 위해서 은퇴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안 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 같아요.”

(전문가 E)

“작년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도 채 안 되게 제대로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그래도 뭐 며칠 2~4일 교육을 시켜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예 안 해요. 일부는 뭐 돈 줄 테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런데 하니까 들어라 이런데 있고. 나머지 80% 안 하는 거예요.”

(전문가 B)

“퇴직 준비하는 준비 교육 자체가 금년도부터는 1,000명 이상의 기업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시키는 내용 자체가 대략 보면 HRD회사에서 이쪽으로 연령주의에 대해 몰라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B)

##### 5) 자기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전문가의 연구 결과 노인 스스로 자신 혹은 다른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연령주의가 심각한 상태임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추후 자기 연령주의

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필요하다.

“남이 나를 차별 하는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 자기가 그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다른 노인 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거 든요. ...(중략)... 노인 분들한테 자기 연령주의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서 먼저 이제 질적인 연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좀 해 볼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들을 아직 구체적인 맥락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심층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F)

“자기 지향적 연령주의와 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령주의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해요. ...(중략)... 특히 노인들이 직접 경험하 는 자기 지향적 연령주의는 스스로의 수명,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 O)

## 6) 연령주의 발생 원인의 다양성

전문가들은 연령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구체 적으로 제도와 정책, 노인이 젊은 세대를 향해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 유교적 문 화, 획일화된 연령 규범의 적용, 세대간 갈등이 연령주의 형성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보면 연령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연금은 몇 세부터 뭐 이 런 식으로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 정책 자체에서 책들도 보니까 제도가 이런 연령주 의를 낳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가 항상 자기네들만 이 슈가 되는 브랜드 명칭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문가 A)



“연령주의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꼰대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꼰대에 관한 정확한 정의라던가 이것도 내가 나름대로 칼럼을 썼는데요. 대충 보면 옛날에 저기 선배들이나 자기 부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그런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거를 젊은 애들한테 하게 되면 이거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나 행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가 B)

“우리는 이제 계속 들고 있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효 사상 같은 걸 보면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해 이러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노인들이 젊었을 때 노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 E)

“사실은 연령 규범은 모든 연령대에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규범이 있다는 거죠. 단군 이래로 노인이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한 노인들이 존재할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노인이지만요. 이런 연령 규범이 이전에는 상당히 단순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노인들이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아버지와 같지 않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하면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연령 규범이 더디게 가고. 그게 ageism(연령주의)예요.”

(전문가 C)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게 여전히 노인의 빈곤문제가 많고 노인보다는 사실 세대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령주의의 갈등보다는 세대에 대한 갈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코호트 산업 초기나 전쟁 후에 연령집단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지금 세대가 갖고 있는 연령주의 특성이 부딪히면서 노인층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거지. 사실 노화에서 갖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 보다는 그 세대들에 대한 시름이 더 많고 세대들에 대한 희화가 많은 거지.”

(전문가 J)

## 7) 연령주의 내 성별차이 인식의 중요성

연령주의 연구에서 성별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여성 노인에게서 연령주의가 더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성별차이는 연령주의가 발생하는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중년 남성이나 중년 여성이라고는 하지만 노인 여성이라고는 안 하죠. 여성 노인이나 남성 노인이라고 하는데 문화인류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뒤에 말이 좀 더 비중이 있는 상황이죠. 노인은 여성하면서 노인 쪽으로 간다는 거죠. 탈성적인 노년기의 탈성적인 부분들, 노인에 있어서는 성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감퇴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ageism(연령주의)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전문가 C)

“연령주의가 영역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 내의 연령주의라던가 문화 차원에서 연령주의, 노동, 경제활동에서 연령주의 뭐 다 다르거든요. 이제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영역에 따라서 통찰을 느끼는 게 조금 달라요. 고용이라던가 노동 영역에서의 연령주의는 또 남성분들이 더 많이 민감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차가 영역별 성차도 나타나고 정도에 차이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 F)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노인 여성의 모습과 남성의 모습이 다른 경향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내용 연구에 따르면 여성 노인의 경우, 기질적으로는 남성 노인보다 긍정적이나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온정적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성 노인은 기질적으로 여성 노인보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별적 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 H)

“여성이 연령주의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걸로,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여성 노인들이 응답하는 연령주의가 아주 독립적으로 연령에 의해서 차별인지, 아니면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빈곤이라던가, 아니면 성에서 오는 차별이 복합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설명하기에는 노인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전문가 F)

“통상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이중위험 가설에 따라 연령주의와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연령에 대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특히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문가 M)

## 8) 세대별 연령주의 내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

세대에 따라 연령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유아와 아동은 노인의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청소년과 청년은 노인을 일자리의 경쟁 상대로 여겨 연령주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세대에 따른 연령주의 연구에서 노인과의 접촉 및 경험,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아들은 그냥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연령차별에 대한 관념이 심어지는 것 같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노인을 대하고 말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연령차별에 대해서 좀 학습되는게 아닌가 되게 스펀지처럼 학습을 하더라구요.”

(전문가 A)

“청소년은 요즘 한창 얘기가 나오는데 일자리 경쟁 대상으로 약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이런 곳에

서 정년연장이 어려운 게 좋은 직장에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니까 청년들이 갈 수 없다 라는 일자리 경쟁이 연령주의로 보는게 아닌가...”

(전문가 A)

“또 청년, 청소년들은 자신이 세금을 통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해서 노인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짐스러운 존재로 보는 요런 부분도 청년이 있는 것 같고요. 청년은 그냥 짐스러운 존재로만 보고 있다면 중장년은 그래도 내 부모로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약간 따스한 시선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전문가 A)

“문제는 이제 세대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오래 살았던 친구들은 노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고 어릴 때 한달에 한번 할아버지를 보러 간 친구들은 좀 서먹서먹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래 못 본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 있고. 물론 세대별로 차이를 보는 연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론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전문가 E)

“근데 이게 단순히 연령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노인들과 접촉 경험이라던가 어렸을 때 노인 분들하고 같이 살았다던가 뭐 아니면 그 노인 분들이 아이들을 키워주셨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도 또 다르게 나타나고요.”

(전문가 F)

“연령주의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노인과의 접촉 경험, 미디어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 H)

“유아가 외적으로 젊은 외모를 선호한다는 결과는 태생적으로 연령주의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정체성의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기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세계와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연령주의로 연결될 수 있어요. 중년기에 이르러서는 노인과 가까운 세대여서 유아와 청소년이 보이는 연령주의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암묵적인 형태로 연령주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가 L)

### 9) 연령주의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전문가들은 연령주의의 해소를 위해서 젊은 세대와 노인이 함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교육영역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매스미디어에서는 노인에 대한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은 사회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비해 가까운 노인과 상호작용 기회가 부족하며,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긍정 혹은 부정의 극단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상호교류를 하기 위한 연령통합적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H)

“저희가 어쨌든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는 상황에서는 연령이 같이 섞여 있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야지 어쨌든 이런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략)... 그리고 아니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면 커뮤니티 내에서라도 노인하고 젊은 세대하고 같이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연령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그나마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F)

“(취직이) 좀 늦어지고 일자리도 늦게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찍 또 퇴직을 하

짧아요. 사오정 40대 50대 이렇게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제 2의 일자리라던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90세까지 가려면 근데 그게 막혀 있는 거고, 평생교육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부 하나를 더해라. 저는 제가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대학에 들어가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전문가 D)

“그냥 직장이 있는 사람이 야간과 주말에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퇴직을 앞둔 사람이 미리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아니면 야간하고 그때 다녀도 되긴 하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해줘서 캠퍼스에는 까만 머리와 하얀 머리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이 같이 섞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 D)

“미디어의 경우, 노인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노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노인상을 제시하고 노인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H)

“연령주의를 앞으로 개선하는데도 법으로 역시 정년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사회운동이나 자각하는 운동을 통해 스스로 자기 행동을 좀 더 이렇게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해야 해요.”

(전문가 B)

“첫째, 연령주의가 세대간 경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노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연령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째, 특히 노동시장에서 생물학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을 구분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노동시장에서 노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문가 L)

“최근 연령주의에 대한 체계적 고찰 문헌이나 메타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과 세대 간 접촉이 연령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메커니즘이라고 보고되었어요. 또한 연령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캠페인의 실천이나 법령의 마련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N)

## 제2절 아셈 회원국의 특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아셈 회원국 특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과 아시아 회원국들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 짓는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유럽과 아시아 회원국 내 연령주의로 인한 영역별 차별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유럽의 사회문화적 특성, 유럽과 아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유럽의 연령주의 현황,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특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 인식 차이라는 6개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 1. 유럽의 사회문화적 특성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회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국가별로 아주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지역별로 국가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유럽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평등의 원인

“유럽의 노인들은 선거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유럽의 노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청년들은 투표에 많이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대한 국가 예산의 투자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세대 간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문가 K)

## 2) 유럽의 사회계층이동 동향

“일반적으로 유럽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단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유럽 사회는 보수적이고 *social climbing*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그런 면에서 유럽과 유사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 K)

## 3) 유럽의 문화적 특징

“유럽 문화의 특징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unity in diversity* 입니다. 즉,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방점은 다양성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다양한 문화가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강한 지역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 문화와 개별 국가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이 유럽 문화의 특징입니다.”

(전문가 K)

## 4) 유럽 지역에 따른 출산율 문제

“남유럽과 상대적으로 경제가 떨어지는 중동부 유럽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서유럽과 북유럽의 출산율이 재생산 비율인 2.0에 가깝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남유럽과 동유럽이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전문가 K)

## 5) 이탈리아의 저출산 및 청년실업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은 매우 낮고 거기에 결부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니까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수한 인재나 고급 인력들이 이제 해외로 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강해지면서 사회의 활력이 떨어



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K)

## 6) 서유럽 국가 내 노인 인식 전환의 계기

“80년대 이후부터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지면서 노후의 삶이 좋아지고 노인들의 이미지가 좋아진 거지 처음부터 노인들의 이미지가 좋진 않았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만 해도 노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지면서부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문가 J)

## 2. 유럽과 아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연령에 있어서 개방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과 달리 유럽도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대해서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 성향, 노동시장 등에서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1) 연령에 관한 유사한 가치관 공유

“저는 유럽과 아시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족중심적이어서 이게 그 나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계급 같은 것들이 아시아와 굉장히 비슷해요. 즉, 두 지역 다 나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권이에요.”

(전문가 J)

### 2) 종교적 다양성 차이

“남유럽과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고, 그 다음에 독일의 절반과 북유럽은 개신교에 가깝고,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리스정교입니다. 즉, 큰 틀에서는 기독교이지만 종파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는 유교와

불교, 이슬람, 힌두교 그야말로 매우 다양한 종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K)

### 3)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아무래도 아시아는 가족 유대가 여전히 좀 강하고 가족의 책무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유럽은 대체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아시아 대비 가족 유대감은 약합니다. 그래서 *collectivism*과 *individualism*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K)

### 4) 노인에 대한 존경심 정도의 차이

“유럽에서는 근대화를 위해 노인에 대한 존경을 철회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면서 사실상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시아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여전히 노인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은 강합니다.”

(전문가 K)

### 5)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차이점

“유럽은 상대적으로 개인 능력을 좀 더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아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봉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유럽은 나이 든 사람이 반드시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는 근무과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비교적 수용하는 입장이라면, 유럽은 철저하게 주당 노동시간을 강조하면서 *work and life balance* 이걸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K)

### 3. 유럽의 연령주의 현황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연령주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 특히 노년층의 경제적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

“유럽의 노인층은 빈곤율이 낮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는 거의 무색에 가까워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듯 연령주의가 아주 심각하진 않고요. 대중주의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 최근 연구들을 봐도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높지가 않아요.”

(전문가 J)

“프랑스는 그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납니다. 엄청난 연금과 사회적 혜택을 가져가지만 사회적 참여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개인들은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면 노인을 좋아해요.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전문가 J)

“노화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는 아마 독일일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은퇴 연령이 거의 흐지부지 되고 은퇴 규정이 잘 없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가 J)

“유럽에서는 평생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연령주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을 수 있도록 개방도가 높거든요. 학위를 받고 싶어서 나중에라도 학교에 오게 되는 그런 것들도 차별이 거의 없어요.”

(전문가 J)

#### 4.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시아 중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또한 동남아 국가는 문화적 중층성을 가지고 있어 토착 문화와 외래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 1)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

“동남아시아에 다양한 종교가 전파된 루트가 바닷길이었어요. 과거에 이제 전통 왕국들이 있을 때부터 바닷길을 따라서 외국 문화가 유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것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이 있게 되었어요.”

(전문가 I)

##### 2)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중층성

“19세기 때부터 화교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세기부터 일본, 미국, 최근의 한류까지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중층성을 띄게 돼요. 이 중층성을 띠는 것은 토착 문화가 외래문화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겹겹이 쌓이고 이게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동남아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I)

#### 5.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특성

동남아시아는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근대적인 통치체제가 늦게 발달하였다. 또한 가족주의적인 성향이 대체로 강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과 여성에게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 1) 자연환경으로 인한 체제적 특성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자연조건 때문에 국가체제라던가 정교한 통치체제가 상대

적으로 늦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수혜자한테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걸 베풀어주면 수혜자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관계망이 발달한 거, 그래서 지금도 이런 관계가 동남아시아에서도 유효한 관계예요.”

(전문가 I)

## 2)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남자들이 주로 카페에서 앉아서 수다를 떨거나 여성들은 농경생활이나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남성들이 주로 한 가한 활동을 즐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 상속이나 이혼 후 재산 분배, 양육권 등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전문가 I)

## 3) 가족주의의 발달

“베트남의 경우에는 결혼한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특징이 강하고, 베트남 남부 이외의 동남아 지역은 모계 사상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결혼한 딸과 부모들이 같이 거주하기를 선호해요. 베트남의 가구 구조를 보시면 2인에서 4인 가구와 5인 이상의 가구가 전체의 89.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다인 가구 중심의 사회입니다.”

(전문가 I)

## 4) 노인 친화적 사회제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기본적으로 평등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보더라도 노인이나 여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전문가 I)

## 6. 한국과 일본의 노인 인식 차이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고 고령화 문제가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국가의 고령화 정도의 차이가 노인 인식의 차이를 심화 시키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지금 벌써 고령화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지 일본은 고령 집단이 굉장히 생활 속의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자들을 고령 집단으로 인식을 하는 측면이 나타났고요, 일본은 고령자들을 개개인으로 인식을 하는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전문가 F)

“나이든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고령자들을 분리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부정적이었어요. 즉, 그 사회가 얼마나 고령화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노인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과 인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 F)

### 제3절 척도개발 전문가 조사

척도개발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활용하는 연령주의 및 연령주의 관련 척도가 있는지, 기존 연령주의 척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예비 문항 개발 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연령주의 척도 조사대상의 확대, 척도개발 시 다양한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의 고려 필요, 예비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 될 요소, 본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인 4가지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 1. 연령주의 척도 조사대상 구분의 필요성

기존의 연령주의 척도는 노인이나 노인이 아닌 다른 세대 중 하나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척도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조사하는지를 확실히 정하거나 모든 세대를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척도개발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연령주의 척도 조사대상의 확대, 척도개발 시 다양한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의 고려 필요, 예비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 될 요소, 본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인 4가지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게 누가 봤을 때의 연령주의를 측정해 내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제 노인 입장에서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연령주의를 측정하고자 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 같아요.”*

(전문가 D)

*“이게 노인을 대상으로 물어볼 건지 아니면 노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볼 건지 버전을 달리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확실히 노인인 사람이나 노인이 아닌 사람이나 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죠.”*

(전문가 E)

## 2. 척도개발 시 다양한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의 고려 필요

연령주의는 연령차별보다 광범위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척도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연령주의나 연령차별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연령주의 구성요소가 접목된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연령주의나 연령에 대한 것들 인식이 담겨져 있는 척도는 사실은 좀 없어요. 대개 차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실 age sensitive한 부분들이 좀 담겨 있어야 지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그런 나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쪽에 대부분의 척도들은 그 초점이 가 있어요.”*

(전문가 D)

“Butler는 부정적인 것을 강조했거든요. 이것만 하면 오히려 현재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고. 삶의 영역에는 긍정적, 부정적 연령주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가 G)

“Palmore도 그렇고 Fraboni도 그렇고 연령주의를 측정할 때 고정관념이나 태도 같은 것만 다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린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중장년들이 어떻게 노인들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노인 인식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조금 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두 가지를 다 좀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문가 J)

“연령주의 척도개발 시 연령주의의 명시적, 암묵적 요소, 긍정적, 부정적 요소,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령주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해요.”

(전문가 O)

### 3. 문항개발 시 고려해야 될 요소

예비문항을 개발할 때 문항의 수, 문화적 특성, 문항 내용 등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동양권과 서양권 모두에 적합한 문항이면서 동시에 문항 내용이 중립적일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요즘에는 추세가 그 연령주의를 측정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는게 아니라 좀 심플한 문항으로 가고 있어요. 척도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건 기존 문항이 늘 많은데 좀 적정 문항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전문가 D)

“동양에서는 나이 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농담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서구같은 경우에는 나이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생일 카드에 그런 카드에도 노인 분들



좀 희화화해서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양의 문화에서만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좀 고려해야 될 거 같아요.”

(전문가 F)

“문항은 많아야 돼요. 버리더라도 예비문항은 많아야 돼요. 예비문항은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이 버려져요. 전문가 조사를 했을 때도 많이 버려졌어요.”

(전문가 G)

“어떤 선생님은 이런 연구하면 안 좋다고 화를 내세요. 이걸 통해 노인에 대한 혐오라던가 차별,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문장 하나하나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작업도 쉽지 않더라고요.”

(전문가 G)

“연령주의는 사회적으로 야기된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의 문화적, 맥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발하였다고 해도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예비문항을 개발한다면 현 시대, 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항목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H)

#### 4. 본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

아셈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 및 연령주의 현황을 문헌조사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조사 국가별 전문가를 연구진에 참여시키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 말고 외국 연구자를 넣어서서 각국의 특성을 뽑아내는게 아닌 이 상은 이거를 사실 문헌연구로만 뽑아내서 알기 어려워요. 문헌으로 해봤지만 이게 구술도 그렇고 이쪽 분야로 오래되신 분들과 대단히 긴 FGI도 해서 뽑아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지 않을까.”

(전문가 G)

“저는 하나의 척도로 연령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O)

## 제6장 연령주의 척도개발

### 제1절 연령주의 예비문항 개발과정

본 연구는 연령주의의 영역과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척도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연령주의 영역은 신체 이미지, 가족, 교육, 노동시장, 의료, 복지, 매스미디어로 나누었고 연령주의 구성요소는 정서, 인지,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아셈 회원국의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각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및 연령주의 현황과 전문가 조사에서 강조된 긍정적 연령주의와 부정적 연령주의에 대한 문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예비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연령주의 예비문항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주의 예비문항 개발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국내외 연령주의 척도 문항 324개의 문항을 살펴보았고 국외 척도의 경우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비 문항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 명확하고 간단한 문장,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을 고려한 문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였다.

둘째, 기존에 개발된 국내외 연령주의 척도 문항을 연령주의 영역과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총 38개의 예비문항을 선별하였다. 국내외 연령주의 척도 문항 중 연령주의 영역과 연령주의의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문항의 경우 제외하였으며, 포함되지 않은 연령주의 영역과 연령주의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문항은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령주의 척도 문항 중 교육 영역의 긍정적 연령주의를 내포할 수 있는 문항이 없어, 연구진은 교육 영역의 긍정적 연령주의에 해당할 수 있는 문항이 연령주의의 구성요소인 정서적 요소를 담아내도록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높다’라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선별한 예비문항의 검증을 위해 전문가 2인과 선별된 예비문항에 대한 사후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의 주된 내용으로는 통일성 있는 문항의 제작, 부정적 단어 사용의 자제, 문항간 영역별 구분의 모호성, 영역별 세부영역 구성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특히 영역별 세부영역의 구분은 다양한 차원의 세부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신체 이미지는 외모변화,

외모관리와 외모평가, 가족은 가족관계와 가정생활로, 교육은 교육환경과 학습역량으로, 노동시장은 근로역량과 근로조건으로, 의료는 건강과 의료서비스로, 복지는 제도와 서비스로, 매스미디어는 보도경향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전문가의 사후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선별되었던 38개의 예비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30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림 6-1> 연령주의 예비문항 개발 절차**



**제2절 연령주의 예비문항**

신체 이미지 영역에 대한 문항은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세부 영역에서 외모변화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문항은 긍정적 및 정서적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외모관리에 해당하는 문항은 ‘노인들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로 부정적이며 인지적인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모평가에 속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 ‘노인들은 나이든 모습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두 문항 모두 부정적 연령주의 요소를 담고 있지만, 각각 정서적 및 행동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 영역에 관한 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긍

정적 및 정서적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외 두 문항은 부정적 및 인지적 연령주의 요소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가정생활에 속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및 인지적 연령주의 내용을 포함하는 두 개의 문항이 있으며, ‘노인들은 가정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문항은 인지적이지만 부정적인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교육 영역에 대한 문항은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환경 세부영역에 속하는 두 문항은 부정적이고 인지적인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역량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높다’ 문항은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연령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배우기에 나이가 많다’ 문항은 부정적인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노동시장 영역에 관한 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근로역량에 대한 3개 문항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연륜만큼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는 긍정적, 인지적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그 외 두 문항은 부정적이며 인지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세부영역에서 근로조건에는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받는다’,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퇴직 등의 압력을 받는다’, ‘노인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문항이 있으며 모두 부정적이고 행동적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의료 영역에 대한 문항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건강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긍정적 및 행동적 내용을, ‘노인들은 병에 쉽게 걸린다’는 부정적 및 인지적 연령주의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이 부정적인 연령주의에 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된다’는 인지적 구성요소를, 나머지 두 문항은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겪는 차별적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 영역에 관한 문항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복지 제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모두 인지적 구성요소를 담고 있지만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노인들은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문항은 긍정적 및 행동적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매스미디어 영역에 대한 문항은 총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들은 매스미디어에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된다’와 ‘노인들은 매스미디어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도된다’는 모두 보도경향에서의 부정적 및 인지적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표 6-1> 연령주의 예비문항

영역	세부영역	긍정/부정	정서/인지/행동	문항
신체 이미지	외모변화	긍정	정서	1.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외모관리	부정	인지	2. 노인들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외모평가	부정	정서 행동	3. 노인들은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 4. 노인들은 나이드 모습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가족	가족관계	긍정	정서	5. 노인들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
		부정	인지	6. 노인들은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 7. 노인들은 가정 내 역할이 미미하다
	가정생활	긍정	인지	8. 노인들은 집이나 방 등 자기 주위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부정	인지	9. 노인들은 아이들을 잘 돌본다 10. 노인들은 가정에서 무리한 일상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교육	교육환경	부정	인지	11. 노인들을 위한 학습기회는 제한적이다 12.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과 장소가 적다
	학습역량	긍정	정서	13.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높다
		부정	인지	14. 노인들은 배우기에 나이가 많다
노동시장	근로역량	긍정	인지	15. 노인들은 연륜만큼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
		부정	인지	16. 노인들은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 일의 생산성이 낮다 17. 노인들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다
	근로조건		행동	18.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받는다
		부정		19.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퇴직 등의 압력을 받는다 20. 노인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의료	건강	긍정	행동	21. 노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부정	인지	22. 노인들은 병에 쉽게 걸린다
	의료서비스	부정	인지 행동	23.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된다 24. 의료진은 노인환자보다 보호자와의 상담을 선호한다 25. 노인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무성의한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
복지	제도	긍정	인지	26.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서비스	부정	인지	27. 노인들은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매스미디어	보도경향	긍정	행동	28.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부정	인지	29. 노인들은 매스미디어에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된다 30. 노인들은 매스미디어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도된다

## 제7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연령주의의 개념, 관련 이론, 연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별 연령주의 연구, 발생영역, 유형과 세부 구성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령주의는 연령에 기반하여 파생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 인지, 행동적인 편견, 고정관념, 차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이를 토대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차별과 인종차별과는 다른 특성을 공유한다. 특히 연령에 대한 부당한 태도와 고정관념은 주로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본 연구는 노인을 향한 연령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노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연령주의를 마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령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을 신체 이미지, 가족, 교육, 노동시장, 의료, 복지, 매스미디어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른 영역과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연령주의가 외적으로 빈번하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연령주의는 단일화된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주의 관련 이론을 연령주의가 어느 수준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미시적(공포 관리이론, 고정관념 형성이론, 고정관념 내용모델), 중시적(연령분리이론, 세대 간 갈등이론, 집단 간 위협이론), 거시적(근대화 이론) 수준으로 이론을 분류하였다.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는 연령주의 정의, 이론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령주의의 유형은 크게 4가지 유형인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연령주의, 명시적/암묵적 연령주의, 긍정적/부정적 연령주의, 자기 지향적/외부 지향적 연령주의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연령주의는 정서적인 편견, 인지적인 고정관념, 행동적인 차별이라는 구성요소를 공유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든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를 동시에 다룬 연구는 부재하였고 대다수의 연구가 명시적, 부정적, 외부지향적 연령주의를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주의 척도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연령주의 및 연령주의 관련 주요 척도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이미 1950년대부터 연령주의, 그리고 연령주의에 관련된 개념 등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연령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고, 기존 연령주의 척도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 관련된 척도를 폭넓게 검토하여 기존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기존 척도의 한계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척도는 문항 수가 너무 많거나 문항 내용이 복잡하다. 초기 연령주의 척도는 문항의 수가 너무 많고 그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조사 대상자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둘째, 기존 척도는 연령주의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기존 척도는 주로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 문제만을 다루거나 부정적 연령주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셋째, 척도의 일부 문항들은 서구 문화적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거의 모든 연령주의 척도가 서구권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문항의 의미가 다소 생소하거나 아시아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아셈 회원국 일부를 선별하여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령주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차별적 관행 등과 같은 연령주의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 회원국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라 연령주의는 다르다.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령주의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럽보다 아시아 지역이 노인이나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반면, 아시아 일부에서는 서구화로 인해 아시아에서도 전통적인 노인공경 사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회원국 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문화연구는 연령주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먼저, 유럽은 서부/동부/남부 유럽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주요 회원국을 선정하였다. 서부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동부 유럽에서는 폴란드, 그리고 남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선정하여 회원국별 특성 및 연령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일찍이 고령화를 맞이한 유럽이지만, 연령주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9년도 유럽사회조사에 의하면 유럽 28개국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

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별, 인종으로 인한 차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주의가 3억 명 이상의 유럽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노동시장 뿐 아니라 의료분야 및 사회정책의 연령 상한 기준을 늘리고 있어 다른 영역에서도 연령주의 현상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다.

아시아는 동북/동남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주요 회원국을 선정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그리고 동남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여 회원국별 특성 및 연령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해오는 문화였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노인 및 노화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하고 있다. 도시화 및 서구화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며 조부모와의 유대가 약해졌고, 공교육은 문화 지식 및 지혜의 전달자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온 노인의 지위를 대신하였다. 따라서 현재 아시아 회원국 내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다양한 형태의 연령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주의에 대한 문헌분석 뿐만 아니라 연령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크게 연령주의 전반, 아셈 회원국 특성, 척도개발에 대한 전문가 자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현재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영역의 연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7명으로 연령주의 전반에 관한 전문가 7명(국내 5명, 해외 2명), 아셈 회원국 특성에 관한 전문가 5명(국내 3명, 해외 2명), 척도개발에 관한 전문가 5명(국내 5명)이다. 전문가 조사는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익명처리와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연구책임자와 연구보조원 2명이 배석하여 녹취와 기록을 담당하되, 해외 전문가 혹은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인 전화와 서면 조사를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령주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연령주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분의 모호성, 교육영역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노동시장 내 연령주의의 심각성, 자기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연령주의 발생 원인의 다양성, 연령주의 내 성별차이 인식의 중요성, 세대별 연령주의 내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 연령주의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인 9개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아셈 회원국 특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유럽의 사회문화적 특성, 유럽과 아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유럽의 연령주의 현황,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특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 인식 차이라는 6개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척도 개발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연령주의 척도 조사대상의 확대, 척도개발 시 다양한 연령주의의 유형과 구성요소의 고려 필요, 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 될 요소, 본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인 4가지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연령주의 영역은 신체 이미지, 가족, 교육, 노동시장, 의료, 복지, 매스미디어로 나누었고 연령주의 구성요소는 정서, 인지,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 연령주의와 부정적 연령주의에 대한 문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 제2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의 체계화된 개발이다. 본 연구는 연령주의의 이론적 토대 즉 개념, 이론, 영역, 유형, 세부항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 대부분이 구성요소인 정서, 인지, 행동 중 특정 영역만을 포함하거나, 노동시장에 국한하여 척도를 개발한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단순히 번역하여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척도 예비문항 개발 시 단계별로 구분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예비문항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둘째,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연령주의 현황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 아셈 관련 자료들은 주로 경제사회적 지표들을 나열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더불어 지역정치 역학관계를 다룬 분석이 많았다. 물론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한 국가

만을 선정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연령주의 현상을 아셈 지역 전반에 걸쳐 분석한 보기 드문 연구이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으며 연령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전문가 조사를 통한 실제적 현실을 반영하였다. 연령주의, 아셈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및 연령주의, 연령주의 척도에 대한 문헌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양한 네트워크 및 채널을 동원해 국내에서 연령주의를 심도 있게 연구한 학자들을 섭외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면인터뷰, 전화인터뷰, 서면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에서 기술된 사실과 현상학적 내용들이 실생활 혹은 현장에서도 드러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고 더불어 연구진행상 유의해야 하는 점 등을 숙지할 수 있었다.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도 연락하여 연령주의,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척도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약하나 초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셈 회원국의 연령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토대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채택된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본척도를 개발할 것으로 본다. 본척도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가 물론 남아있지만 (pilot test, 전문가 검토, 타당도 검사 등) 본척도 개발 시,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령주의 현황과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본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아셈 지역 간, 회원국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연령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 제3절 제언

본 연구 과정 및 결과를 통해 다음 6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주의 발생영역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

의 발생영역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 발생영역을 고려하여 7개 영역에 대한 맞춤형 예비문항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연령주의가 일상생활 및 사회전반에 걸쳐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발생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연령주의 척도 예비문항 개발시에도 적용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삶 전체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셈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아셈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령주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 전반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간, 예산,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10여개국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아셈 회원국이 51개국이고 각 지역별, 국가별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이 상이하고 또한 연령주의도 각기 다를 수 있는 만큼 51개 회원국을 최대한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해당 국가 전문가, 해당 언어사용자, 문화의 이해도가 높은 국가별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하여 구성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목적 및 수행 과정상 국제 기구의 협력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수행 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해외전문가 섭외와 지역 및 국가별 정보 취득의 어려움이었다. 왜냐하면 아셈 회원국의 언어, 문화, 종교가 매우 다양하고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접근성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아셈 회원국 대상 조사를 할 때 국제 기구의 협조를 통해 회원국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아셈회의의 경우, 참여하는 회원국 대표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contact point를 마련하여 활용함이 연구 수월성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예비문항 척도를 기반으로 개발된 본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 시 국제기구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넷째, 해외전문가의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전문가는 인적자본과 기관 등의 협조로 인해 큰 문제없이 섭외가 가능하였고 더불어 관련 조사도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외전문가 조사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섭외 자체도 어려웠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셈, 세계노년학회 등의 국제기구 및 학술단체의 협조 하에 해외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연구기간을 늘리고 초기부터 해외전문가 접촉을 시도해야 하며 특별히 휴가철인 8, 9월을 감안한

계절적인 고려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본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예비문항을 토대로 pilot test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 본척도를 개발하여 연령주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척도개발의 한계점 극복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 아셈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척도 개발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아시아와 유럽 문화가 다르고, 거기에서 측정될 연령주의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개발될 연령주의 척도가 각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함과 동시에 문화, 국가별 실정에 맞는 측정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연령주의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척도 예비문항 개발 시 고려하지 못한 중요 요소 (암묵적/명시적, 자기지향/외부지향)들을 향후 연구에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구혜영. (2017).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72(4), 141-165.
- 권중돈. (2019). 노인복지론(7판). 학지사.
- 권중돈, 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1), 81-105.
- 김동선, 모선희. (2011). 국가인권위원회 판정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용상 연령차별의 요인탐구. 노인복지연구(51), 145-164.
- 김동선, 모선희. (2012).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사회과학연구, 23(4), 93-112.
- 김문영. (2000). 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9(4), 515-523.
- 김미혜. (2002).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8, 69-89.
- 김미혜, 김수진, 류주연. (2017).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이 연령주의 (Ageism)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7(1), 221-236.
- 김미혜, 원영희. (1999). 새로운 노인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인광고: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193-214.
- 김육.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 (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김육.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 김일호, 천희란. (2015). 노인차별과 그 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지역 비교. 한국노년학, 35(2), 433-450.
- 김정엽, 이재모. (2010). 노인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8, 7-30.
- 김주아, 하지연. (2019).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연령주의 관련요인. 간호행정학회지, 25(5), 393-403.
- 김주현, 오혜인, 주경희. (2020).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 (self-ageism). 한국노년학, 40, 659-689.
- 김주현. (2012). 연령주의 (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53-75.
- 김주현. (2015). 한국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인식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 38(1), 69-104.

-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45-72.
- 김화선, 최은정, 양정남(2009). 노화사실인지정도와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0), 135-165
- 라기태. (2017). 초고령 사회 일본.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56, 1-4.
- 박경옥. (2016).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 및 요양업무 능숙도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399-406.
- 박영범. (2002). 중고령 근로자 노동시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박재숙, 성희자. (2010). 사회복지사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복지교육, 13, 1-26.
- 배문조. (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변진옥, 조병희. (2014). 약국약사들의 사회적 역할 실천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보건과 사회과학, 35(1), 107-144.
- 서순림, 최희정. (2013).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5(4), 464-472.
- 신학진. (2012). 한국중년의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5, 33-63.
- 신학진. (2013). 중년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외집단 접촉경험이 차별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4), 113-134.
- 안주엽. (2007). 노동과 차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영, 김남희. (2018). 노인의 차별경험인식과 자살사고간의 관계 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3(3), 215-239.
- 양정혜. (2011). TV 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7(1), 72-106.
- 오현정, 신경아. (2019).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2010 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홍보학 연구, 23(4), 40-68.
- 오혜인, 주경희, 김세원. (2015). 연령주의에 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베이비부머와 노인세대의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 303-330.
- 오혜인, 주경희, 김주현. (2018). 노인의료전문가 집단의 연령주의 및 연령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1, 59-91.
- 우국희, 주경희, 이연순. (2012). 취업노인의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281-304.
- 원영희, 최혜지, 김주현, 김성호, 김지혜.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유경준, 황수경. (2005).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유혜경, 이민선. (2019).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만족도가 외모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43(1), 112-124.
- 유혜경, 이민선. (2019).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인식 수준에 따른 노년 여성의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pISSN, 21(5).
- 윤진. (1988).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1): 중·상류 30-40 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7(1), 63-73.
- 이선희, 김미리, 정순돌. (2019). 청년세대의 연령주의 유형화 및 연령주의 유형과 세대갈등·노인복지정책 인식의 관계. *한국노년학*, 39(4), 825-846.
- 이윤경, 염주희, 황남희, 양찬미. (2013).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모. (2009). 한·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5, 117-140.
- 이지은, 장윤정. (2016).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령군별 비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6(1), 233-260.
- 이현지, 방희정.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191-213.
- 이현송. (2008). 미국사회에서 연령차별을 둘러싼 딜레마: 연령차별금지법(ADEA)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3), 51-80.
-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이미지 평가 및 이미지 형성이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 (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9(12), 266-289.
- 이혜원. (2001).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6, 377-403.
- 임공수. (2017). 고용차별판단 심사기준. *노동법논총*, 39, 177-222.
- 장지연. (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전상남, 신학진. (2011). 노인차별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고독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1(4), 925-938.
- 전혜성, 권금주. (2009).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원격대학 장년기 대학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3, 203-226.
- 정순돌, 송아영, 전혜상. (2015). 복지태도와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 노인과 비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0, 245-266.
- 정순돌, 정주희, &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정순돌, 정주희. (2014). 가족관련 요인이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세대별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복지학, 45, 149-170.
- 정지훈. (2016).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2, 139-174.
- 조명희. (2006). 노인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95-106.
- 조수현, 정순돌. (2019). 사회위험수준인식과 노인낙인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9(2), 131-159.
- 주경희, 김주현, 정순돌, 임병우. (2017).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령통합 인식에 대한 연구: 청년집단과 노년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3), 71-93.
- 주경희. (2016). 연령주의와 세대갈등,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2), 41-67.
- 지은정, 김진, 손동기. (2016).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고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은정, 최지현, 이숙현. (2015).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고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은정.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고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은정. (2017).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연구: 통계적 차별과 접촉가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73-109.
- 지은정. (2019). 노동시장의 연령주의 (ageism)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1), 1-30.
- 추병완. (2012). 노인차별주의와 도덕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36), 115-138.
- 통계청. (2016).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0). 고령인구비율.
- 한경혜, 석민애. (2017). 한국 어린이의 노인에 대한 태도: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2), 475-496.
- 한경혜, 윤성은. (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한국노년학, 27, 299-322.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 2018년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정란, 박성희, 원영희, 최일선. (2011). 한국 노인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안. Andragogy Today, 14(1), 121-149.
- 한정란, 원영희, 박성희, 최일선. (2009).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교육 욕구, 평생교육학연구, 15(4), 131-161.

- 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 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황문자, 최희정. (2017). 싱가포르·대만 사례를 통한 인구교육 방향 탐색. *인구교육*, 10, 1-17.
- Abrams, D., Russell, P. S., Vauclair, M., & Swift, H. J. (2011). 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Technical report. AgeUK
- Abrams, D., Vauclair, M., & Swift, H. J. (2011) Predictors of attitudes to age across Europ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UK
- AGE Platform Europe. (2016). AGE Platform Europe Position on Structural Ageism. [http://age-platform.eu/images/stories/Publications/papers/AGE\\_Intergenerational\\_Solidarity\\_Position\\_on\\_Structural\\_Ageism.pdf](http://age-platform.eu/images/stories/Publications/papers/AGE_Intergenerational_Solidarity_Position_on_Structural_Ageism.pdf)
- Allan, L. J., & Johnson, J. A. (2008).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1), 1-14.
- Allan, L. J., Johnson, J. A., & Emerson, S. D. (2014).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age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9, 32-37.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Boston: Addison-Wesley.
- Aronson, L. (2015). The human lifecycle's neglected stepchild. *The Lancet*, 385(9967), 500-501.
- Arrowsmith, J., & McGoldrick, A. E. (1996). HRM service practices: Flexibility, quality and employee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7(3), 46-62.
- Auer, P., & Fortuny, M. (2000). *Ageing of the labour force in OECD countries: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5), *National Prevalence Survey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ustralian HumanRights Commission, Sydney.
- Ayalon, L. (2018).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A precipitator or a consequence of depressive symptom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3(5), 860-869.
- Ayalon, L. (2020).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Ageism and intergenerational tension in the age of the COVID-19 outbreak.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1-4.
- Ayalon, L., & Tesch-Römer, C. (2018).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ageism*. Springer Nature.

- Ayalon, L., Dolberg, P., Mikulionienė, S., Perek-Białas, J., Rapolienė, G., Stypinska, J. & de la Fuente-Núñez, V. (2019). A systematic review of existing ageism scales. *Ageing Research Reviews*, 54, 1-9.
- Babcock, R. L., Malone-Beach, E. E., Hannighofer, J., & Woodworth-Hou, B. (2016). Development of a Children's IAT to Measure Bias Against the Elderly.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14(3), 167-178
- Bai, X., Lai, D. W., & Guo, A. (2016). Ageism and depression: Perceptions of older people as a burden in China.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26-46.
- Bailey, T. A. (2010). Ageism and Media Discourse: Newspaper Framing of Middle Age. *Florida Communication Journal*, 38(1), 43-56.
- Binstock, R. (2005). Old-age policies, politics, and ageism. *Generations*, 29(3), 73-78.
- Binstock, R. H. (2010). From compassionate ageism 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Gerontologist*, 50(5), 574-585.
- Black, B. (2016). Empowering and right-based approached to working with older people. Alliance for the Prevention of Elderly Abuse. <http://apeawa.advocare.org.au/publications/empowering/rights-based-a/>
- Blanpain, N., & Buisson, G. (2016) Projections de population à l'horizon 2070. INSEE première, n°1619.
- Bogai, H., & Schroeder, S. (1994). Binnenstruktur der Langzeitarbeitslosigkeit älterer Männer und Frauen. 24.
- Bodner, E. (2009). On the origins of ageism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1(6), 1003-1014.
- Bodner, E., Bergman, Y. S., & Cohen-Fridel, S. (2012). Different dimensions of ageist attitudes among men and women: A multigener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4(6), 895-901.
- Bodner, E., Shrira, A., Bergman, Y. S., Cohen-Fridel, S., & Grossman, E. S. (2015). The interaction between aging and death anxieties predicts age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15-19.
- Bratt, C., Abrams, D., Swift, H. J., Vauclair, C. M., & Marques, S. (2018).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across age in Europe: From an ageing society to a society for all 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16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 and Des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undestag, D. (2018).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Fraktion Die Linke. Bundestagsdrucksache, 17, 12136.
- Büsch, V., Dahl, S.-Å., & Dittrich, D. A. V. (2009). An empirical study of age discrimination in Norway and Germany. *Applied Economics*, 41(5), 633-651.
- Butler, R. N.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2), 8-11.
- Butler, R.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4), 243-246.
- Butler, R.N. (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 Bytheway, B. (2005). Ageism and Age Categor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 361-374.
- Calnan, M. F., & Hanron, J. B. (1970). Young nurse--elderly patient. *Nursing outlook*, 18(12), 44-46.
- Caradec, V., Poli, A., & Lefrançois, C. (2009). Les deux visages de la lutte contre la discrimination par l'âge. *Mouvements*, n° 59(3), 11-23.
- Carmichael F., Hulme C., Porcellato L., Ingham B., & Prashar A. (2011). Ageism and Age Discriminati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Older Employees. In Parry E., Tyson S (Eds.), *Managing an Age-Diverse Workforce*. Palgrave Macmillan, London.
- Carrigan, M., & Szmigin, I. (2000). Advertising and older consumers: Image and ageism.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9(1), 42-50.
- Chamberlain, V. M., Fetterman, E., & Maher, M. W. (1997). Children's attitudes toward elder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4), 31.
- Chang, E. S., Kanoth, S., Levy, S., Wang, S. Y., Lee, J. E., & Levy, B. R. (2020). Global reach of ageism on older persons' health: A systematic review. *PloS One*, 15(1), e0220857.
- Chasteen, A. L., Horhota, M., & Crumley-Branyon, J. J. (2020). Overlooked and underestimated: Experiences of ageism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 Chen, Joyce, Harwood, & Xiang, J. (2017). Stereotype reduction through humor and accommodation during imagined communication with older adults. *Communication Monographs*, 84(1), 94-109.
- Cherry, K. E., & Palmore, E.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ROPE): A measure of self-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10), 849-861.

- Chonody, J. M. (2016). Positive and negative ageism: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Affilia*, 31(2), 207-218.
- Chonody, J. M., & Teater, B. (2016). Why do I dread looking old?: A test of social identity theory,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the double standard of aging. *Journal of Women & Aging*, 28(2), 112-126.
- Clarke, L. H., & Korotchenko, A. (2011). Aging and the body: A review. *Canadian Journal on Aging*, 30(3), 495.
- Cockerham, W. C. (1997). The Social Determinants of the Decline of Life Expectancy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A Lifestyle Explan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2), 117-130. JSTOR.
- Colenda, C. C., Reynolds, C. F., Applegate, W. B., Sloane, P. D., Zimmerman, S., Newman, A. B., ... & Ouslander, J. G. (2020). COVID-19 pandemic and ageism: a call for humanitarian car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75(9), 1786-1787.
- Courts, N. F., Barba, B. E., & Tesh, A. (2001).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oward aging, caregiving, and nursing home placement.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7(8), 44-52.
- Cowgill, D. O., & Holmes, L. (Eds.),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 Cuddy, A. J., & Fiske, S. T. (2002). Doddering but dear: Process, content, and function in stereotyping of older persons.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3-26).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uddy, A. J., Norton, M. I., & Fiske, S. T.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67-285.
- Cuddy, A. J. C., Fiske, S. T., Kwan, V. S. Y., Glick, P., Demoulin, S., Leyens, J.-P., Bond, M. H., Croizet, J.-C., Ellemers, N., Sleebos, E., Htun, T. T., Kim, H.-J., Maio, G., Perry, J., Petkova, K., Todorov, V., Rodríguez-Bailón, R., Morales, E., Moya, M., ... Ziegler, R. (2009). Stereotype content model across cultures: Towards universal similarities and some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1), 1-33.
- Cunningham, J. B., & Debrah, Y. A. (1995). Skills for managing human resources in a complex environment: The perceptions of human resource managers in Singapo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6(1), 79-101.
- Dalen, H. P. van (Ed.). (2012). *Dilemma's rond langer doorwerken: Europese werkgevers*

- aan het woord.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Dannefer, D., & Feldman, K. (2017). Age integration, age segregation, and Generation X: Life-course perspectives. *Generations*, 41(3), 20–26.
- Davidovic, M., Djordjevic, Z., Erceg, P., Despotovic, N., & Milosevic, D. P. (2007). Ageism: does it exist among children?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7, 1134–1139.
- Debrah, Y. A. (1994). Management of Operative Staff in a Labour-scarce Economy: The Views of Human Resource Managers in the Hotel Industry in Singapore.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32(1), 41–60.
- De São José, J. M. S., & Amado, C. A. F. (2017). On studying ageism in long-term care: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9(3), 373–387.
- De Tavernier, W., Naegele, L., & Hess, M. (2019). A critical perspective on ageism and modernization theory. *Social Inclusion*, 7(3), 54–57.
- Demir, G., Bicer, S., Bulucu-Böyüksoy, G. D., & Özen, B. (2016).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about ageism and the related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9(3), 900–908.
- Depaola, S. J., Griffin, M., Young, J. R., & Neimeyer, R. A. (2003).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Death Studies*, 27(4), 335–354.
- Department of Employment (2015), Job Services Australia Data June 2015 – Newstart Customer Population by Age Group. Available at: [http://lmip.gov.au/default.aspx?LMIP/EmploymentData\\_JobServicesAustraliaNewstartRecipientsbyAge](http://lmip.gov.au/default.aspx?LMIP/EmploymentData_JobServicesAustraliaNewstartRecipientsbyAge)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4), 'Budget 2014–15: Increase the Age Pension Qualifying Age to 70 Years',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Available at: <https://www.humanservices.gov.au/corporate/budget/budget-2014-15/budget-measures/older-australians/increase-age-pension-qualifying-age-70-years>.
- Drury L., Hutchison P., & Abrams D. (2016). Direct and extended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s older adul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5(3), 522–543.
- Duell, N., Grubb, D., Singh, S., & Tergeist, P. (2010). Activation Policies in Japa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13.
- Durante, F., Fiske, S. T., Kervyn, N., Cuddy, A. J., Akande, A., Adetoun, B. E., ... & Barlow, F. K. (2013). Nations' income inequality predicts ambivalence in stereotype content:

- How societies mind the gap.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2(4), 726-746.
- Equal Right Trust. (2012). *Washing the tigers: Address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Malaysia*.
- Fishbein, M., & Ajzen, I. (1975).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9(1), 56-66.
- Frerichs, F., & Naegele, G. (1998). Strukturwandel des Alters und Arbeitsmarktentwicklung — Perspektiven der Alterserwerbsarbeit im demographischen und wirtschaftsstrukturellen Wandel. In W. Clemens & G. M. Backes (Eds.). *Altern und Gesellschaft: Gesellschaftliche Modernisierung durch Altersstrukturwandel* (pp. 237-256).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 Furunes, T., & Mykletun, R. J. (2010). Age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Validation of the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 (NAD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1(1), 23-30.
- Gaertner, S. L., Dovidio, J. F., & Samuel, G. (2000).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Psychology Press.
- Galton, N.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Death Attitudes, and Ageis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é Saint-Paul/Saint Paul University).
- Garstka, T. A., Schmitt, M. T., Branscombe, N. R., & Hummert, M. L. (2004). How young and older adults differ in their responses to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Psychology and aging*, 19(2), 326.
- Gaullier-Bougassas, C. (2003). *La tentation de l'Orient dans le roman médiéval: Sur l'imaginaire médiéval de l'Autre*. Honoré Champion, 67. 473.
- Gendron, T. L., Inker, J., & Welleford, E. A. (2018). A theory of relational ageism: A discourse analysis of the 201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The Gerontologist*, 58(2), 242-250.
- Gendron, T., Inker, J. K., Andricosky, R., & Zanjani, F. (2020). Development of the



- relational ageism scale: Confirmatory test on survey dat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0(3), 281-296.
- Gluth, S., Ebner, N. C., & Schmiedek, F. (2010). Attitudes toward younger and older adults: The German aging semantic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2), 147-158.
- Górniak, J. (2010). Raport baza rynków pracy. Obserwatorium Regionalnych Rynków Pracy.
- Gordon, S. (2020). Ageism and Age Discrimination in the Family: Applying an Intergenerational Critical Consciousness Approach.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8(2), 169-178.
- Greenberg, J., Schimel, J., & Martens, A. (2002).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In T.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27-48).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 Greiner, M., Kask, C., & Sparks, C. (1995). Comparative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s. *Monthly Labor Review*, 118(2), 26-38.
- Gu, D., Brown, B. L., & Qiu, L. (2016). Self-perceived uselessness is associated with lower likelihood of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adults in China. *BMC Geriatrics*, 16(1), 172.
- Guillemard, A.-M. (2003). Concluding Remarks Company Practices and Public Policies regarding Age: Lessons Drawn from Comparison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Issues and Practice*, 28(4), 673-676. JSTOR.
- Haber, C., & Gratton, B. (1992). Aging in America: the perspective of history. In Cole T.R, Van Tassel DD, Kastenbaum R (Eds.), *Handbook of the humanities and aging*. New York: Springer.
- Hagestad, G. O., & Uhlenberg, P. (2005). The social separation of old and young: A root of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43-360.

- Hess, T. M., Hinson, J. T., & Statham, J. A. (2004). Explicit and implicit stereotype activation effects on memory: Do age and awareness moderate the impact of priming? *Psychology and Aging*, 19(3), 495-505.
- Hoe, S., & Davidson, D. (2002). The effects of priming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older individua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5(4), 341-366.
- Hofmann, W., Gawronski, B., Gschwendner, T., Le, H., & Schmitt, M. (2005).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explicit self-report meas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0), 1369-1385.
- Ilişanu, G., & Andrei, V. (2018). Age stereotypes and ageism at the workplace. *Journal of Comparative Research in Anthropology and Sociology*, 9(2), 23-33.
- ISFOL. (2006). II Indagine su "La qualità del lavoro in Italia." [http://www.isfol.it/BASIS/web/prod/document/DDD/us\\_com090107.htm](http://www.isfol.it/BASIS/web/prod/document/DDD/us_com090107.htm)
- ISTAT. (2006). *Annuario Statistico Italiano*.
- Iversen, T. N., Larsen, L., & Solem, P. E. (2009). A conceptual analysis of ageism. *Nordic Psychology*, 61(3), 4-22.
- Jackson, S. E., Hackett, R. A., & Steptoe, A. (2019). Associations between age discrimination and health and wellbeing: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analysis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e Lancet Public Health*, 4(4), e200-e208.
-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2004). *Labor Situation in Japan and Analysis 2004/2005*. 125.
- Japan Trade Union Confederation. (2002). *Final Report on the Second National Survey of Unemployed*.  
<http://www.jtuc-rengo.or.jp/new/download/chousa/situgyo02/koyou.pdf>
-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02). *Study on Employment Among Older Adults*.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koyou/keitai/00/>
-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04). *Overview of Employment Management Survey Results*.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koyou/kanri/kanri04>
-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07). *White Paper on Aging Society*.

- Office of Government Public Relations.
- Jin, B., & Baumgartner, L. (2019). "Ageism in the Workpla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https://newprairiepress.org/aerc/2019/papers/14>.
- Johnson, J. & Bytheway, B. (1993). Ageism: concept and definition. In J. Johnson & R. Slater (Eds.), *Ageing and later life* (pp. 200-206). The Open University: Sage Publications.
- Kane, R. L. (2002). The future history of geriatrics: Geriatrics at the crossroad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 Medical Sciences*, 57(12), M803-M805.
- Karpinska, K., Henkens, K., & Schippers, J. (2011). The recruitment of early retirees: a vignette study of the factors that affect managers' decisions. *Ageing & Society*, 31(4), 570-589.
- Katz, S., & Calasanti, T. (2015). Crit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Does it “appeal more than it illuminates”? *The Gerontologist*, 55(1), 26-33.
- Kaufmann, M. C., Krings, F., Zebrowitz, L. A., & Sczesny, S. (2017). Age bias in selection decisions: the role of facial appearance and fitness impressions. *Frontiers in Psychology*, 8, 2065.
- Kemper, S., Vandeputte, D., Rice, K., Cheung, H., & Gubarchuk, J. (1995). Speech adjustments to aging during referential communication task.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4(1-2), 40-59.
- Kite, M. E., & Wagner, L. S. (2004).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In T.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129-161).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Kogan, N. (196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1), 44.
- Komatsu, H. (2002). Aging and Gender in Modern Society. *Women's Studies Forum*, 16, 23-42.
- Kornadt, A. E., & Kandler, C. (2017). Genetic and environmental sour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views on aging. *Psychology and Aging*, 32(4), 388.
- Kotter-Grühn, D., Kleinspehn-Ammerlahn, A., Gerstorf, D., & Smith, J. (2009).

- Self-perceptions of aging predict mortality and change with approaching death: 16-year longitudinal results from the Berlin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24(3), 654.
- Lambrinou, E., Sourtzi, P., Kalokerinou, A., & Lemonidou, C. (2009).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Greek nursing students towards older people. *Nurse Education Today*, 29(6), 617-622.
- Lee, K. E., & Lee, H. W. (2019). Priming effects of age stereotypes on memory of older adults in Korea.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1), 39-46.
- Leppel, K., & Clain, S. H. (1995). The effect of increases in the level of unemployment on older workers. *Applied Economics*, 27(10), 901-906.
- Levy, B., & Langer, E. (1994). Aging free from negative stereotypes: Successful memory in China among the American dea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6), 989-997.
- Levy, B. (2009). Stereotype embodiment a psychosocial approach to ag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6), 332-336.
- Levy, B. R., & Banaji, M. R. (2002). Implicit ageism. In T.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49-75).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Levy, B. R., & Myers, L. M. (2004). Preventive health behaviors influenced by self-perceptions of aging. *Preventive Medicine*, 39(3), 625-629.
- Levy, B. R., & Schlesinger, M. J. (2005). When self-interest and age stereotypes collide: Elders opposing increased funds for programs benefiting themselves.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7(2), 25-39.
- Levy, B. R., Hausdorff, J. M., Hencke, R., & Wei, J. Y. (2000). Reducing cardiovascular stress with positive self-stereotypes of ag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4), 205-213.
- Levy, B. R., Slade, M. D., & Kasl, S. V. (2002). Longitudinal benefit of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on functional healt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5), 409-417.
- Levy, B. R., Slade, M. D., Murphy, T. E., & Gill, T. M. (2012). Association between positive age stereotypes and recovery from disability in older persons. *Jama*, 308(19), 1972-1973.

- Levy, B. R., Zonderman, A. B., Slade, M. D., & Ferrucci, L. (2012). Memory shaped by age stereotypes over tim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7(4), 432-436.
- Lichtenstein, M. J., Pruski, L. A., Marshall, C. E., Blalock, C. L., Liu, Y., & Plaetke, R. (2005). Do middle school students really have fixed images of elder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B(1), S37-S47
- Lim, Y. (1988). *Policy Options for the Singapore Economy*. NY: McGraw-Hill.
- Liu, Y. E., While, A. E., Norman, I. J., & Ye, W. (2012). Health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and older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26(5), 397-409.
- Löckenhoff, C. E., De Fruyt, F., Terracciano, A., McCrae, R. R., De Bolle, M., Costa, P. T., ... & Allik, J. (2009). Perceptions of aging across 26 cultures and their culture-level associates. *Psychology and Aging*, 24(4), 941.
- Loos E, Ivan L (2018) Visual Ageism in the Media. In: Ayalon L, Tesch-Römer C (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Ageism Components* (pp. 163-176). Springer, Cham.
- Loretto, W., Duncan, C., & White, P. J. (2000). Ageism and employment: Controversies, ambiguities and younger people's perceptions. *Ageing and Society*, 20(3), 279-302.
- Luchesi, B. M., da Silva Alexandre, T., de Oliveira, N. A., Brigola, A. G., Kusumota, L., Pavarini, S. C. I., & Marques, S.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a sample of elderly caregiver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8(12), 2079-2089.
- Macdonald, J. L., & Levy, S. R. (2016). Ageism in the workplace: The role of psychosocial factors in predicting job satisfaction, commitment, and eng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169-190.
- MacDonald, P. (2016). 'Ageing in Australia: Population changes and responses' in Kendig, H., McDonald, P., & Piggott, J. (Eds.). (2016). *Population ageing and Australia's future*. ANU Press
- Macnicol, J. (2006). *Age discrimination: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inen, S., & Johnston, L. (2013). Workplace ageism: Discovering hidden bias. *Experimental Aging Research*, 39(4), 445-465.
- Mangweth-Matzek, B., Rupp, C. I., Hausmann, A., Assmayr, K., Mariacher, E., Kemmler,

- G., ... & Biebl, W. (2006). Never too old for eating disorders or body dissatisfaction: A community study of elderly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9(7), 583-586.
- Marbot, É. (2005). *La place des seniors dans l'entreprise: Une comparaison internationale*. Institut de l'entreprise.
- Marques, S., & Vauclair, M. (2015). imAGES: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age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Leya.
- Marques, S., Mariano, J., Mendonça, J., De Tavernier, W., Hess, M., Naegele, L., ... & Martins, D. (2020). Determinants of ageism against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7), 2560.
- Martens, A., Goldenberg, J. L., & Greenberg, J. (2005).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23-239.
- McConatha, J. T., Schnell, F., & McKenna, A. (1999). Description of Older Adults as Depicted in Magazine Advertisements. *Psychological Reports*, 85(3), 1051-1056.
- McCoy, S. K., Pyszczynski, T., Solomon, S., & Greenberg, J. (2000). Transcending the self: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successful aging. In A. Tomer (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37-64). Philadelphia: Taylor and Francis.
- McGowan, T.G. (1996). Ageism and Discrimination. In V.W. Marshall, T.R. Cole, A. Svanborg, E.J. Masoro, K.W. Schaie & J.E. Birren (Ed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ge, Aging, and the Aged* (pp. 71-80). San Diego: Academic Press.
- McLeroy, K. R., Bibeau, D., Steckler, A., & Glanz, K. (1988).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health promotion programs. *Health Education Quarterly*, 15(4), 351-377.
- Mcmullin, J. A., & Marshall, V. W. (2001). Ageism, age relations, and garment industry work in Montreal. *The Gerontologist*, 41(1), 111-122
- Mendonça, J., Marques, S., & Abrams, D. (2018). Children's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Current and future directions. In Ayalon, L., & Tesch-Römer, C (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ageism* (pp. 517-548). Springer, Cham.
- Mercat-Brun, M. (n.d.). Age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Retraite et Societe*, 36(2), 109-135.
- Middlecamp, M., & Gross, D. (2002). Intergenerational daycare and preschooler's attitudes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 271-288.
- Miller, R. B., & Dodder, R. A. (1980). A revision of Palmore's Facts on Aging Quiz. *The*

- Gerontologist, 20(6), 673-679.
- Ministry of Health. (1993). Annual Report.
- Mystakidou, K., Parpa, E., Tsilika, E., Katsouda, E., & Vlahos, L. (2005). The evolution of euthanasia and its perceptions in Greek culture and civilization.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8(1), 95-104.
- Natan, M. B., Ataneli, M., Admenko, A., & Noy, R. H. (2013). Nurse assessment of residents' pain in a long-term care facility.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60, 251-257.
- National Seniors Australia Productive Ageing Centre (2013), Age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Mature Age Australians. National Seniors Australia Productive Ageing Centre, Brisbane.
- Nelson, T. 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 Nelson, T. D. (2009).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England: Psychology Press.
- Nelson, T. D. (2016). Promoting healthy aging by confronting ageism. *American Psychologist*, 71(4), 276-282.
- Nelson, T. D. (2016). The age of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191-198.
- Ng, R., Allore, H. G., Trentalange, M., Monin, J. K., & Levy, B. R. (2015). Increasing negativity of age stereotypes across 200 years: Evidence from a database of 400 million words. *PloS One*, 10(2), e0117086.
- Nisbett, R. E., & Masuda, T. (2003). Culture and point of view.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63-11170.
- North, M. S., & Fiske, S. T.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5), 982.
- North, M. S., & Fiske, S. T. (2013). Subtyping ageism: Policy issues in succession and consumption.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7(1), 36-57.
- North, M. S., & Fiske, S. T. (2016). Resource scarcity and prescriptive attitudes generate subtle, intergenerational older-worker exclusion.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122-145.
- Nosek, B. A., Banaji, M. R., & Greenwald, A. G. (2002). Harvesting implicit group attitudes and beliefs from a demonstration web sit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 Practice, 6(1), 101-115.
- Obhi, H. K., & Woodhead, E. L. (2016). Attitudes and experiences with older adults: A case for service learning for undergraduate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7(2), 108-122.
- OECD. (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OECD. (201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Working Better with Age*.
- Officer, A., Thiyagarajan, J. A., Schneiders, M. L., Nash, P., & de la Fuente-Núñez, V. (2020). Ageism, Healthy Life Expectancy and Population Ageing: How Are They Relate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9), 3159.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Overview of the UK population: 2017*. Newpor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No. 47).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Osgood N. (2000). Ageism and elderly suicide: the intimate connection. In Tomer A (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157-173). Philadelphia: Brunner- Routledge.
- Palley, H. A., & Usui, C. (1995). *Social Policies for the Elder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9(3), 241-257.
- Palmore, E. (1977). Facts on aging: A short quiz. *The Gerontologist*, 17(4), 315-320.
- Palmore, E.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2nd ed.). New York: Springer.
- Palmore, E. (2000). Guest editorial: Ageism in gerontological language. *The Gerontologist*, 40(6), 645-645
- Palmore,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Palmore, E. B., & Manton, K. (1974). Modernization and the status of the aged: International correl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29(2), 205- 210.
- Palmore, E. B., Branch, L. G., & Harris, D. K. (2016). *Encyclopedia of ageism*. Routledge. <http://search.ebscohost.com/login.aspx?direct=true&scope=site&db=nlebk&AN=1233844>
- Pasupathi, M., & Löckenhoff. (2002). Doddering but dear: Process, content, and function in stereotyping of older persons.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201--246). Cambridge, MA: The MIT Press.
- Paulli, A., & Tagliabue, M. (2002). Active Strategies for Older Workers in Italy.
- Peat, C. M., Peyerl, N. L., & Muehlenkamp, J. J. (2008).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 in older adults: a review.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5(4), 343-358.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erek-Biały, J., Strzałkowska, H., & Turek, K. (2010). Analiza desk research w ramach badań dot. Stworzenia modelu świadczenia usług doradztwa i rozwoju kariery pracowników 50+. Kraków, Październik, 2010-2031.
- Pope, A. (2017). A psychological history of ageism and its implications for elder suicide. *Rational Suicide in the Elderly*, 63-74.
- Posthuma, R., & Campion, M. (2009). Age stereotypes in the workplace: Common stereotypes, moderator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Management*, 35(1), 158-188.
- Pyszczynski, T., Solomon, S., & Greenberg, J. (2015). Thirty years of terror management theory: From genesis to revel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2, 1-70.
- Ramely, A., Ahmad, Y., & Harith, N. H. M. (2016). Productive ageing: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aced by the labour workforce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Law*, 11(3), 27-32.
- Riek, B. M., Mania, E. W., & Gaertner, S. L. (2006). Intergroup threat and outgroup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336-353.
- Riesman, D. (1950). *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Robertson, D. A., King-Kallimanis, B. L., & Kenny, R. A. (2016). Negative perceptions of aging predict longitudinal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Psychology and Aging*, 31(1), 71.
- Robinson, T., Zurcher, J., & Callahan, C. (2014). Youthful ideals of older adults: Analysis of children's drawings. *Educational Gerontology*, 41(6), 440-450.
- Rocha, L. M., & Terra, N. (2013). Body image in older adults: a review. *Scientia Medica*, 23(4), 8.

- Rosenberg, M.J. & Hovland, C.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C. Hovland & M.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pp. 71-8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ubin, D. C., & Berntsen, D. (2006). People over forty feel 20% younger than their age: Subjective age across the lifespa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3(5), 776-780.
- Rudd, A. G., Hoffman, A., Down, C., Pearson, M., & Lowe, D. (2007). Access to stroke care in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effect of age, gender and weekend admission. *Age and Ageing*, 36(3), 247-255.
- Rupp, D. E., Vodanovich, S. J., & Credé, M. (2005).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ageism: Construct validity and group differ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3), 335-362.
- Sabik, N. J. (2015). Ageism and body esteem: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ate middle-aged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wom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0(2), 189-199.
- Sakuraba, R. (2009). The Amendment of the Employment Measure Act: Japanese Anti-Age Discrimination Law. 6(2), 20.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argent-Cox, K. A., Anstey, K. J., & Luszcz, M. A.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physical functioning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7(3), 750.
- Sargent-Cox, K. A., Anstey, K. J., & Luszcz, M. A. (2014). Longitudinal change of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mortalit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2), 168-173.
- Seidler, A. L., & Wolff, J. K. (2017).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processing speed across 3 years. *GeroPsych*, 30, 49-59.
- Shantakumar, G. (1996). Preparing for the greying century: Lessons from an industrializing country and future developments. *Ageing International*, 23(1), 52-65.
- Shanthakumar, D. K. (1994).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entrepreneurs in India and a comparison with American entrepreneurs.
- Singelis, T. M. (2000). Some Thoughts on the Future of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76-91.
- Smith, M. L., Bergeron, C. D., Cowart, C., Ahn, S., Towne Jr, S. D., Ory, M. G., ... & Chaney, J. D. (2017). Factors associated with ageist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17(10), 1698-1706.
- Snyder, M., & Miene, P. K. (1994). Stereotyping of the elderly: A functional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63-82.
- Solem, P. E. (2020). The affective component of ageism needs at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 Son, D. (2018). Ageism Survey and Social perception about Ageism in F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2(3), 3-27.
- Sparrow, A. (2020, March 15). Coronavirus: UK over-70s to be asked to stay home “within weeks”, Hancock say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15/corona-virus-uk-over-70s-to-be-asked-to-self-isolate-within-weeks-hancock-says>
- Springer, S. A., & Harwood, J. (2015). The influence of episodic and thematic frames on policy and group attitudes: Mediation analy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2), 226-244.
- Statista. (2017). Australia: Urbanization from 2007 to 2017. Available a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0498/degree-of-urbanizationin-australia/>
- Stephan, W. G., & Stephan, C. W. (2017). Intergroup threat theory.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12.
- Stephan, W. G., &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23-4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okes, J. E., & Moorman, S. M. (2016). Who are the people in your neighborhood? Neighborhood age composition and age discrimin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9(1), 68-80.
- Street, D., & Parham, L. (2002). Modernization and the status of older people. In D. J. Ekerdt (Ed.), *Macmillan encyclopedia of aging* (pp. 1332-1337). New York, NY: Macmillan.
- Stypińska, J. (2014). Age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in Poland – A socio-legal perspective. *Emecon Employment and Econom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4(1),

1-21.

- Stypińska, J., & Nikander, P. (2018). Ageism and age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A macrostructural perspective. In Ayalon, L., & Tesch-Römer, C (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ageism* (pp. 91-108). Springer: Nature.
- Sugii, Z. (2007). Why do people discriminate and abuse older people. *Japanese Journal of Gerontology*, 28(4), 545-551.
- Sutin, A. R., Stephan, Y., Carretta, H., & Terracciano, A. (2015).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hysical, cognitive, and emotional health in older adulthood.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3(2), 171-179.
- Swift, H. J., Abrams, D., & Marques, S. (2013). Threat or boost? Social comparison affects older people's performance differently depending on task domai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1), 23-30.
- Swift, H. J., Abrams, D., Lamont, R. A., & Drury, L. (2017). The risks of ageism model: How ageism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age can be a barrier to active aging.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1(1), 195-231.
- Szukalski, P. (2006). Zagrożenie czy wyzwanie—proces starzenia się ludności.
- Takao, Y. (2009). Aging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pan: The Dankai Generation in a Political Swing. *Asian Survey*, 49(5), 852-872.
- Tan, P. P., Zhang, N., & Fan, L. (2004).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ducational Gerontology*, 30(4), 305-314.
- Tan, P. P., Hawkins, M. J. and Ryan, E. (2001). Baccalaureate social work student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Journal of Baccalaureate Social Work*, 6(2), 45-55.
- Taverna, M. V., Nguyen, C., Wright, R., Tysinger, J. W., & Sorenson, H. M. (2014). Iatro-compliance: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excessive autonomy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88(1), 53-60.
- Taylor, P., & Walker, A. (1998). Policies and practices towards older workers: A framework for comparative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8(3), 61-76.
- Theofanidis, D. (2015). A qualitative study on discrimination and ethical implications in stroke care in contemporary Greece. *Journal of Vascular Nursing*, 33(4), 138-142.
- Thimm, C., Rademacher, U., & Kruse, L. (1998). Age stereotypes and patronizing messages: Features of age-adapted speech in technical instructions to the elderly.

-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6(1), 66-82.
- Tomita, S. K. (1999). Exploration of elder mistreatment among the Japanese. *Understanding Elder Abuse in Minority Populations*, 119-139.
- Top, M., Eriş, H., & Kabalcioglu, F. (2012). Quality of life and attitudes toward aging among older women in Turkey. *Affilia*, 27(4), 406-419.
- Tovel, H., Carmel, S., & Raveis, V. H. (2019). Relationships among self-perception of aging, physical functioning, and self-efficacy in late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4(2), 212-221.
- Tuckman, J., & Lorge, I.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2), 249.
- Turek, K., & Henkens, K. (2020). How Skill Requirements Affect the Likelihood of Recruitment of Older Workers in Poland: The Indirect Role of Age Stereotyp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4(4), 550-570.
- Turek, K., & Perek-Bialas, J. (2013). The role of employers opinions about skills and productivity of older workers: Example of Poland. *Employee Relations*, 35(6), 648-664.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Retrieved from <http://esa.un.org/unpd/wpp/DVD>
- Vauclair, C.-M., Marques, S., Lima, M. L., Abrams, D., Swift, H., & Bratt, C. (2016). How does income inequality get under the skin?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in the inequality- health nexus for older and younger people. In C. Roland-Lévy, P. Denoux, B. Voyer, P. Boski, & W. K. Gabrenya Jr. (Eds.), *Unity, diversity and culture. Proceedings from the 22n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 Vauclair, C. M., Marques, S., Lima, M. L., Bratt, C., Swift, H. J., & Abrams, D., (2015). Subjective social status of older people across countries: The role of modernization and employment.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0(4), 650-660.
- Vidovi, L. (2005). Věková diskriminace—Ageismus: Úvod do teorie a výskyt diskriminačních přístupů ve vybraných oblastech s důrazem na pracovní trh. 55.
- Villiers-Tuthill, A., Copley, A., McGee, H., & Morgan, K. (2016). The relationship of

- tobacco and alcohol use with ageing self-perceptions in older people in Ireland. *BMC Public Health*, 16(1), 627.
- Vitman, A., Iecovich, E., & Alfasi, N. (2014). Ageism and social integration of older adults in their neighborhoods in Israel. *The Gerontologist*, 54(2), 177-189.
- Walker, J. (1987). Local politics and the local authority labour market. *Local Economy: The Journal of the Local Economy Policy Unit*, 2(3), 181-199.
- Wang, D., & Chonody, J. (2013).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9(1), 150-172.
- Weller, S. A. (2007). Discrimination, labour markets and the labour market prospects of older workers: What can a legal case teach u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1(3), 417-437.
- Williams, A., Ota, H., Giles, H., Pierson, H., Gallois, C., Ng, S.-H., Lim, T.-S., Ryan, B., Somera, L., Maher, J., Cai, D., & Harwood, J. (1997). Young People's Beliefs About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n Initial Cross-Cultural Comparison. *Communication Research*, 24(4),
- Wojtyniak, B., Goryński, P., Moskalewicz, B., & Narodowy Instytut Zdrowia Publicznego - Państwowy Zakład Higieny. (2012). Sytuacja zdrowotna ludności Polski i jej uwarunkowania. Narodowy Instytut Zdrowia Publicznego - Państwowy Zakład Higieny.
- Wolff, J. K., Schüz, B., Ziegelmann, J. P., Warner, L. M., & Wurm, S. (2017). Short-term buffers, but long-term suffers? Differential effects of nega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following serious health even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2(3), 408-414.
- World Health Assembly, 69. (2016). Multisectoral action for a life course approach to healthy ageing: Draft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ageing and health: report by the Secretariat (A69/17). Article A69/17.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252671>
- Wurm, S., Wolff, J. K., & Schüz, B. (2014). Primary care supply moderates the impact of diseases on self-perceptions of aging. *Psychology and Aging*, 29(2), 351.
- Wyman, M. F., Shiovitz-Ezra, S., & Bengel, J. (2018). Ageism in the health care system: Providers, patients, and systems. In Ayalon, L., & Tesch-Römer, C (Eds.), *In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ageism* (pp. 193-212). Springer, Cham.

- Yan, T., Silverstein, M., & Wilber, K. H. (2011). Does race/ethnicity affect aging anxiety in American baby boomers? *Research on Aging*, 33, 361–378.
- Yen, C. L., & Cheng, C. P. (2010). Terror management among Taiwanese: Worldview defence or resigning to fat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 185–194.
- Yip, C. (2010). Time to redefine Malaysia's work culture.  
<http://biz.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0/4/24/business/6110687&sec=business>
- Yusoff, N., & Zulkifli, Z. (2014). Rethinking of Old Age: The Emerging Challenge for Malaysia. *International Proceedings of Economics Development and Research*, 71(13).
- Zhang, X., Xing, C., Guan, Y., Song, X., Melloy, R., Wang, F., & Jin, X. (2016).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 matter of cultural values or personal values?. *Psychology and Aging*, 31(1), 89.
- Zhao, Y., Dupre, M. E., Qiu, L., & Gu, D. (2017). Changes in perceived uselessness and risks for mortality: Evidence from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in China. *BMC Public Health*, 17(1), 561.
- Zhou, F. et al. (2020). Clinical course and risk factors for mortality of adult inpatients with COVID-19 in Wuhan, Chin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The Lancet*, 395, 1054–1062.





2020 연구보고서

---

# 아셈 회원국 연령주의 척도개발 기초연구

---

| 인 쇄 | 2020년 11월

| 발 행 | 2020년 11월

| 발행처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 주 소 |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 전 화 | 02) 6263-9800 | F A X | 02) 6263-9808

| Homepage | [www.asemgac.org](http://www.asemgac.org)

| 인쇄처 | 경성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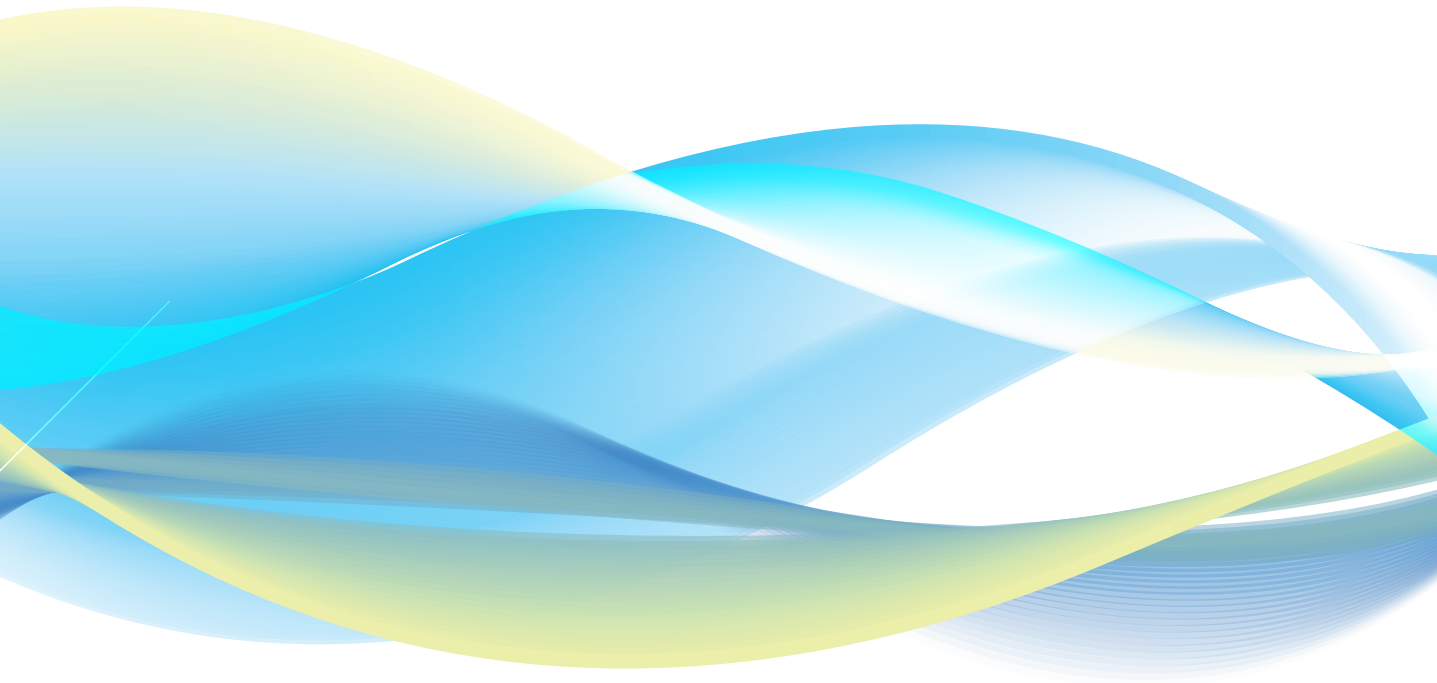
| 전 화 | 02) 786-2999 | F A X | 02) 782-1391

---

ISBN: 979-11-966829-9-6 93330 비매품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AGAC**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 Global Ageing Center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13층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TEL. 02-6263-9800 FAX. 02-6263-9808 [www.asemgac.org](http://www.asemgac.org)

